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지은이 / 사무엘 김 외

옮긴이 / 정 동 수

2판 1쇄 / 2015년 12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 동 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7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09-8 03230

정가 : 1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The Answer Book)

사무엘 김 외 지음
정동수 옮김

The Answer Book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1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저자 서문

본 서를 저술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가들은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무기로 여러 개의 악한 질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 즉, 악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첫 번째 동기입니다. 본서에서는 신학 교육의 혜택(혹은 잘못된 신학에 의한 저주)을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대한 논의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의 사실이 본서가 존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얼마 전 대규모 근본주의 운동 단체의 한 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날 화나게 하는 건 겨우 고등학교 정도밖에 못 나온 풋내기들이 감히 원문 비평학을 논한다는 거야!”

본서를 쓰게 된 두 번째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학에 가본 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오랜 세월 그들을 ‘어둠과 무지 속에’ 감금해 두려고 애쓰는 신학 박사들의 횡포에 의해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풋내기’란 모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들 중엔 박사 학위의 영예를 만끽하는 대학 강의실의 성경비평학자들보다 더욱 진지하게 자신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이슈 즉 어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육 받은’ 적들이 마치 함정을 파 놓듯 던지는 ‘교묘한 질문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곤 합니다. 반면에 비평학자들은 ‘지식이란 알량한 갑옷’을 입고 스스로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취지는 평범한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지식을 구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거만한 적들이 쏘아대는 맹렬한 화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크리스천일지라도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거만한 성경 비평가들의 갑옷에 몇 개의 구멍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한 ‘성경’ (Bible), ‘거룩한 성경’ (Holy Bible),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God’s perfect Bible), ‘거룩한 성경 기록’ (Holy Scripture) 등은 그 구절의 직접적인 문맥에 의해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모두 영어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 혹은 『영어 흠정역 성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각의 질문이 독자적으로 취급되었지만 나중 질문들 중 몇 가지는 그 이전 질문들의 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흥미 있게 보이는 질문들만을 골라 띄엄 띄엄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독자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깁(Samuel Gipp)

역자 서문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100년이 넘는 기간 중 단 한번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문제가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왜 갑자기 예전에 들어 보지도 못했던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불쑥 튀어나와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혼란에 빠트리느냐가 의아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근래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간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부터 400여 년 전인 1611년에 영국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출간됨으로써 미신과 무지 속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복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 즉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출간 이후에도 여러 개의 다른 성경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400년간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거의 100%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복음 전파가 한창 진행 중이던 18, 19세기에 영국 및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세계 거

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두길 원치 않았고 자기 자신의 역본들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약 270년이 지난 뒤에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영성주의자들’에 의해 소위 『영국개역성경』(*Revised Version, RV*)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십 가지의 ‘새로운’ 역본들이 모두 ‘이집트 계열’의 본문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팔린 ‘다른 역본들’의 판매량을 다 합쳐도 『킹제임스 성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역자가 미국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들러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팔리는 비율을 물었더니 서점 주인은 지금도 크리스천들의 80%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개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역자가 이미 번역하여 출간한 『성경의 역사와 뿌리』(도서출판 두루마리)의 저자 킵(Samuel Gipp) 박사께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지침서로 저술한 책이며 원제는 『The Answer Book』입니다. 이 책은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고 있으나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였습니다. 철저한 『킹제임스 성경』 수호자이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유머를 잃지 않는 저자의 태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 100가지 질문과 답변 중 처음의 62가지는 사무엘 킵 박사의 글

입니다. 63번부터 100번까지 38가지 질문과 답변은 2008년 8월에 출간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www.KeepBible.com)과 관련된 글이며 또 성서침례교회의 고 장두만 박사가 두란노의 「목회와 신학」 잡지에 기고한 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보존학회’와 관련된 내용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여러 책에서 사진이나 그림들을 추출해서 빈자리에 적당하게 실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질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서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것들만 추려서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록 1은 성경 문제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록 2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도서 목록입니다. 성경과 더불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때 크리스천의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사무엘 김 박사님, 원고를 정리해 준 박노찬 형제, 인천승리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고로 저자인 사무엘 김 박사는 한국에 와서 ‘성경의 뿌리와 역사’에 대한 강연회를 했습니다. 김 박사의 강연을 보기 원하는 독자는 ‘그리스도예수안에’ 홈페이지(www.KeepBible.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는 이들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목 차

저자 서문 5

역자 서문 7

목차 10

■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62가지 질문

1. 일개 역본보다는 원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16
2.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는 오역이 아닙니까?	19
3. 제임스 왕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27
4.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가 많지 않습니까?	30
5. 킹제임스 성경도 줄곧 개정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34
6. 최고의 사본들이 새 역본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까?	59
7.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존재한다면 다른 나라말로 된 완전한 성경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1
8. 자필 원본에서 복사된 성경 사본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64
9. 70인역이란 무엇입니까?	79
10. 킹제임스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면 나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94
11.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는 삭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97
12. 영적 거장들 중에 다른 역본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106
13.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바른 성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09
14.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성경 번역 시 자기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까?	110
15. 오늘날의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보다 더 나은 번역 능력을	

구비하지 않았을까요?	113
16. 제임스 왕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용하도록 자신이 번역을 위임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인가해 주었습니까?	115
17. 킹제임스 성경은 누구를 위해 번역된 것입니까?	116
18. “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122
19.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까?	124
20.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름을 들어가면서 남을 헐뜯는 ‘험담가들’이 아닙니까?	125
21.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숭배자’가 아닙니까?	127
22.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까?	129
23.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는 것은 이단 종파가 따르는 교리가 아닙니까?	131
24. 딘 버건은 어떤 인물입니까?	133
25. ‘공인 본문 주의자’(TR Man)와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KJB Man)는 어떻게 다른니까?	135
26. 신학 교육이 성경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139
27. 다른 역본들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141
28.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된 것입니까, 보존된 것입니까?	143
29. 번역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9
30.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는 것은 이단 종파가 따르는 교리가 아닙니까?	152
31. 다른 성경에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없단 말입니까?	156
32.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완전하다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158
33.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칭한 것은 오역이 아닙니까?	160
34. 킹제임스 성경에도 처음엔 외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164
35. 다른 성경을 사용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172
36. 사해 사본도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까?	174
37. ‘thee’와 ‘thou’ 같은 고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75
38. 뉴킹제임스역(NKJV)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176
39. 뉴스코필드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178
40. 신국제역(NIV)은 믿을 만합니까?	182

41. 1611년 이후에 발견된 필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83
42. 현대 역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185
43. 성경 문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게 아닐까요?	188
4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누구입니까?	194
45. 그리스 태생의 학자라면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영어 성경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196
46. 렉크맨주의자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197
47. 그리스어 사본에서만 발견되는 '금덩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
48. 공인 본문은 1633년에 가서야 등장했는데 어떻게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으로부터 번역될 수 있습니까?	216
49.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공회의 유아 세례 주는 자들과 한 패거리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219
50.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제 모교의 입장과 상반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1
51.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진보적 계시'가 아닙니까?	224
52.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역사에 근거를 둔 입장'입니까?	227
53. 과연 우리가 역본 문제를 거론해야만 합니까?	229
54. 박사들의 학식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1
55. 성경 역본들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강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33
56. 성경과 그리스어 사전이 모순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7
57. 에라스무스는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였습니까?	238
58.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264
59.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면 미래 승진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5
60.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6
61.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69
62.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2

■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38가지 추가 질문

63. 말씀보존학회는 어떤 곳입니까?	275
6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몇 구절에 나오는 사랑과 마귀가 진한 명조체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9
65.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판권이 없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판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1
66.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세대주의자들의 성경이 아닙니까?	284
67. 창조인가요? 재창조인가요? 말씀보존학회가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간극 이론'은 무엇입니까?	287
68. 노아는 아담의 십 대손입니까? 팔 대손입니까?	306
69. 작은 숲입니까, 아세라입니까?	308
70. 왜 아브라함은 작은 숲을 심었습니까?	310
71. 창세기 22장 8절은 어떤 번역이 맞습니까?	313
72. 베나민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315
73. 벽을 파 내려갔습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까?	317
7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6절은 오역이 아닙니까?	319
75. 오소리는 오역이 아닙니까?	321
76. 민수기 33장 52절의 그림은 오역이 아닙니까?	323
77. 사사기 5장 14절은 글 쓰는 자의 펜이 맞습니까?	327
78. 골리앗의 동생입니까? 골리앗의 아들입니까?	329
79. 열왕기상 10장 28절은 오역이 아닙니까?	332
80. 느브갓네살입니까, 느브갓레살입니까?	336
8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시편 1편 중 '경건치 아니한 자'는 오역이 아닙니까?	338
82. 이사야서 65장 1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갓'을 '군대'로 '므니'를 '수'로 오역하지 않았습니까?	340
83. 다니엘서 9장 24절은 어떤 번역이 맞습니까?	344
84. 십일조를 3일 만에 드릴까요, 3년 만에 드릴까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야모스 4장 4절은 오역이 아닙니까?	346
85. 기운과 렘판은 동일한 것 같은데 왜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까?	351
86. 고래가 어떻게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352
87.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떤 번역이 맞습니까?	354
88. 마태복음 1장 1절은 세대인가요, 세계 혹은 계보인가요?	356
89.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나오는 '그것' (it)은 무엇입니까?	361
90.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오역이 아닙니까?	364
9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은 오역이 아닙니까?	366

92.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침례’란 단어를 ‘뱃타이즈’(baptize)로 음역을 해서 세례가 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369
93. 사도행전 8장 37절은 원래 없는 구절이 아닙니까?	372
94.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신전’으로 번역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76
95.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20, 23절 등에 나오는 ‘첫 열매’는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380
96. 빌립보서 1장 13절의 ‘palace’는 오역이 아닙니까?	382
97. 빌립보서 3장 20절의 ‘conversation’은 시민권(市民權)입니까? 아니면 생활권(生活圈)입니까?	384
98.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388
99. 요한 계시록 1장 1절은 어떤 번역이 맞습니까?	390
100. 계시록 4장 6절은 짐승이 맞습니까? 아니면 생물이 맞습니까? ...	392

부록 1. 용어 정리 394

부록 2. 역자 추천 참고 도서 402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는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Q 일개 역본보다는 오히려 최초의 자필 원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A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에 가치를 부여하신 만큼만 가치를 두면 됩니다.

E 자필 원본(Original autographs)이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필 원본은 이미 오래전에 소실되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자필 원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실한 성경 신자라면 자필 원본이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정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위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답변의 끝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필 원본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오는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 즉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레미야서의 몇 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구월에 겨울 집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 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의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의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렘 36:21-23)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 앞에 두루마리가 놓이고 그의 종 여후디가 그것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며 23절에는 여후디가 두루마리의 서너 쪽을 낭독하자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펜 칼 즉 소도로 일일이 찢어서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에 던져 넣어 그 두루마리를 전소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필 원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감동하게 하사 재차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셨고 거기에 몇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렘 36: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렘 36:32)

이리하여 ‘두 번째 원본’이 탄생했으며 예레미야서 45-51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재생된 이 ‘두 번째 자필 원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가 바빌론에 이르거든 이 두루마리를 읽고(렘 51:59-61) 다 읽은 후에는 돌에 매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말하였습니다(렘 5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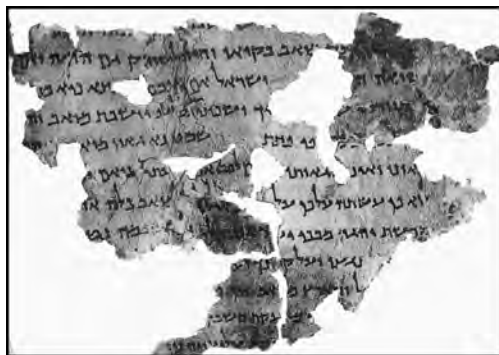
이리하여 ‘두 번째 자필 원본’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45-51장의 그 두루마리 본문의 복사본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본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두 번째 자필 원본’의 ‘복사본’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세 번째 자필 원본’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필 원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1. 이제껏 출판된 모든 성경에는 예외 없이 예레미야서 45-51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두 번째 자필 원본’ 이나 혹은 ‘세 번째 자필 원본’의 복사본으로부터 번역된 것이다.
2. 이 사실을 통해 일단 원본이 복사되어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 자체를 보존하시는 데 일말의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음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이 점은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이상으로 자필 원본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같이 원본을 강조하는 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자필 원본의 본문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이 시간에 자필 원본이 발견된다 해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해 사본의 예레미야서 48장

Q 『킹제임스 성경』의 사도행전 12장 4절에 나오는 ‘이스터’ 즉 ‘부활절’은 ‘파스카’라는 단어를 오역한 것이므로 다른 역본들과 같이 ‘유월절’로 번역해야 옳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사도행전 12장 4절의 ‘파스카’를 ‘부활절’로 번역한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다음의 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E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이스터’(Easter) 즉 ‘부활절’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파스카’(Pascha)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9번 나옵니다. 그중 28번은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애굽)를 지나시며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출 12:12)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날 밤과 연관되어 ‘유월절’(Passover)로 번역되었습니다.

“완전한 성경이 있다.”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도 ‘Pascha’를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흠정역 성경』에서 ‘이스터’라 번역된 단어를 발견하고는 『흠정역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포착했노라고 상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에서도 그들이 또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터’는 고대 이교도들의 ‘아스타르테’ (Astarte) 축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쉬타르’ (Ishtar)로도 알려져 있고 ‘이스터’ (Easter)로도 받음됩니다. 이 축제는 항상 4월 하순경에 개최되었는데 사실 초기의 ‘이스터’ 축제는 겨울 철이 지난 뒤 땅이 부활하는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는 다산과 번식을 기념하는 의식도 수반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음란 잡지인 「플레이 보이」의 상징인 토끼와 달걀 등이 ‘이스터’ 축제일의 상징물로 쓰였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번식력 즉 다산으로 매우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터’ 축제의 주인공은 여신 ‘아스타르테’였습니다. 이 여신은 성경에서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 램 7:18; 44:17-25)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담무스(Tammuz, 겔 8:14)의 어미이자 또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가증한 축제 의식은 ‘이스터’ 아침 동틀 녘에 행해지곤 했습니다(겔 8:13-16).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교도들의 ‘이스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제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4월 중순(14일)에 개최되었고 이교도들의 축제였던 ‘이스터’는 같은 달에 좀 더 늦게 개최되었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아닌 이교도들의 ‘이스터’를 언급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헤롯이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언급했다면 ‘Pascha’를 ‘이스터’ 즉 ‘이교도들의 부활절’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정말로 이교도들의 축제 절기인 ‘이스터’를 언급했다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오늘날 인쇄되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정확히 번역한 유일한 성경이기

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절에 있는 ‘이스터’ (Easter)에 관한 혼란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는 4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발견됩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교절과 유월절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 (days of unleavened bread)에 붙잡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행 12:3).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절기는 주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죽여서 좌우 문기둥과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출 12:4-5). 자, 이제 성경이 첫 유월절과 무교절 즉 ‘누룩없는 빵을 먹는 기간의 날들’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출 12:13-18).

13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4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15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18 첫째 달 곧 그 달 십사일 저녁부터 그 달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피가 문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집을 ‘넘어가시리라’ (pass over)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Passover’는 ‘넘어감’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월절’은 ‘넘어간 날’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이후에(출 12:13-14) 유대인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며 그래서 무교절이라 부릅니다! 18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무교절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4월 14일부터 21일까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¹⁾

이 종교적인 절기들은 민수기 28장 16-18절에 더욱더 명백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십사일은 주의 유월절이며 또 이 달 십오일은 명절이니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6절에서 우리는 유월절이 그 달의 14일만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즉 15일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즉 무교절이 시작됩니다(신 16:1-8).

1 아빔 월을 준수하여 주 네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빔 월에 주 네 하

1) 첫 번째 달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4월임

나눔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 떼와 소 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네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양을 희생물로 드리되

3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 이레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내에서 누룩 있는 빵이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때에 네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온밤이 지나도록 남겨 두지 말며

5 유월절 어린양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6 오직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 질 때에 거기서 드리며

7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아서서 네 장막들로 갈 것이니라.

8 너는 옛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네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이며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1절의 아빕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4월인데 원래는 히브리 민간력으로 7월이었지만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 종교력의 1월로 삼은 달입니다(출 12:2). 위의 신명기 구절에서 우리는 유월절 양이 그 첫날 밤에 희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신 16:1). 동틀 녘(겔 8:13-16)이 아니고 해질 때(신 16:6)에 유월절을 기념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실입니다. 역대기하 8장 13절에서 우리는 무교절이 연중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정한 비율로 안식일과 월삭과 한 해에 세 번 지키는 엄숙한 명절들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드렸더라.

유월절은 항상 무교절 전에 있었습니다. 역대기하 30장에서 보면 정월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월에 지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날짜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때에 둘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이르러 ...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주께 노래하였고 (대하 30:15, 21)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 이레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스 6:19, 22)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월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14일 이후에 행하는 그 어떤 사건도 유월절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4월 15일 아침부터 무교절로 알려진 기간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이 언급될 때마다 이 명절이 4월 14일 저녁에 — 결코 한 주간 내내가 아님 — 먹어야 하는 음식 즉 유월절 어린양과 관련된 명절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즉 무교절 ‘기간’ (days)이 유월절(day)로 언급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천사가 하룻밤 동안에 이집트를 넘어간 것이지 결코 잇따라서 7일 밤 동안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 3-4절을 봅시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

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3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4월 15-21일 사이)에 체포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이미 유월절(4월 1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헤롯이 이 구절에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유월절은 일 년 후에야 오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1년 동안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 두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며칠 있으면 이교도들의 축제 성일인 ‘이스터’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헤롯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던 이교도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킬 까닭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유대인들을 화나게 할까 봐 유월절이 끝나길 기다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절교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헤롯의 행동에 화를 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축제일에 사람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므로 유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인 바 있습니다(마 26:17-19, 47). 그들은 또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흥분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들은 종교적 축제 기간에 — 축제 이후가 아니라 — 얼마든지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로마인으로서 헤롯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며 또한 헤롯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일로

매우 유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마 14:6-11). 사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헤롯이 자기의 생일 축하 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기꺼이 죽이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유월절이 이미 지난 뒤인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했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즉 무교절 기간은 4월 21일에 끝났을 것이고 그 즉시 이교도 헤롯이 지키던 이교도들의 축제 즉 ‘이스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스터’까지 기다리기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마 26:17-47)이나 로마인(마 14:6-11)이나 다 종교적 축제 기간에 사람을 죽이고자 했으므로, 헤롯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축제 기간에 ‘베드로를 죽이는 즐거움’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 자신이 지키던 이교도의 축제일인 ‘이스터’까지 기다려서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죽는 것을 보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파스카’를 ‘이스터’ 즉 ‘이교도들의 부활절’로 바르게 번역한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의 ‘이스터’를 ‘유월절’로 바꾼 것은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며 동시에 그 당시 상황의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시한 제임스 왕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왕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E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위임했던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비록 영국이 낳은 최고의 군주는 아니었다 해도 많은 이들이 존경을 금치 않았던 위대한 군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결단을 통해 그는 스코틀랜드의 상호 투쟁하는 족속들을 하나의 통합 민족으로 연합하였으며 그 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현재 알려진 것과 같은 대영제국의 기틀을 형성하였습니다.

단지 영국의 국교회들만이 영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던 때에 제임스 왕은 평민들 즉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603년에 제임스 왕은 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학식 있는 54명의 학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이 영적 무지에 빠져 지내길 바라던 때에 제임스 왕은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쳤던 제임스 왕은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Counterblast to Tobacco*)라는 소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그것은 영국 내에서의 흡연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항상 적들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중 한 사람인 웰돈(Anthony Weldon)은 조정에서 추방당했고 이에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제임스 왕이 죽은 지 25년 후인 1650년에 가서야 웰돈은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왕을 동성연애자로 몰아붙이는 글을 썼는데 그때는 이미 제임스 왕이 죽은 뒤라 왕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돈의 이 보고서를 무시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1세

이 문제는 제임스 왕을 비방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담긴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을 더럽힐 수 있으며 그 결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책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좀 더 현대화된’ 역본들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꼬집어낸 것인데 사실 그전까지 이것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 그런 종류의 시시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웰돈의 이 거짓 보고서는, 그 보고서의 저자였던 웰돈과 같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크리스천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1605년 영국 국민들의 손에서 그 참된 성경을 빼앗기 위하여 의회의 의원 전원과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필사적인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05년에 가넷(Henry Garnet)이라는 예수회(Jesuits) 사제의 지도 하에 포크스(Guy Fawkes)라는 이름의 로마 카톨릭 교도 한 명이 의회와 제임스 왕을 살해하기 위해 암살용 화약 36통을 가진 채 의회 지하실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살해한 후 그의 자녀들을 감금시키고, 반항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영국을 교황에게 충성하는 나라로 재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영어 성경’도 그 계획의 희생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크스와 가넷 그리고 8명의 공모자들은 체포되어 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임스 왕의 인품에 먹칠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들은 한결같이 성스럽지 못한 자리에 동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Q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들을 제거한 현대 역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처음 질문에는 “그렇습니다.”이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어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삭제한 현대 역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 성경에 고어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고어란 더 이상 일상 회화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된 말을 뜻합니다. 고어의 좋은 예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Whatsoever is sold in the shambles, that eat, asking no question for conscience sake :

여기에 나오는 ‘shambles’란 단어는 고어로서 옛날에 가축을 도살하여 즉석에서 고기를 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현대의 일상회화에서 ‘시장’(market place)이란 단어로 대체되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shambles’가 고대의 시장 및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있는 고기 시장을 더욱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shambles’를 제거해 버리고 이보다 더 흔히 쓰이는 ‘시장’ 즉 ‘market place’를 삽입한 새 역본을 출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이 실제로 이 고어들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완전한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고어들에 관해서도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사무엘기상 9장 1-11절에서 실제로 성경이 고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1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사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의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다음에는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 기스가 나귀보다 자기와 및 자기의 종을 염려할까 하여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로 결심한 이후의 상황이 나옵니다.

6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 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7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8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일 세겔의 사분의 일이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음 구절에 ‘고어’가 그 모습을 드러낼 터이니 주의 하여 보도록 합시다.

9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쭙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10 그때에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11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사무엘기상 9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어뿐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성경의 관례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간 나귀들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삼상 19:1-5). 그들은 선견자(Seer) 사무엘을 찾아가 나귀들을 찾는 일에서 그의 도움을 얻고자 결심합니다(6-8절). 11절에서 드디어 우리는 고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하여 설명부 즉 9절을 괄호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지금 대언자(Prophet)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Seer)라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이 사건이 기록하게 기록된 시기 사이에 ‘선견자’(Seer)라는 단어가 점차 사용되지 않다가 결국은 ‘대언자’(Prophet)로 대체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선견자’(Seer)라는 단어는 고어였습니다. 그러나 고어가 나타나는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seer)가 여기 있느냐? 하매

11절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인 ‘선견자’(Seer)가 그대로 보존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11절은 분명히 “대언자(Prophet)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고어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의 거룩한 영감을 통해 친히 9절을 기록하셨으며 그 뒤 고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거룩한 본문을 바꾸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목회자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가 설교하면서 혹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회중들에게 “이것은 고어이니 틀렸습니다. 새 역본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고기 시장’(shambles)이라 불리던 것이 지금은 ‘시장’(market place)으로 불립니다.”라고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고어들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어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킹제임스 성경이 고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들을 삭제한 현대 역본은 필요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말로 고어를 대체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책을 바꾸지 않으셨으며 우리 역시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Q 1611년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줄곧 개정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수차례의 교정이 있어 왔을 뿐입니다.

E 1611년에 탄생된 『흠정역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것으로 시비를 삼아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대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럴 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합니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고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판입니까, 1629년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을 틈타 재빨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을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습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흠정역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시키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보다 개선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가를 얻어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 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첨가, 삭제, 그리고 바꿔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판 『흠정역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흠정역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마땅히 철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꾸며낸 이야기’ 즉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1881년 영국의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역본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고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

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아무개가 이혼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다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기만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이 문제가 두 번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현대 학자들이 진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자께서는 본 소책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흠정역 성경』에 대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흠정역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 — 사실이 그렇다 —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요?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

쇄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문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으므로 우리의 권위도 근거를 상실하고 맙니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졌고 지금 없습니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더라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이 틀림없으므로 폐기처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 종종 지목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요? 초판을 찍어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요?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진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

었습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서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경의 인쇄소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1611년에 『흠정역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역본에서조차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습니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습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흠정역 성경』 인쇄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

음을 잘 보여 줍니다. 이 두 판본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습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립니다.

분명히 학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상의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봅시다.

1611년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H.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매우 학자티를 내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어 『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흠정역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흠정역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흠정역 성경』의 개정'이라

는 것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의 첫 부분에 들어 있는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합니다.

소위 처음에 『흠정역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독자께서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캠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판 『흠정역 성경』이 첫 번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성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을 뿐입니다. 1629년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초기의 실수들을 더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로부터 9년 지난 뒤에 다시 캠브리지에서 소위 ‘두 번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 『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도 캠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일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들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을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캠브리지 판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확하기 위한 교정 공정 즉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

정 공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교정 공정 즉 두 단계로 구성된 또 다른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습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두 번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은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습니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 개정'을 거쳤다는 것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된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

경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비록 책 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 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1. 인쇄상의 변화들(Printing Changes)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즉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입니다. 고딕체는 때때로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독일체라고도 부릅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딕체는 최근 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었습니

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태상의 일반적인 몇몇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됩니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는 반면에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w를 ‘더블브이’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1611년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Jesus’는 ‘Iefus’ — 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십시오 — 가 되고 ‘joy’는 ‘ioy’가 됩니다.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고딕체	로마체
<i>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i>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심지어 고딕체 d의 굵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됩니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두려고 사용하는 연막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철자상의 변화들(Spelling Changes)

『흠정역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에 따른 변화 즉 철자상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같은 책에서, 때로는 같은 페이지에서조차도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

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어의 경우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므로 18세기 후반에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히 공통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 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습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든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솔직히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3. 본문상의 변화들(Textual Changes)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예로 제

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1611년 『흠정역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간되고 있는 『흠정역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본문 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들의 특성,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이런 변화들이 생긴 때입니다.

먼저 영어 『흠정역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생겨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611년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습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려고 일부러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닙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혔습니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습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의 부록에서 ‘1611년 KJV 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의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습니다. 보아서 금방 판단하시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번개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고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번개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Seek God)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으라.”(Seek good)고 한 1611년판 『흠정역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찍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 번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

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화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킹제임스 성경』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점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611년 판과 현재 판 KJV 비교

	1611년 원본 본문	현재의 본문	본문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 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서로 100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 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로서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표의 6번) ‘And Parbar’를 ‘At Parbar’로(표의 7번) 고치는 것과 같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을 인쇄한 후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했다는 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후 몇 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랍니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개는 1613년에, 1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개는 1629년에, 5개는 1638년에, 1개는 1743년에, 2개는 1762년에, 1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개의 정정 사항 중 16개 즉 80%가 1611년의 초판 인쇄 후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전략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크리브너 책의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뿐입니다. 본문 변화의 빈도

는 3페이지당 1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으며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시킨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입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른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의 변화들

전도서에 이루어진 변화들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 알라바마주 밀브룩의 리즈 박사(Dr. David Reese)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리즈 박사는 최근에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과 넬슨 출판사가 출간한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즉 ‘1611년 원판을 재쇄한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변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표에는 먼저 인용 구절이 있고 그다음에는 넬슨 사의 ‘1611년 원판 재

쇄 성경 본문’ 이 있고 다음으로 최근의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이 본문에서 변화가 만들어진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비교

	전도서	넬슨 사 본문	현재 판의 본문	정정 연도
1	1:5	the place	his place	1638
2	2:16	shall be	shall all be	1629
3	8:17	out, yea further	out, <u>yet he shall not find it</u> ; yea farther	1629
4	11:17	thing is it	thing it is	?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변형 사항은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학자였던 스크리브너조차 지적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넬슨 출판사가 인쇄할 때 잘못 인쇄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넬슨 사는 원판을 복사하지 않고 일대일 대응으로 재식자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8장의 정정된 부분에서 생략된 구절은 원판을 정정한 것 가운데 가장 긴 것 중 하나입니다(위 표의 세 번째 것).

그러나 그것이 이미 1629년에 정정되었음에 주목하십시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쇄 실수들의 빈도는 전도서 총 12장에서 4개 이므로 평균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전도서 전체가 1638년경까지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하지 않는다 해도 현재 인쇄되어 시중에 나오고 있는 판들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부디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경은 고딕체에서 로마체로 인쇄되었습니다. 따라서 1638년 이후 지난 350년간 전도서에 이루어진 모든 변화 — 저는 ‘모든 변화’ 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 란 단지 철자가 표준화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같이, 1629년과 1638년에 출간된 캠브리지 판들의 주목적은 초기 인쇄 실수들을 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62년과 1769년에 나온 판들의 주목적은 철자법을 표준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개정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

이제 여러분은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으며 단지 인쇄와 철자법상의 실수나 변화를 정정하는 작업만을 거쳤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정’ 이나 ‘정정’ 이나 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차이를 불러일으킬까요? 이 문제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근본주의학자라 하는 이들이 ‘과거에도 『킹제임스 성경』이 개정되었다는 거짓 신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수행하는 본문 위조를 정당화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뉴킹제임스역』(*New King James Version, NKJV*)의 편집자들은 최근 들어 이러한 선전 장난을 최대한도로 이용한 장본인들일 것입니다. 『뉴킹제임스역』의 서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 400년간 여러 번에 걸친 영어 번역상의 개정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 영어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존경을 받아왔다.

그들은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자기들이 새로 내놓은 『뉴킹제임스 역본』이 지난 375년간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직접 언급한 말을 통해 그들이 암시하려는 바는 참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전도서로 가 봅

시다.

『뉴킹제임스역』에서 전도서 1장을 검토해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뉴킹제임스역』 사이에 대략 50개 정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철자법의 변화들, 예를 들어 ‘cometh’를 ‘comes’로, ‘labour’를 ‘labor’로 등으로 바꾸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다. 만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키면 전도서에만도 600여 개의 변화가 있고 성경 전체에서는 무려 60,000여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눈에 띄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분석하면서 식별할 수 있는 변화들의 종류를 세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공정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계속해서 개정되어온 관례에 따라 ‘가장 최근에 새로 개정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책 즉 『뉴킹제임스역』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개 사항들이 발견되는 것은 참으로 당혹스런 일입니다. 근본주의학자들은 『뉴킹제임스역』이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판 시리즈 중 다섯 번째 개정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소위 네 번의 ‘개정판’이 만들어진 지난 375년 동안에는 단지 400여 개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다섯 번째 개정판이라 하는 『뉴킹제임스역본』에는 무려 60,000여 개의 변화가 생겨났는지 누가 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섯 번째 개정판’이라 불리는 『뉴킹제임스역』이 처음 네 번의 개정판에 있던 정정 내용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뉴킹제임스역 비교

구절	킹제임스성경(KJV)	뉴킹제임스역(NKJV)
1:13	sore travail / 쓰라린 해산의 고통	grievous task / 괴로운 일
1:14	vexation of spirit / 영을 괴롭게 하는 것	grasping for the wind / 바람을 잡으려는 것
1:16	my heart had great experience of wisdom / 내 마음이 지혜의 큰 경험을 쌓았다.	My heart has understood great wisdom / 내 마음이 큰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
2:3	to give myself unto / 내 자신을 내어 주려고	to gratify my flesh with /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2:3	acquainting / 알게 하다	guiding / 안내하다
2:21	equity / 공평	skill / 재주
3:10	the travail, which God hath given /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사	the God-given task / 하나님께서 주신 일
3:11	the world / 세상	eternity / 영원
3:18	they themselves are beasts / 그들이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they themselves are like beasts / 그들이 짐승과 같음을 시험하시리니
3:22	portion / 몫	heritage / 유산
4:4	right work / 옳은 일	skillful work / 교묘한 일
5:1	Keep thy foot / 네 발을 지키라.	walk prudently / 조심하여 걸으라.
5:6	thy voice / 네 목소리	your excuse / 네 변명
5:8	he that is higher than the highest /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신 이	high official / 고관
5:20	God answereth him /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God keeps him busy / 하나님께서 그를 바쁘게 하시므로
6:3	untimely birth / 유산	stillborn child / 사산된 아이
7:29	inventions / 창안물	schemes / 계획
8:1	boldness / 뻔뻔함	sternness / 험상궂음
8:10	the place of the holy / 거룩한 자의 처소	the place of holiness / 거룩함의 장소
10:1	Dead flies cause the ointment of the apothecary to send forth a stinking savour / 죽은 파리들이 약 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한다.	Dead flies putrefy the perfumer's ointment / 죽은 파리들이 향수 제조자의 향유를 부패시킨다.
12:9	gave good heed / 깊이 주의를 기울였다.	pondered / 깊이 생각했다.
12:11	the masters of assemblies / 집회의 스승들	scholars / 학자들

변화의 빈도도 믿어지지 않을뿐더러 변화의 특성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변경 사항들이 언뜻 보면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이 심각한 것들입니다. 『뉴킹제임스역』 편집자들은 현대판 성경 역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들 대부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정도로 매우 교활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반 근본주의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의 본문들을 겹도 없이 마구잡이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뉴킹제임스역』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위의 표에는 전도서의 인용 구절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그리고 『뉴킹제임스역』의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 표의 내용은 전도서에 있는 변경 사항들을 보여 주는 극히 일부분의 예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성인 ‘공평’이 ‘재주’로 바뀌었습니다(2:21). ‘세상’이 ‘영원’으로 바뀌었습니다(3:11). 하나님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단지 짐승과 같을 뿐입니다(3:18). 전도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 즉 ‘가장 높은 분’이 고관으로 대체되어 성공적으로 제거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학자들을 바쁘게 만드십니다(5:20). 아마도 위에 언급된 변화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마지막에 소개된 ‘집회의 스승들’이 ‘학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뉴킹제임스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학자들의 말은 잘 박힌 못들과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전 12:11)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ds, and the words of scholars are like well-driven nails, given by one Shepherd. (NKJV)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 채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The words of the wise are as goads, and as nails fastened by the masters of assemblies, which are given from one shepherd. (KJB)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뉴킹제임스역』에 서는 집회의 스승들이 학자들로 대치되어 마치 학자들이 목자의 말씀의 원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의 원천이 한 목자 곧 하나님임을 보여 줍니다. 물론 『뉴킹제임스역』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씀의 원천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뉴킹제임스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 즉 ‘인쇄나 철자법상의 실수나 변화를 바로잡은 개정판’이 결코 아닙니다. 『뉴킹제임스역』은 전혀 새로운 번역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역』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 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뉴킹제임스역』은 이전 개정판들의 연장이 아닙니다.

다. 그것은 사실 ‘넬슨사 역본’ 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뉴킹제임스역』의 판권을 넬슨 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해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 이 아니라 ‘정화된 것’ 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 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 리건 박사의 이 귀한 소책자는 다음의 주소로 1 달러를 보내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rinity Baptist Temple Bookstore, 5709 N. Broadway, Knoxville, Tennessee 37918,
USA, (615) 688-0780

Q 최고의 사본들이 요즘 나오는 새 역본들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요?

A 아닙니다. 최고의 사본들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뒷받침해 줍니다.

E 요즘 나오는 새 역본들은 5,000개가 넘는 신약 성경 필사본 중 단지 다섯 개 정도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필사본들이 『흠정역 성경』 역자들이 사용한 필사본들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 중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즉 전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자산인 ‘바티칸 사본’(Vaticanus)과 ‘시내 사본’(Sinaiticus)은 실수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내 사본’은 10명이나 되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정정되고 변경되었습니다. ‘바티칸 사본’에서는 매우 조잡한 솜씨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단어들(Words)과 절(Phrase) 전체가 연달아 두 번 반복되거나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 전체는 펜을 들고 글자마다 수정을 가한 어떤 인물 혹은 복수의 인물들에 의해 훼손되었고 또한 그런 인물들의 정체를 규명하기조차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본 모두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 즉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시지

않은 비성경적인 책들인 외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잔뜩 갖고 있지만 이 신뢰할 수 없는 필사본들의 재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 사본들은 질 좋은 동물 가죽 즉 벨럼으로 만들어졌으며 훌륭하게 제본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의 본문은 전혀 가치가 없지만 그 외양은 실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표지로 그 책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표지들은 매우 아름다우나 그 본문들은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잘 알려진 개악(改惡)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신미국표준역』(NASV)이나 『신국제역』(NIV) 같은 많은 새 역본들의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역본들은 오류투성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대표되는 필사본들은 최고의 질을 가진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본들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한 사본들임을 알게 됩니다.



구약 이사아서 두루마리

Q 영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존재한다면 불어나 독일어 혹은 일본어나 한국어 등으로 된 완전한 성경도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A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민족’에게 ‘한 언어’로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언어마다 완전한 역본이 있어야만 한다는 억측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까지 증명된 하나님의 관행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E 여기서는 세 부분 즉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1. 구약 성경

에스라서와 다니엘서 몇 부분을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거룩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나름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의 민족에게 하나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대 학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으실 분

이 아니므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지구 상에 존재하던 이집트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이디오피아어 혹은 어떤 다른 언어로 자신의 말씀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독점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나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해 넉넉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것 또한 잘 용인된 사실입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코이네 그리스어’ (Koine Greek)로 기록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영감 받은 완전한 원문’을 주실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의 책이 이스라엘과 같은 한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마 28:19). 그분께서 신약 성경의 언어로서 그리스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3.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언어로 합치려고 계획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어뿐이었습니다. 영어는 16세기 후반까지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그 무렵 영어는 지구상 그 어느 언어도 누리지 못한 탁월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 완전한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영국 그리고 뒤를 이어 미국은 지구 상의 구석구석에 영어를 제1 혹은 제2 외국어로 확립시켜 가며 지구 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들도 자기 국민들에게 여전히 영어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서방 세계에 적대적인 나라들조차도 사업가나 군사 요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두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묶기 위해 영어를 택하심으로써 온 세계가 공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약성경을 위해 단지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셨고 신약성경을 위해서도 단지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이 두 개의 언약을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묶으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관행을 일관되게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신 것은 거실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차분히 펼쳐 놓아 우리의 손님들에게 우리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임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접한 첫날부터 책갈피에 꽃을 넣어 납작하게 꽃을 말리도록 하거나 혹은 우리의 족보를 그 안에 기록하도록 그 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읽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은 뒤에 팔에 끼고 그 책 안에서 밝히 드러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단번 속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책을 주셨습니다.

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합시다!

Q 처음의 자필 원본에서 복사된 성경 사본들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A 현존하는 성경 사본의 대부분은 두 개의 계열 혹은 군(群)으로 나뉩니다. 이 계열들은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E 이 세상에는 단지 두 개의 성경 즉 하나님의 성경과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대한 견해도 단지 두 가지 뿐입니다. 전적으로 완전하다는 견해든지 혹은 불완전하다는 견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본들의 형태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성경은 중동 지역의 매우 다른 장소들에서 나오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 두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과 정확한 이데올로기를 주며 또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마귀의 성경과 부정확한 이데올로기를 주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성경이라는 한 가지 원천 때문에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나 먼

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시리아의 안디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기본 규칙은 보통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나 장소 혹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의 문맥이 그 사람이나 장소 혹은 단어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 성경이 취하는 태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1. 이집트(애굽, Egypt)

(1) 성경에서 이집트는 창세기 12장 10-12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래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 두리니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알려진 언약이 주어짐을 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그들의 소유로서 양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국에 있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감

니다. 12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 사를 강탈할지도 모른다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문맥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부정적임을 봅니다.

(2) 출애굽기 1장 11-14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사실상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바로)는 15-16절에서 유대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포고합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십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아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이 구절도 명백히 이집트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3)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내신 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이 이집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분께서는 이집트를 ‘속박의 집’ 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이것 역시 이집트에 대한 또 한 번의 부정적인 언급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신명기 4장 20절에서 모세는 이집트를 ‘쇠 용광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 날의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5)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미래에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될 때 그 왕이 이집트와 상업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비난하시면서 그곳을 소돔과 이집트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니라.

이상과 같은 간략한 연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우리는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단지 네 번 언급되며 네 번 모두 나쁜 의미로 언급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1) 알렉산드리아는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스테반과 변론하며 실제 그를 죽였던 무리들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2)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열심이 있었으나 복음에 관해 잘 못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이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에베소에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행 18:25; 19:3). 아볼로는 그때까지도 신약적 의미의 구원을 받지 못했으며 그가 개종시킨 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후에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으며(26절)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메시지가 완전해졌습니다(28절). 그러나 이처럼 두 번째 언급된 곳에서도 알렉산드리아는 여전히 ‘잘못된 성경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언급 역시 매우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체포되고 카이사르에게 변론을 요구한 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로마로 보내집니다(행 27:6).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향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4) 로마로 향해하는 도중 바울이 탄 배는 폭풍우로 인해 가라앉게 됩니다. 멜리데라 하는 섬에서 석 달을 보낸 후 그는 또 다른 배를 타고 죽음을 향한 길로 보내집니다. 바울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이 두 번째 배는 어디서 왔을까요?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행 28:11).

위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네 군데가 다 알렉산드리아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성경의 판결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100년경에 아테네로부터 철학과 교육을 받아들였고(행 17:16) 그 이후에 세상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골 2:8). 거기에는 철학자 판테누스(Pantaenus)가 설립한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판테누스는 성경을 모두 철학적으로 그리고 알레고리 즉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철학적이라 함은 그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진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알레고리(비유)적으로 봄으로써 아담, 노아,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들의 시(詩)에나 존재하는 인물이고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와 후에 오리젠(Origen)에 의해 그 학파의 우두머리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클레멘트와 오리젠은 그의 회의론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순수한 복사본들’을 받은 즉시 자기의 뒤틀린 사상과 병행하도록 성경 사본을 개조한 사람은 교육과 철학이라는 두 개의 마취제에 미혹된 오리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비평학자들의 아버지이며 누가복음 24장 40절, 사도행전 8장 37절과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구절들을 삭제해 버린 필사본들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다.”라고 단숨에 말한 뒤에 곧바로 “성경에는 실수들과 오역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알렉산드리아 철학 즉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근본주의 학자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부패한 철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다 맨 처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 실성한 이데올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 부패하였으므로 마땅히 폐기처분시켜야 하며 또 “성경에 오류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철학 역시 매우 교활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본주의 산물이므로 마땅히 배격해야 합니다.

3. 안디옥(Antioch)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안디옥은 알렉산드리아가 처음 언급되는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1)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집사’(deacons)로 알고 있는 ‘사역의 조력자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3-4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 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일곱 사람이 선택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택하여

첫 번째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인 니콜라가 안디옥 사람이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니콜라만 그 고향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안디옥이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언급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안디옥은 긍정적인 견지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알렉산드리아는 부정적인 견지에서 처음 언급되었음을 아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대한 몇 개의 적절한 보기들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중심지로 안디옥을 선택하셨음을 증명해 주는데 이것들은 물방울 같은 증언으로 시작해서 대홍수 같은 증언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2)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 19-21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과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 하더라. 그들 중의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핍박을 피해 도피한 크리스천들 중 한 무리가 자기들이 도피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디옥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사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안디옥에서 힘있게 일하셔서 상당수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이방인 대각성 운동이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3) 사도행전 11장 22-24절에서 우리는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행 4:36)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안디옥에 파견됨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

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4) 사도행전 11장 25-26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바나바가 젊은 개심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27절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의 개종을 변호해 주었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열심 있는 한 젊은 개종자가 다소에 가서(행 9:30)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사울을 찾아낸 뒤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신약 교회의 영적 수도인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은 다 이 경건한 노성도의 친절한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5)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를 때마다 안디옥의 우리 영적 선조들과 영적인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과 크리스천의 관계는 플리머스록²⁾과 미국인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2) Plymouth Rock : 청교도 조상들이 상륙했다고 하는 미국 플리머스 지방의 사적지

(6) 27-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중의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 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유대인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다. 이 사건이 있기 몇 해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다.

(7) 사도행전 11장 29-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당하게 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나 이 구절이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본거지에 대해 성경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8) 복음 선포를 위해 온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다(물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 대신 안디옥에서 자신의 충성스런 종들을 찾으셨습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행 13:1-3)

따라서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유래된 것같이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전도 여행 또한 안디옥에서 나왔음이 명백합니다. 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보고서를 보내거나 그 도시를 관광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행 14:25-28)

안디옥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두 번의 언급을 살펴보면 안디옥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9) 사도행전 15장 23-27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 관한 결정 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두 명의 대표를 안디옥에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

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행 15:23-27)

임무를 마친 후에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라는 안디옥에 남기로 하였고³⁾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의 선교 동역자로서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10) 물론 두 번째 전도여행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 40절이 설명해 주는 대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의 어떤 매력적인 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중심부로 그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안디옥은 로마,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처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이방종교, 이방학문과 이방철학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안디옥이 위에서 언급된 도시들이나 심지어 예루살렘과도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거의 정확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동서 무역로의 교차 지점에 세워졌다는 점에도 비중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안디옥은 오론텐스 강을 경유한 항구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본거지로서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아마도 바울 서신들의 자필 원본들의 대부분이 안디옥에서 쓰였을 것입니다.

2세기에 루시안(Lucian)이라는 한 제자가 안디옥에서 성경학교

3) 『한글개역성경』에는 34절 전체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가 없음

를 세웠습니다. 루시안은 이교도 철학을 불신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학파는 성경의 신성과 권위를 찬미했으며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상징적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안디옥은 성경 필사본의 바른 계열의 기원 도시일 뿐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마음은 선하나 ‘알렉산드리아식’ 교육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디옥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성경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알렉산드리아식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식 확신 때문에 그들은 시편 12편 6-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구 상에 완전한 성경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옳지 못한 태도로 옳은 책(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의 이집트 선조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들과 개악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성경의 충고를 무시하고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은 이집트를 멀리하고 말(Horse)을 늘리려고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신 17:16)는 성경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그는 이집트에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아섬을 보게 됩니다. 5-8절에서 그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4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말을 사기 위해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곳에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집트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무시하고서는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영어 성경의 선구자 위클리프

Q 학자로나 목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70인역』이란 무엇입니까?

A 『70인역』은 보통 주 예수님 탄생 이전에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책입니다.

E 먼저 『70인역』에 대한 기존의 추측부터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어 성경(구약, Old Testament)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한 계획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Letter of Aristeas*)라 불리는 한 고문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편지에 따르면 이 그리스어 역본이 유대인들의 공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번역 작업에 참여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작업이 행해진 가상의 장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며 번역은 주전 250년경인데 이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감 시기인 주전 397년과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인 주전 4년경⁴⁾ 사이에 있었던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 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대개 달력에서 4년의 오차가 있으므로 주전 4년으로 봄

이상으로 『70인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역본은 『셉투아진트』(Septuagint) 혹은 『70인 장로들의 번역』으로 알려져 왔는데 보통 영어로는 LXX로 표기되며 여기서 로마 사람들의 숫자 개념에 따라 L은 50, X는 10을 뜻하므로 이 숫자들을 합하면 7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72명이 번역했다는 그 가상 속의 역본을 왜 ‘72인역’ (LXXII)이라 부르지 않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 불리는 이 서신이 이 불가사의한 문서 즉 『70인역』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물인데 그 이유는 주전 250년 혹은 그 전후로 구약 전체를 번역한 그리스어 필사본은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역사의 어디를 보아도 그런 일을 고려했다거나 진행시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학자들은 급히 주후 200년경 오리겐이 지은 『헥사플라』(Hexapla)를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70인역』(LXX)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때보다 거의 45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것이며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100년도 훨씬 지나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끼친 해악이 지대하므로 일단 오리겐과 그와 관련된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소수 본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국지적 본문’⁵⁾(A local text)이었고 거기에서 유세비우스

5) ‘국지적 본문’이란 비잔틴/안디옥 사본에서 나온 본문처럼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용된 ‘보편적 본문’이 아니고 아프리카 같은 특정 지역과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 등에서만 국지적으로 쓰인 소수 사본 본문을 말함

는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50개의 성경 복사본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유세비우스는 참된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순수한 본문을 사용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고, 대신에 이집트에 있는 교육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학자들의 수정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대신에 알렉산드리아를 선택했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그가 이집트 학자인 오리겐을 열렬히 추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아드만티우스 오리게네스(주후 185~254년)는 성경 본문 부패의 장본인입니다.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사이므로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들은 오리겐을 가리켜 ‘위대한 크리스천 학자요, 고대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리겐은 한때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이단자로서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된 하나님’이었다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이 같은 오리겐의 믿음에 대해 「뉴스탠다드 백과사전」(*New Standard Encyclopedia*) 제9권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리겐의 사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의 ‘로고스(Logos) 교리’였다. 이 사상은 요한복음 1장 1-5절과 그 외 다른 기독교 저술 안에도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오리겐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란 창조의 신적 원리와 이성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름이었는데 오리겐은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적용했다. 그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듦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로고스’로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오리겐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시며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무시하였다. 이 같은

교리는 4세기경의 이단 그룹인 아리우스파의 교리 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다시 말해 오리겐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창조된 신(神)’으로 믿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땅에 거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오리겐의 저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사실은 부패한 사본들 속에 들어 있는 모순들을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간혹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도 이내 돌아서서는 그것을 부인하곤 했습니다.

사실 오리겐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변개하고는 “말씀(The word)은 한 신(a god)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과 ‘신’을 소문자로 쓴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은 참으로 우리 세대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수하는 그릇된 교리에서 나온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교리를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요한복음 1장 1-5절과 3장 13절에서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이단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보편적 본문’을 변개시켜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성경 사본의 변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우리는 그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철학 및 성경 변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려 합니다.

1. 오리겐의 삶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부유하게 살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교사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르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주후 202년경에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순교했고 그의 가정은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오리겐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클레멘트가 창설한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들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으며 또한 영지주의자였던 암브로스의 책들을 소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교도로서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카스 밑에서 공부했고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예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땅에서 잤으며 스스로 거세(去勢)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는 개인적으로 매우 용감했고 인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후 213년에 로마를 방문했으며 그 뒤 알렉산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 주후 215-219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이주했습니다. 후에 알렉산드리아로 되돌아온 그는 주후 231년까지 거기에 거하다가 알렉산드리아의 지도부와의 마찰로 인해 출퇴되어 영구히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32년에 그는 가이사랴에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에 버금가는 학교를 세웠고 데시우스트라얀 황제의 모진 박해로 인해 가이사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오리겐의 믿음

비록 오리겐이 초기의 위대한 교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마저도 그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 아

니었음을 인정합니다.

(1) 그는 영지주의적 신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 그는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3) 그는 종종 구약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했고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학자 피커링은 마쉬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운 철학에 비추어 볼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면 오리겐은 곧바로 문자적 해석을 버리고 비유 해석을 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성경이란 기록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겐 거의 쓸모가 없다.’ 이 말은 곧 자기가 느끼는 바가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바라고 오리겐이 생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피커링, 「신약 성경본문의 정체」(*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1977, pp. 140, 192).

(4)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기록을 부인했고 오히려 영혼이란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 그는 또한 죽음 이후에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좀 더 고차원의 혹은 저차원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윤회 사상을 믿었습니다.

(6) 그는 또한 보편적 구원을 믿었으며 악한 자들도 형벌을 받은 후에는 즉 연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7) 그는 또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별이나 달도 혼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8) 그는 결국에는 마귀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9) 그는 목사를 제사장(혹은 신부)으로 부른 사람들 중 하나이며 주교들이 큰 죄를 용서하는 데 한몫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10) 대부분의 교부들이 성경대로 ‘전천년주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세력을 확장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후천년주의’를 신봉했습니다.

3. 오리겐의 작품

오리겐은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온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평생에 6,0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초기 교부들이 신약성경에서 인용한 글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의 50% 정도가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의 7명의 중요한 교부들이 신약성경을 인용한 것 중에서 오리겐의 것이 약 18,000개나 될 정도로 그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1) 오리겐의 대규모 작품

- 1) 그는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 2) 그가 저술한 『제1 원리에 관하여』(*De Principiis*)라는 책은 조직신학 책이다.
- 3) 그가 지은 『셀수스에 반대하여』(*Against Celsus*)는 변증학 책이다.
- 4)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헥사플라』(*Hexapla*)이다.

(2) 『헥사플라』: 구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헥사플라』(혹은 『6난 성경』)는 여섯 개 난에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 즉 『폴리글롯』으로 오직 구약 성경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난마다 각각 다른 구약 역본이 들어 있습니다. 시

가서 같은 경우에 그는 서너 개의 다른 번역을 더 추가하여 『8년 성경』 혹은 『9년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헵사플라』는 『벨과 용』(Bel and the Dragon), 『유디스서』(Judith), 『토비트서』(Tobit)와 같은 위조된 책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다른 외경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헵사플라』는 50개로 구성된 매우 큰 폴리오 책으로 그 분량만도 자그마치 6,500쪽이나 된다.
- 2) 이 책은 주후 250년경에 완성되었다.
- 3) 그는 7명의 속기사들과 7명의 필사하는 사람과 함께 일했다.
- 4) 첫째 난은 히브리 본문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본문과 거의 같다.
- 5) 둘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을 담고 있다. ‘음역’이라 함은 다른 말의 문자를 사용하여 원어 단어의 소리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샬롬’ (Shalom)과 그리스어 ‘뱍타이즈’ (Baptize)는 음역한 것이며 만일 이것들을 번역하면 ‘평화’ (Peace)와 ‘뽁 담근다’ (Dip)가 된다.
- 6) 셋째 난은 아퀼라가 번역한 그리스어 역본을 담고 있다.
- 7) 넷째 난은 시마쿠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역본을 담고 있다.
- 8) 다섯째 난은 오리겐의 작품으로 현재 『70인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 9) 여섯째 난에는 테오도티온의 그리스어 역본이 있다.
- 10) 『헵사플라』는 주후 638년까지 가이사라의 도서관에 있었으나 그 뒤 모슬렘들의 침략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 11) 『헵사플라』는 단지 그 일부분만 복사되었고 특히 『헵사플라』의 다섯째 난은 ‘바티칸 사본’ (B 사본), ‘시내 사본’ (알

레프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사본), ‘에프레미 사본’ (C 사본) 등에 남아 있다.

4. 신약 성경 본문에 미친 오리겐의 영향

오리겐은 성경 본문 비평가들이 소위 ‘가정하여 수정하는 기법’이라 부르는 기법을 사용하여 종종 신약성경 사본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쳤습니다. 이 기법은 한마디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본문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리겐이 플라톤 철학의 관점에서 일했으므로 그의 작품은 참으로 신약성경 본문을 망가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실한 성경학자였던 버건은 다음과 같이 오리겐의 신약성경 본문 비평의 멋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17-21절에 대한 주석에서 오리겐은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명령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명령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또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 전체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마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부자 청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오리겐은 사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이 원래의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그는 후대의 어떤 서기관이 이 구절을 집

어넣었다고 믿은 것이다.

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저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본문 비평가
가 자기가 받은 본문에 만족해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상상
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본문에 가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오리겐보다 더 자유롭게 본문을 수정한 학
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부패한 ‘바티칸 사
본’과 ‘시내 사본’ 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70인역』의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겐이 『헥사플라』
의 다섯 번째 난에다 스스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넣
은 것이 아니라 단지 『70인역』을 복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
니다. 이 주장이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주장
이 옳다면 빈틈없는 유다 학자 72명이 외경들을 — 심지어 그것들
이 쓰이기도 전에 — 자기들의 작품 속에 첨가했다는 의미가 될 것
입니다!!!⁶⁾ 그러나 만일 유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는 오리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러한 위조된 글들을 제멋
대로 첨가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계 22:18). 이렇게 조금만 주의해
서 살펴보면 『헥사플라』의 다섯 번째 난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오리겐의 사역본(私譯本)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유세비우스(Eusebius)와 필로
(Philo), 이 두 사람이 그리스어 모세 오경(Greek Pentateuch)을 예
로 들면서 이처럼 전설 같은 책의 존재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들
마저도 그것을 구약성경 전체나 혹은 공식적으로 수용된 어떤 역
본으로 언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엔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

6) 유대교는 한 번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이것들을 인정함.

역한 필사본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긴 합니다. 하나의 작은 파편에 불과한 『라일랜드의 파피루스 458번』(Ryland's Papyrus, #458)인데 이것은 주전 1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명기 23-28장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서진 채 발견된 이 파편들의 존재로 인해 유세비우스와 필로는 “모세오경 전체가 어떤 서기관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그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망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파편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으로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전 250년경 그 번역 작업을 위해 선발된 72명의 유다 학자들은 주전 150년에는 실력 없는 미숙한 학자들로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70인역』이 번역된 지 100년 후에는 쓸모없게 되어 다시 새로운 역본이 나와야만 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오리겐의 『헉사플라』, 『라일랜드의 파피루스 458번』 그리고 ‘유세비우스와 필로의 주장’ 등은 변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모순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자체에서 발견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편지가 아리스테아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썼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아예 어떤 이들은 그 편지의 저자가 사실 필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그 편지의 저작 연대가 ‘기원 전’이 아니라 사실은 ‘기원 후’라는 것을 뜻하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편지를 쓰게 된 속셈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리겐의 헉사플라 다섯 번째 난을 『70인역』의 복사본으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용의 주도한 계획은 외견상으로 볼 때 확실히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아리스테아스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는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첫 번째 난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학자 6명씩을 선발하기 위해 어떻게 그가 열두 지파의 위치를 알아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의 전쟁 패배와 포로생활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12지파의 경계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구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그가 12지파를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72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그런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을 취급하는 공식 책임자가 신명기 17장 18절, 31장 24-26절과 말라기 2장 7절에서 입증되듯이 레위 지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11지파의 어느 지파도 감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들이 그들 주위의 이방 민족들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안식일 성수, 깨끗케 하는 세세한 율법 조항들과 고유의 여러 가지 법들을 고유한 전통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계승하는 일에 열심을 낸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자기들을 구별하고자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중국이나 인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외에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이디오피아의 팔라샤 유대인들(Falasha Jews)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유대인

들의 언어를 이어받았다는 증거로 히브리어를 간직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 나라의 여타 부족들과 구별되고 있습니다.⁷⁾

여러분은 “유대인들 즉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민족이 자기들의 유산인 히브리어를 버리면서까지 지극히 거룩한 재산인 성경을 이방인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기꺼이 번역하려 했다.”는 학자들의 이러한 모순된 이야기를 믿을 만큼 순진하십니까? 그런 가정은 지극히 불합리하며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구약 인용 구절들이 『70인역』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70인역』이란 바로 오리겐의 『헵사플라』의 다섯 번째 난을 가리킬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인용 구절들은 절대로 『70인역』 혹은 『헵사플라』에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성경 인용 구절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구약으로부터 자유롭

7) 유대교를 믿는 이디오피아 사람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의 베타 이스라엘(Beta Israel)이라고 부르며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아들인 메넬릭 1세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조상은 서력기원을 전후해서 아라비아 남부에 살던 유대교도들에 의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디오피아의 아가우족인 것으로 보인다. 팔라샤인은 4세기경 이디오피아의 강력한 악숨 왕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뒤에도 유대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디오피아 북부의 타나 호 주변지역으로 밀려났다. 15~16세기에 이디오피아의 그리스도교도들을 몰살하려는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라샤인들은 17세기까지 부분적으로 독립을 유지했으나 결국 수세니오스 황제에 의해 독립은 분쇄되고 토지마저 빼앗겼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생활조건이 개선되어 당시에는 2만여 명의 팔라샤인이 타나 호 북쪽에 거주했다. 현재 남자들은 대장일과 직물 짜기를 하며,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경작한다. 여자들은 도기기술로 이름이 높다. 팔라샤인은 고대 이디오피아어인 게에즈어로 쓰인 경전과 기도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탈무드」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유대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마을 사제(코하님)의 집전에 따라 예배를 올린다. 그밖에도 유대의 여러 금식계명을 준수하고, 유대 책력인 니산(Nisan) 14일에 제물을 봉헌하며, 중요한 유대 축제를 지키고 있다.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이스라엘 정부는 비밀리에 1만명 이상의 팔라샤인을 가뭄이 닥친 고국에서 공수하여 이스라엘 정착지로 이주시켰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분께서 누군가 꾸며낸 『70인역』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의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 학자들은 『70인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박할 수 없는 이러한 진실에 대항하면서 이 거짓된 『70인역』의 존재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대답은 슬프지만 단순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도 수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학문 연구 수단으로 충분히 정통하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와 비교할 때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의 공식 역본이 존재했다면 성경 비평가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되고 단번에 성경비평학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세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 알պ한 근거를 토대로 『70인역』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은 단지 교만과 탐욕에 기초를 둔 행위일 뿐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비평가들은 『70인역』 같은 위조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총애하는 『70인역』이 히브리어 본문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역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역본도 원어와 같은 권위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이유로 그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학자들의 일구이언을 통해 우리는 ‘원어들을 학습한 적

이 없는 사람들’ 즉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위에서 자신들의 학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교만한 학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 아이들

Q 『킹제임스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면 나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A 이 말은 성경 신자들의 믿음을 비꼬아서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려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다음번 질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성도 누가가 사용했을 단 하나의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었음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E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란 물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신자에게 썼던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는 초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필인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확실히 그는 주님에 관한 기사에 가장 정통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누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저 악명 높은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신미국표준역』(NASV)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먼저 쓴 이전 보고서’가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전모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초 행적은 누가복음 2장 41-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그분의 모친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되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뒤처져 남아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⁸⁾ 이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기사는 24장 5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절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라는 말씀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심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이 같은 기사들을 삭제한 그리스어 필사본들은 그 기록 연대와 관계없이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슬레의 그리스어 본문 제23판’에는 ‘Kai anepheroto eis ton huranon’라는 구절 즉 그분께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누가복음 24장 51절 구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경비평학자들의 놀이 기구인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의 주석은 이 구절을 삭제해 버린 근거가 다른 아닌 ‘시내 사본’, ‘D 사본’, ‘52번으로 알려진 하나의 대문자 사본’과 5세기경 산물

8) 그리스도께서 서른 살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위해 사신 공적인 생애(마 3:16; 막 1:9; 요 1:29-34)

로 추정되는 단 한 개의 ‘팔림섹트’⁹⁾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구절은 B, C, E, F, G, H, L, S, T, V, Y, Z, Delta, Theta, Psi 사본들과 파피루스 75와 Omega 사본 그리고 대부분의 잔존하는 증거들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그런데도 단 두 개의 사본 즉 저 악명 높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해서 베일에 가려진 로크맨 재단¹⁰⁾은 『신미국표준역』(NASV)에서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NASV는 실로 믿을만한 번역이 못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 가운데 자칭 ‘보수주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하는 NASV만이 유일하게 ‘자유주의’ 학자들의 『개역표준역』(RSV)과 더불어 그 구절을 삭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RSV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유주의자들과 NASV를 지지하는 신근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데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신미국표준역』과 『킹제임스 성경』을 검토해 볼 수만 있다면 필경 『신미국표준역』은 거짓임을 선언하고 즉시 『킹제임스 성경』만을 신뢰할 만한 성경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누가가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한 이상 저도 인정할 것입니다.

9) 이미 기록된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쓴 사본(Palimpsest)

10) Lockman Foundation은 NASV를 펴내는 익명의 재단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러크맨(Peter Ruckman)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

Q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로 쓰인 부분이 역자들에게 의해 첨가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말로 삭제해야만 합니까?

A 우리가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 부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삭제해야 한다면 그것들 모두를 삭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 모두를 성경 기록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E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탤릭체들을 삭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어떤 글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 언어의 문장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단어들을 보충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자기들이 보충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보기 1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23편 1절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The

LORD is my shephe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있는 'is' 는 역자들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보충한 것입니다.

『신국제역』(NIV)의 시편 23편 1절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The LORD is my shepherd.)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번역자들이 똑같이 문장을 완성하려고 같은 단어를 보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보충되었음을 알려 주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던 것입니다.

보기 2

『킹제임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He was not that Light, but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로 되어 있습니다.

『뉴킹제임스역』(NKJV)의 요한복음 1장 8절도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He was not that Light, but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at Light.)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양편의 번역자들은 뜻을 통하게 하려고 자기들의 번역에 ‘was sent’ 라는 구를 보충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그 보충 부분을 명시해서 이탤릭체로 기록한 쪽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현대의 ‘자칭’ 학자라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속임수 혹은 부정직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이 보충한 부분을 이탤릭체로 넣은 정직성과 도덕성으로 인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 성경비평학자들은 — 근본주의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 이탤릭체로 쓰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나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개 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unknown’(알지

못하는) 같은 단어가 있는 구절을 보면 난처해합니다.¹¹⁾ 그들은 이런 구절의 이탤릭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위와 같은 말을 내뱉으면서 문제의 단어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이탤릭체 단어가 본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단지 그 이탤릭체 단어만을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탤릭체 단어 모두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탤릭체 단어가 모두 삭제된다면 뜻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탤릭체는 삭제하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 (Divine inspiration) 즉 어떤 단어들은 없애고 어떤 단어들은 남겨야만 하는지를 알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나 구령자 혹은 학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들을 거부해야 하고 또 어떤 단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보고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의견을 숭배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숭배해야 하지요?

사실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영감을 받아 공인 성경 교정자’ (Official Divinely Inspired Bible Corrector)가 되려고 수백 명의 성경비평학자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행운의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의 선언에 한 마디 불평 없이 따를 것이라고 순진하게

11)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행했던 방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였으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라고 기록한 것임

생각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쨌든 그의 선언이 없다면 어떤 이텔릭체들이 성경에 속하고 또 어떤 것들이 빠져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극복하기 위해 골칫덩이 단어들을 조심성 없이 제거해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성경 읽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은 이텔릭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을 옹호해 주는 전형적인 예들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the staff of whose spear was like a weaver's beam.

여기에서 만일 이텔릭체인 'the brother'를 생략해 버린다면 성경은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기하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텔릭체를 제거함으로써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으쭉대며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즐겨 말하게 될 그런 성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성경 교정자’는 아마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의 이텔릭체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떤 단어를 삭제하고 또 어떤 단어를 보존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안단 말입니까?

4.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보존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단어들을 손대지 말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먼저 성경 —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지요 — 을 집어 시편 16편 8절을 읽어 보십시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moved.

아마도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분께서 계시다.”(*he is*)라는 두 낱말이 이탤릭체라는 사실을 금방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For David speaketh concerning him, I foresaw the Lord always before my face, for he is on my right hand, that I should not be moved.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 이탤릭 부분과 나머지 부분 전체를 다 인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시편 16편 6절의 이탤릭체 ‘*he is*’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이탤릭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탤릭체를 그대로 두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베드로는 신학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학

문 없고 무식한 사람(행 4:13)이었기에 맹목적으로 성경(『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신약성경의 또 다른 저자였던 바울은 종종 자기의 글 속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직접 히브리어 본문에서 인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용 구절들 중에 몇몇은 히브리어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But Esaias is very bold, and saith, I was found of them that sought me not; I was made manifest unto them that asked not after me

한편 이사야 65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

I am sought of them that asked not for me; I am found of *them that* sought me not: ...

바울이 이사야서 6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인용했던 ‘자들에게’ (them that)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탤릭체로 존재합니다. ‘are’ 라는 단어를 번역자들이 보충한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20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시 94:11).

The LORD knoweth the thoughts of man, that they are vanity.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고전 3:20)

And again, The Lord knoweth the thoughts of the wise, that they are vanity.

그런데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고전 9:9)

For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ou shalt not muzzle the mouth of the ox that treadeth out the corn. Doth God take care of oxen?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신 25:4)

Thou shalt not muzzle the ox when he treadeth out *the corn*.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지 『흠정역 성경』에서만 이탤릭체로 발견되는 ‘the corn’이란 단어를 마치 히브리어 원문에 있었던 것 같이 인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라 추정되는 가상적인 『70인역』을 인용했다고 감히 누가 주장한다면 우리의 딜레마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일 그런 그리스어 역본이 존재했다면(역사 문헌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떤 권위로 번역자들이 이 단어들을 삽입할 수 있었던 말인가?

둘째, 만약 그것들이 번역자들에 의해 첨가된 것이라면 바울의 인용 자체가 그것들이 영감으로 된 것임을 확증해 준단 말인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시는 동안 저는 예수님께서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이는 성경으로부터 구약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자필 원본에 들어 있지 않은 단어를 인용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다음의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And he humbled thee, and suffered thee to hunger, and fed thee with manna, which thou knewest not, neither did thy fathers know; that he might make thee know that man doth not live by bread only,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doth man live.

여러분은 이탤릭체로 된 ‘word’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있지 않다는 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신명기 8장 3절을 검토해 보아도 ‘word’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dabar’ 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God.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탤릭체로 표시한 단어를 포함한 구절 전체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아마추어 학자라도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 ‘wor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 ‘rama’의 한 형태인 ‘ramati’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비평학자들이 “글쎄 『킹제임스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다면 나도 인정하지요.”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진정한 성경신자라면 “물론이지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이상 저도 당연히 인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성경의 이탤릭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 그것들 모두를 삭제해라.
2. 근본주의 성경 비평가들 중 한 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공인 성경 교정자’로 임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다 그에게 주어라.
3. 우리의 거룩하게 영감 받은 성경에만 있는 모든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라.

이제 우리는 이 셋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Q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중에 다른 역본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나요?

A 있었습니다만 그들도 모두 완전한 성경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E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성경이 완전하다는 생각을 경멸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는 평을 듣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정정하면서 성경의 절대 무오성을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소위 『킹제임스 성경』의 ‘실수들’이란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크리스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틀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기관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왕하 17:23). 아시리아 왕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켰습니다(왕하 17:24).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

위하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는 사자들(lions)을 그들 가운데 보내 사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25절). 그 결과 그들은 유대 제사장들을 불러 ‘그 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자기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왕하 17:26-28).

그 결과는 32절과 41절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왕하 17:3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의 근본주의 목회자들과 대학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근본주의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으면서도 감히 믿지 않는다고 시인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강단에 서서 성경을 들고 허공에 대고 외칩니다. “이 책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그러나 강단을 내려서면 그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면서’ 성경에서 실수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개인적으로 지적하며 자기들이 막 강단에서 말했던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강단에 서서 성경의 완전성을 믿노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누군가가 자기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경우 자기들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여러분과 저는 그들이 강단에 서서 “저는 이 책이 불완전하게 번역되었고 실수가 잦다고 믿으며 이 지구 상에는 완전한 역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한다면 곧 ‘끝장날’ 것임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lions)은 그들을 완전한 성경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인정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크리스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들도 “우리 학교에 오면 완전한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파괴될 것이며 성경이 오류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자기들의 캠퍼스 정문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 확신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학교를 선전할 정도로만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일단 들어온 후에는 즉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자신을 의탁한 후에는 그들은 완전한 성경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교묘히 파괴시키고 “오래되고 좋은 유익한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로 가득 찼다.”라고 그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겁이 나서 ‘그 땅의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책인 『킹제임스 성경』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며 실로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Q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참 성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A 그 이전에는 안디옥 계열 필사본들에 속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E 성경의 완전성을 공격하는 비평학자들은 이 질문이 성경 신자들을 ‘어리병병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사 이래 현존하는 성경 사본들의 절대 다수는 줄곧 안디옥에서 발견된 본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 형태 즉 원래의 그리스어 사본 혹은 주후 150년경의 『구 라틴 별게이트』(Old Latin Vulgate) — 개악된 『제롬의 별게이트』(Jerome's Latin Vulgate)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 혹은 주후 157년경에 번역된 시리아의 페시타 역본(Peshetta) 등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일반인들의 손에 쥐여 준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료들을 한데 모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자신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나요?

A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이 영감을 받을 수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들은 논쟁의 여지없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으며 자기들이 수행할 일에 대해서도 탁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도 방대한 지식에 의해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한 달간의 휴가 기간을 사용하여 외국어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했으며, 어떤 이는 페르시아어 사전을 편찬했고, 어떤 이는 전문가를 위한 수리 측정자를 고안해냈으며, 어떤 이는 건축가였고, 어떤 이는 동양 언어들에 정통했으며, 어떤 이는 그리스어로 공개 토론을 했고, 어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그리스어와 수학을 가르쳤으며, 또 어떤 이는 ‘히브리어를 마스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뇌의 지식이 열정 어린 경건한 마음과 융화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온갖 학위를 자랑하면서도 실생활과 개인 전도에 실패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학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변론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회심시키는 구령의 열정으로 유명한 복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가정의 경건 생활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복음 전도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선교 사절단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백삼 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생애 말년에 두 시간을 가득 채워 설교를 한 후 회중을 향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라고 말하자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제발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외쳤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세히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 모두는 인간미 넘치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헌사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국내외에서 교황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지와 암흑 속에 가두어 두기 원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는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만에 차서 자기들의 길만을 고집하는 형제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틀을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는 진리와 선한 양심의 순결함을 힘입어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서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한 길들로 걸으며 평안히 거할 것이며 또 외적으로는 폐하의 은혜와 은총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 뛰어난 인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런 주장은 자만심 가득한 마음의 증거로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크게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끝마친 일 즉 성경 번역에 대한 완전성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역 위원들의 일을 통제하실 수 없었으며 또 통제하시지도 않으셨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 역시 믿음과 실행에 관한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지 아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 질문을 받았습니다(요 1:21). 그때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7-14절과 17장 10-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오히려 한 엘리야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한데 요한은 엘리야였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하여 사람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으나 그 자신은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Q 오늘날의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보다 더 나은 번역 능력을 구비하지 않았을까요?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학식과 인품은 현대 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E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의 학식은 글자 그대로 오늘날의 학자들이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유용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출판사의 맥클루어(Alexander McClure)가 쓴 『부활한 번역자들』(*Translators Revived*)과 베이커 북하우스(Baker Book House)의 페인(Gustavus Paine)이 쓴 『킹제임스 역본 배후에 있는 사람들』(*The Men Behind the King James Version*) 등이 그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들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갖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바로 앞 질문의 답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학자들이 『흠정역 성경』의 학자들과 동등하다거나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어리석

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이 타락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열역학 제2 법칙에 의해 도덕성도 1611년 이래로 계속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숨 쉬는 공기마저도 악화되고 있는데 교육만큼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런 동화 혹은 신화를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체제와 함께 교육도 타락해 왔으므로 지금 이 시간에 400년 전의 걸출한 학자들에 필적할 만한 학자들을 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를 놓은 틴데일의 처형 모습

Q 제임스 왕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용하도록 자신이 번역을 위임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인가해 주었습니까?

A 아닙니다. 그가 번역 자체는 인가했으나 번역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가한 적이 없습니다.

E 20세기의 사람이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400년 전의 상황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통상 자기 나라말로 된 성경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고 성경 이외에도 성구사전이나 다양한 주석 그리고 갖가지 ‘크리스천’ 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와 17세기 초의 세계는 지금과 판이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일반인들에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교회 제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1536년에 틴데일(William Tyndale)은 평민의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임스 왕이 영어 성경 번역을 위해 1603년에 54명의 번역자를 발탁했을 때 그는 곧 출간될 그 역본을 교회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이 사실상 교회들 위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용도는 단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 용도는 다른 아닌 평민들에게 그 성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 제임스 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교회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번역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그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번역 되었습니까?

A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부터 평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E 성경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런 논쟁에서 간과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 하는 첫째가는 이유가 다름 아닌 평민을 위해 성경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민들이 없었다면 성경이 굳이 평민의 언어로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 이 경우에는 여하한 종교단체라도 포함하여 — 는 항상 성경을 접해 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성경을 갖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성직 계급자들의 자존심만 커졌고 또 성경 자체가 양떼들을 ‘주관하기’ 위한 용도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말 등에 거지를 태우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을 때 평민들의 반응을 매우 잘 묘사한 말입니다.

평민은 세계를 움직이는 —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 힘입니다.

평민은 군대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의 필요를 충원하는데 필수적 존재입니다. 그는 소비자인데 사실 소비자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식료품점이나 주유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가에 거의 관심이 없이 그저 정부의 말에 고분고분 따릅니다. 그의 에너지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부의 권력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록 통치할 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를 하도록 허락은 받지만 그 자신은 정부 체제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교회 생활 영역에서도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교회 목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인생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그가 알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수 세기 동안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은 역시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카톨릭 교도와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 대한 무지 속에 감금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사제들로부터 “평신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인 하나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의 신부(神父)가 그에게 얼마나 크게 노할 것인지 여러분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과의 전쟁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1.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그들을 무지 속에 감금해 두라.
2. 하나님의 성경을 카톨릭 성경들 중 하나로 대체시켜라.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째, 평민(평신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나 사제의 개인적 해석에 복종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쓰일 수 없는 비카톨릭 국가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정착시킨 후 물리적으로 성경의 모든 사본을 몰수해서 파괴해 버립니다. 반대자들은 물론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 세기 동안 대단히 성공리에 이 방법으로 평민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왔습니다.

성경을 제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른 성경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든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참된 성경을 몰수함으로써 생긴 공간을 메우기 위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역사상 이 방법은 여러 차례 수행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기 150년경에 안디옥에서 번역된 『구 라틴 벌게이트』—그냥 『벌게이트』(Vulgate)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공통의’, ‘평민의’라는 의미의 라틴어 ‘vulgar’에서 나온 말임—의 인기와 위협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변개된 사본으로부터 번역한 자신들의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작업은 이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로마 카톨릭 학자 제롬에게 억지로 떠맡겨졌으며 신속하고도 파렴치하게 『라틴 벌게이트』와 똑같은 『벌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주후 38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무가치한 책은 근 800년 동안 참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원래의 바른 성경인 『구 라틴 벌게이트』를 다 불태워 버림으로 ‘자기들의 경쟁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물론 『구 라틴어 성경』을 제거한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권을 휘두르던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날 주후 150년경에 만들어진 『구 라틴 벌게이트』에 대한 좋은 평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주후 380년에 만들어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 벌게이트』 즉 제롬이 개조한 것

인 줄 착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현대 영어 역본들 — 한국의 대부분의 성경들도 — 도 이같이 변개된 로마 카톨릭 필사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성경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임스 왕은, 그가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던지 간에,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이 된 ‘영어로 된 참 성경’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82년 프랑스의 랭스(Rheims)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항할 자기를 자신의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왕과 그의 번역 위원회는 자신들의 번역이 영국을 벗어나서 세상 끝까지 가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성경이 전 세계를 휩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완전한 성경을 빼앗길 심상치 않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물리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로마 카톨릭 사본에서 번역한 성경들로 대체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거의 지난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힘도 없고 가치도 없으나 참 성경을 대체시키는 일에는 적격입니다.

슬프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많은 구원받은 근본주의 성경교사들과 목회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정정’할 수 있다는 권위의식 즉 로마 카톨릭 교황과 같은 권위의식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변화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진압 단계’로서 그 희생자는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수많은 선전으로 인해 완전한 참 성경을 받아들일 경우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방법 때문에 비록 자기 손에 바른

성경을 소유했을지라도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참된 성경이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직 자기의 성경을 물리적으로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두뇌로부터는 이미 도둑맞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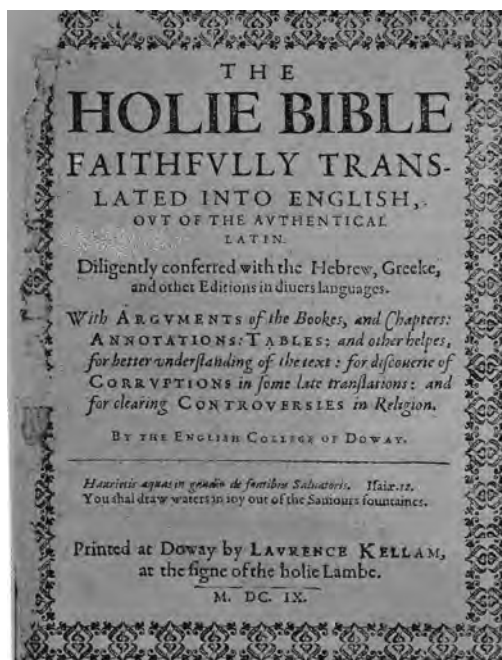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세뇌 단계’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 성경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천 매체들’에 의해 수행됩니다.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낭송’, 매일의 암송구절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2장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까지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참 성경을 빼앗는 일입니다.

참 성경을 버린 수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역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종종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행 4:13) 교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 교인은 새 역본에 대한 목회자의 판매 전술을 이론적으로 논박하진 못해도 “도대체 그것은 성경 같지가 않군요!”라는 말로 목사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젠 라디오나 TV 혹은 신학교에서조차 끊임없이 다른 역본 성경들만을 들려줌으로써 젊은 크리스천 세대들은 ‘참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잠재적으로나마 아는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발견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체주의 영’(Totalitarian spirit) 즉 사탄의 진정한 적은 단지 성경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민들의 손에 쥐어진 성경과 평민들 그 자체입니다. 사실 평민들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혐오하며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서 성경을 도둑맞았습니까? 여러분의 두뇌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두에랭스 성경은 카톨릭 교인들을 위한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씨'를 '여자'로 바꾸어서 마리아가 인류를 구속하는 것으로 만들

Q “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A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 그 완전성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 성경은 어떠한 죄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상 오류가 없고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영생을 주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서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역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을 사용하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므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가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란 책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 역본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오류들 중 하나도 정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리빙 바이블』(*Living Bible*)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순간 『리빙 바이블』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성경은 완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리빙 바이블』을 통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완전해졌다면 그가 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게 되면 그 완전함을 잃게 되는 걸까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어떤 성경을 사용했느냐에 관계없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72년 성 바돌로뮤 날에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인 위그노들을 카톨릭 교도들이 학살하는 장면

Q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마도 분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교회들 뿐일 것입니다.

E 때때로 오해로 인해 잘못된 고발이 생기곤 합니다.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불합리한 논리는 불행히도 전적으로 악의에 찬 거짓말에 근거한 것입니다. 슬프게도 교회 분열의 충격적 경험을 겪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의 분열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분열은 돈 문제로부터 새 강대상에 어떤 색을 칠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실상은 크리스천들이 슬프게도 로마서 14장과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열은 『킹제임스 성경』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려 드는 것은 전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름을 들어가면서
남을 헐뜯는 ‘험담가들’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사람
들 중에 유별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입니다.

E 최근 몇 년간 완전한 성경에 대한 논의가 피터 러크맨 박
사(Dr. Peter S. Ruckman)에 의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러
크맨 박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성경 교사이자 목회자이며 안디옥
사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믿는 분입니다. 그는 성경의 완
전성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보는 분입니다.

러크맨 박사의 스타일은 성경의 권위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없으므로 성경비평학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매우 단호합니
다. 반면에 대부분의 성경 논의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법은 은혜의
방법인데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족합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단 하나의 논의를 대할 때 그의 접근 방법은
사도 바울(고후 10:10)이나 위대한 영국의 성경학자 버건(John
William Burgon)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러크맨 박사와 같은 학자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완전
한 성경을 주장하고 지지하던 소수의 무리들은 우선 『킹제임스 성

경』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그의 신랄한 스타일을 닮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¹²⁾ 그러나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렉크맨 박사의 스타일이 자기들의 본래 스타일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렉크맨 박사의 스타일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 장면

12) 국내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 큰 골칫거리입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채, 비이성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해가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귀의 일을 합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송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송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원본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닐까요?

A 그들은 결코 성경책을 송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아니오.”입니다.

E 최근 몇 년간 완전한 성경을 비평해 온 비평학자들은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항하기 위한 자기들의 모든 논의가 역사적 사실에 의해 체계적으로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학자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변함없이 복 주신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성경 신자들을 ‘비방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성경책을 송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책에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구원한다.”라고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에다 마크를 하기도 하고 참조가 되는 주석이나 짤막한 글을

적어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숭배한다는 그릇된 오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누명은 불행히도 정직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필 원본을 파괴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자필 원본의 유일한 가치는 그 안의 말씀들(단어들)이었기에 그분께서는 그 원본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그 말씀들(단어들)은 곧장 사본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자필 원본은 그 목적을 수행하자마자 곧 필사되었으며 하나님이나 그분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본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자필 원본이 어떻게 해서 ‘기적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성경 신자들은 그것에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마도 원본에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비평학자들일 것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E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로 누명을 씌우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비평학자들의 좌절감과 악의에서 파생된 동일한 결과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자연히 이들의 비난은 인신공격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단 종파가 두 가지의 명백하고도 중요한 특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단 종파를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 종파의 특성은 모든 신도들에게 결정 사항을 지시하는 중앙 본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매우 독립적이며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성경 외에 여타의 교리들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중앙 권위는 오로지 성경뿐이며 결코 어떤 특정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단 종파는 자기들의 신도들이 반대편 신

양을 연구하여 그것으로 개종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재료나 책들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만듭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진실과 사실들이 『흠정역 성경』의 편이기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평 연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책도 성경비평학자들의 모든 비난에 정정당당히 맞서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 여러 신학대학과 종합대학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모든 책을 제거하기 위해 중합/연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 사실 이 책도 언젠가는 그들의 목록에 오르겠지요.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누가 ‘이단 종파’ 이고 누가 아닌가를 보여 주는 깜짝 놀랄 만한 증거입니다.

13) 이런 일은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타 『킹제임스 성경』 관련 책들을 금서 목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신학교들이 자기들의 선조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을 막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들이 얼마나 『킹제임스 성경』을 무서워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이 흠탕물을 튀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성경으로 믿는 것은 ‘이단’ 이 아닙니까?

A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완전한 성경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E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은 재미있긴 하지만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이단’(Heresy)이란 ‘진리 혹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신앙에 반하는 교리나 견해’를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학자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믿

는’ 절대 무오한 성경책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절대 무오한 성경은 지구 상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단’ 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 이라는 딱지는 응답가들의 느낌을 정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젊은 신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이 절대 무오한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성경비평학자들의 의도는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단’ 의 딱지가 붙으리라는 두려움을 줌으로써 성경비평학자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비평학자들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모든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정말로 이단일까요?

Q '전통 공인 본문'의 수호자로 알려진 딘 버건은 어떤 인물입니까?

A 그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성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대편에 속한 학자들을 꿈쩍 못 하게 만든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E 버건(John William Burgon, 주후 1813-1888)은 학문에 있어서 앤드류스(Lancelot Andrews, 주후 1555-1626)와 월슨(Robert Dick Wilson, 주후 1856-1930) 같은 탁월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치체스터 대학의 학장(Dean)으로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 이후로 보통 '딘 버건'(Dean Burgon)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버건 박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하여 『영어개역성경』(Revised Version)을 펴낸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Hort)와 동시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의 지지자였고 그것을 반대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무기력한 논의를 과감하게 응징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와는 달리 그는 이론이라는 모래 위보다는 사실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서 얻은 모든 결론을 믿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돌맹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진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한 학자였으며 재치 있는 위트와 신랄한 혀로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다른 모든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을 전쟁터에서 몰아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대한 반대 논의, 마가복음의 마지막 12절 (16:9-20), 기타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문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의 반박 논문들은 현대 학자들이 그와 동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반박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힐스(Hills), 풀러(Fuller) 그리고 러크맨(Ruckman) 등과 같이 『킹제임스 성경』 옹호자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흠정역 성경』을 대변하는 무적의 용사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의 작품들은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진정한 학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줍니다.



메이플라우어호를 타고 신세계에 내린
이주민들은 성경을 헌법으로 정하고 미국을 건설함

Q ‘공인 본문 주의자’(TR 주의자)와 ‘킹제임스 성경 주의자’는 어떻게릅니까?

A ‘공인 본문 주의자’는 안디옥으로부터 필사본을, 이집트로부터 철학을 따온 사람입니다.

E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관한 연구(질문 8)에서 이 지역들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역성을 통해 우리는 필사본들을 유도해냈고 그런 필사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도출해 냈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오리젠의 비평의 손길에 의해 더럽혀진 ‘변개된 사본들’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성경은 기록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며 실수가 있다.’는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얻습니다.

한편 안디옥으로부터 우리는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으로 승화되어 최고조에 이른 순수한 사본들의 노선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성경은 기록할 뿐 아니라 완전하며 실수가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얻습니다.

1. 대부분의 성경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알렉산드리아의 이데올로기). 또한 그들은 대개 안디옥 사본

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2. 『킹제임스 성경』 신자는 안디옥의 사본들 혹은 ‘공인 본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절대 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 어떠한 실수나 오역도 없으므로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는 안디옥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입니다.

3. ‘TR 주의자’ 또한 안디옥 사본들이나 ‘공인 본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TR 주의자’는 안디옥 사본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이데올로기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역본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역본이지만 그것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사도행전 12장 4절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오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가당착은 부정직하고 좋지 못한 마음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릇된 교육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TR 주의자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중에 받아들이도록 속임을 당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아래 편지는 역자가 과거 미국의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의 도너반 목사에게 공인 본문주의와 킹제임스 성경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을 때 받은 답변 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

형제님께 !

저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TR)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를 묻는 형제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펜사콜라 성경침례교회(피터 렉크먼 목사 시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TR주의’를 따르지 않는데 본 편지에서는 그중 몇 가지 이유만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이 분명하게 입증되면서 TR을 표준으로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타협적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입장은 최종 권위의 문제를 성경이 아닌 사람에게 두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TR 주의’를 취한다면 그는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본문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역본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강조점과 최종 권위를 그 특정한 그리스어 본문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TR 안에 있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할지 결정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어 ‘하데스’(Hades)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쓰였는데 KJB에서는 그중 10번이 ‘지옥’(Hell)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무덤’(Grave)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KJB이 최종 권위라는 사실과 KJB이 이미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야만 하는가를 결론지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TR 주의자라면 그는 ‘하데스’를 자기 마음대로 번역할 것입니다. 즉 그 사람 자신이 성경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KJB 역자들이 올바른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업 속에서 그것 외에도 라틴어역, 시리아어, 기존의 영어역 등도 사용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러 종류의 TR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 모은다면 그것들이 1611년 이후에 재쇄된 『킹제임스 성경』들의 차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어 절충 본문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TR'을 완전한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신약 성경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TR'은 여러 종류의 그리스어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핫지스(Hodges), 버건(Burgon)과 같은 사람들은 TR 주의를 취하지만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주의를 취합니다. 앞으로 영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TR 등으로부터 나오게 될 한국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들의 작업 속에서는 행했던 것과 비슷하게 되리라 생각되며 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TR과 KJB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려 합니다.

1994년 4월 7일 미국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
브라이언 도너반(Brian Donovan)



말을 타고 산간벽지를 누비며 성경 말씀을 선포한 순례
전도자(Circuit rider)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됨

Q 신학 교육이 작금의 성경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A 아닙니다. 거의 틀림없이 — 99%의 확률 — 신학 교육은 한 학생이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파괴시킬 것입니다.

E 신학 교육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학생은 사역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등에 대해 매우 귀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에 약한 학생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의 우정과 경험들은 종종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을 주셨다.’라는 믿음은 종종 신학 교육으로 인한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런 교육으로 인한 희생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알렉산드리아식 교육을 받아 그 희생자가 된 선량한 사람들이 교수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확한 사본 계열에 대해서는 옳게 판단을 했지만 알렉산드리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의식중에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수중에 있는 단 한 권의 성경이 정말로 완전하다는 믿음을 결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종종 『킹제임스 성경』만 혹은 ‘공인 본문’만 가르친다고 선전하는 신학교들조차도 여전히 이러한 만성병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신학교에서 아 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성경을 자주 정정해야만 한다는 모순되는 소리를 들으며 혼돈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빈번하게 그는 그 통렬한 비난의 말에 굴복하고는 자기 스스로 성경의 완전성을 비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학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개 그는 ‘광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배척 받거나 심지어는 퇴학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교육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육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학생의 믿음을 거의 강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강력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 영적 대각성을 이룸(빌리 선데이의 설교 모습)

Q 다른 역본들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A 혹자는 ‘하나의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E 마가복음 9장 38-41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로부터 사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잘못된 인도로 된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할지 모르지만 다만 무지해서 혹은 속아서 잘못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릇된 성경을 사용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성경 문제에 직면해서 시비를 가리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며 그들은 다른 성경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성경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대개 그만 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 자기들의 ‘출신 신학교’ (Alma-Mater)가 틀렸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한 설교자가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제 출신 신학교가 그 입장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 서서 자신들의 명성에 미칠 손해를 먼저 저울질해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을 지지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대학 교수로서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신학교에서 안디옥 입장을 취했을 때 경험할지도 모를 재정적인 손해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대개 이 같은 경멸은 지적인 확신보다는 방어 수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이 자기가 단순히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그의 인생에서 성경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학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를 가지신 분(마 7:29)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싫어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존된 것인가요?

A 자필 원본들은 물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자필 원본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E 성경의 ‘영감’ (Inspiration)과 ‘보존’ (Preservation)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백지 한 장에 자신의 말씀을 적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행동 모두 거룩하며 시편 12편 6,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6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본이 완전함을 우리

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살인(모세와 다윗), 간음(다윗), 우상숭배(솔로몬) 그리고 주를 부인한 것(베드로) 등과 같은 가중한 죄들로 인해 잘못을 범하기 쉬운 사람들에 의해 쓰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자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원본 전부가 영감을 받아 완전하다는 것은 오늘날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단지 자필 원본만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는 사본들 혹은 사본들의 역본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역본’을 원본의 완전한 사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개합니다. 그들은 사본들과 역본들은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산물이며 따라서 모두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신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죄인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으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죄인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모순되고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말씀에 완전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들을 완전하게 보존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2. 왜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 완전한 자필 원본들을 만드시

고는 얼마 지난 뒤 그것들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기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완전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았으며 들었으며 만졌습니다(요일 1:1).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 완전한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거의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필 원본을 보존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것에 영감을 주셨겠습니까? 혹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성경 안에 여러 군데의 잘못된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에도 그런 실수들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본들에 실수가 생기는 것을 막으실 수 없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 같은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저것은 하실 수 없는 반쪽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 이런 것은 검증될 수 없는 ‘임기 응변식’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실된 원본들을 완전하다고 믿는 편이 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얄팍한 이유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리다고 증명하기에 필요한 증거물 즉 원본이 상실되었으므로 결코 아무도 자기들이 틀리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오늘날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성경도 원본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자기들이 그런 믿음을 수호하다가 결국 피투성이가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원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입니

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영어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완전한 원본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4. 완전한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교리를 대적하려는 그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몸소 대답하실(행 1:8) 만큼이나 성경에 의해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7절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 ever!

따라서 우리는 친히 영감을 주셨던 완전한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보존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자께서는 실로 그것이 별로 큰 어려운 일이 못 됩니다.

이런 논제에 겁을 먹은 근본주의자들은 시편 12편 7절에서 발견되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두 가지 공격을 가합니다.

(1) 그들은 '7절의 그것들(they)은 말씀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시편 12편 7절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역본들을 부리나케 출간합니다. 『신국제역』(NIV)에서 이 구절을 봅시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사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리이다.

O LORD, you will keep us safe and protect us from such people forever.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로 번역된 ‘to keep’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shamar’인데 『신국제역』(NIV) 번역자들은 2인칭 단수 미래로 나타나 있는 “thou shalt keep them”을 “you will keep us”로 번역했으며 3인칭 복수인 ‘them’을 1인칭 복수 ‘us’로 번역해 버렸으니 이것이 야말로 오역의 본보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본의 본문을 정확하게 보존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신국제역』(NIV)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임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편 7절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약속 즉 유대인들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직접적인 언급은 시편 12편 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 종종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시편 12편 6-7절을 문자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경건하게 시편 119편 89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For ever, O LORD,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완전한 성경을 보존하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밀짚 더미 속에 숨어 버리는 모습이란 웃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을 하늘로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서 영감을 통해 완전한 원본을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분께서 원본을 쓰신 이유가 하늘로 가져가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낼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신 후에 그들이 그러한 완전한 성경으로 인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늘나라 도서관에 그것을 보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만일 그 완전한 책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하늘나라에 감금되어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시편 12편 6절은 땅에 있는 그분의 말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것은 전혀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본에 완전하게 영감을 주셨고 수 세기가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말씀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들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Q 번역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역에도 여러 차례 영감을 주셨습니다.

E 창세기 42-45장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구사한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집트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2장 23절에서 보듯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창 42:23)

어떤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 ‘한 낱말 한 낱말 완벽하게’ 축자적으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요셉이 이집트어로 말했던 그 내용이 구약 필사본에 기록될 때는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었다.’는 것과 ‘그 번역이 단어 대 단어의 완전한 일대일 대응의 축자적 번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습니까? 이집트어로 말했던 요셉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번역을 한 이집트 사람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

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보는 대로 모세가 기록했던 번역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감을 주셨다면 요셉의 ‘원래 진술’은 그의 이집트 사람 통역관에 의해 혹은 모세의 번역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사 ‘영감된 번역’을 기록하도록 하신 걸까요? 후자의 경우라면 ‘점진적인 영감’ (Progressive inspiration)을 비난하는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이 모세가 파라오(바로)와 대결하는 장면에서도(출 4-14장) 제기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해 모세가 이집트 왕과 말할 때는 왕이 쓰던 이집트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록할 때는 자신의 말이나 파라오의 말을 모두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에 영감을 주셨습니까?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세의 이집트어 구두 진술 복사본인가요? 아니면 모세의 히브리어 번역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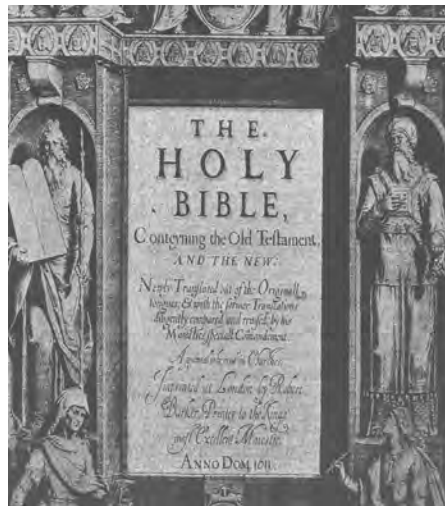
‘번역에도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행 21:40; 22:2). 1절부터 21절까지의 증언은 바울이 모두 히브리어로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도행전 22장의 필사본은 이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것에 영감을 주셨습니까? 바울의 말(히브리어)인가요? 아니면 누가의 ‘진보된 영감’ 즉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가요?

그 대답은 간단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All scripture)은 하나님의 영감 — 숨을 불어넣으심 — 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에 나오는 ‘scripture’ 라는 단어의 어근은 ‘script’ 인데 이것은 ‘기록된’(written)이란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포함된 여러 개의 번역 — 제가 지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 도 하나님의 영감 된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근본주의자가 이같이 영감 받은 번역을 고의로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와 같은 명백한 성경의 관행에 역행해야만 할 것입니다.¹⁴⁾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14) 여기서 독자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28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존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도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혹시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말에서 다른 말로 번역(통역)된 부분도 그것이 기록될 때는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중영감설’ 즉 ‘킹제임스 성경도 자필 원본과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보존해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긴 일개 역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옮긴 것이 원래의 것만큼이나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A 옮긴 것이 원래의 것만큼 좋을뿐더러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E 성경은 ‘옮김’ (Translations)에 관해 세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경우 모두 옮긴 것이 원래의 것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이므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어떤 의견보다 성경의 ‘관행’을 상위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1. 첫 번째 ‘옮김’ (Translation)은 사무엘기하 3장 7-10절에서 발견됩니다.¹⁵⁾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이야의 딸 리스바더라. 이스보셋이

15) 여기서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translation’ 혹은 ‘translate’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번역(translation)이 원본보다 나을 수 있다고 유머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어 단어 ‘translate’가 ‘번역하다’도 되고 ‘옮기다’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에게 아무 근거도 대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우수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며 저자는 여러 증거를 댈 뒤에 이렇게 유머스럽게 다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많은 증거를 보여 준 뒤에 마지막에 보여 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갔느냐? 하니 그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고 이 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는도다.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그 맹세는 곧 이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 to translate the kingdom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좌를 세우는 것이라, 하매

사무엘기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 대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삼하 2:8-9). 그런데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브넬은 심히 노하여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질 것’(Translate)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열두 지파 모두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는 사무엘기하 3장 9절에 나오는 아브넬의 말을 볼 때 아주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Translation)은 한 민족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다윗이 바르게 통치하고 다른 한쪽은 이스보셋이 바르지 않게 통치하던 ‘원래 상태’보다 더 나아졌습니다(첫 번째 언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2. 두 번째 ‘옮김’(Translation)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 hath translated us.

여기서의 ‘옮김’(Translation)은 잃어버린 바 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편

전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누구라도 이러한 ‘옮김’ (Translation)이 ‘원래 상태’ 보다 엄청나게 향상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세 번째 ‘옮김’ (Translation)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 Enoch was translated —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 God had translated —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 before his translation —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Translate’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지 다섯 번 쓰였습니다. 사무엘기하에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나머지 세 번이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희박한 크리스천이라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대언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에녹은 육신을 입고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에녹 개인의 경험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도서 2장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소위 크리스천들이 ‘휴거’ (Rapture)라고 말하는 것의 축소판입니다. 성경은 ‘휴거’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래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즉 디도서의 ‘복된 소망’ (Blessed hope) 혹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끌어올림’ (Catching up) 혹은 히브리서의 ‘옮기는 것’ (Translation)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일(Translation)이 ‘원래 상태’ 보다

향상된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이 언급하는 모든 ‘옮김’ (Translation)이 원래의 것보다 향상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학문에 최고 가치를 두거나 혹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었던 성경의 사실들을 다 거부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 사실 또한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미국표준역』(NASV)과 『신국제역』(NIV)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위에서 언급한 그 어느 구절에서도 ‘옮기다’ (Translation)란 단어를 쓸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즉 그들은 ‘Translation’이란 단어를 빼고 대신 다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Q 다른 성경에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성경들을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A 다른 역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기본 교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욱더 명쾌하게 그리고 더욱더 빈번히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E 다른 역본들에서도 근본적인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그런 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교리가 원래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나왔음을 잊고 있습니다. 다음의 교리들은 다른 역본들에서도 발견되나 삭제나 변개 등으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에서보다 그 의미가 약화된 것들입니다.

1.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는 『신미국표준역』(NASV), 『신국제역』(NIV), 『뉴킹제임스역』(NKJV) 등이 사도행전 3장 13절, 26절 그리고 4장 27절, 30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이라 부름으로써 크게 희석되었습니다.

2. 지옥 교리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희석되어 NKJV와 NASV에서는 ‘지옥’ (Hell)이 아니라 ‘음부’ (Hades)로 음역되었습니다

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부가 어디 있는지 혹은 어떤 곳인지 아는 분이 제십니까?

3. 사도행전 8장 37절의 본문이 삭제되어 NIV와 NASV에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 NASV의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 NIV와 NASV에서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부인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같은 신성모독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6. 삼위일체 교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제거되거나 문제시 됩니다. NIV와 NASV는 그 구절을 삭제하고 6절을 나누어 영터리로 7절을 만들어 냈고 NKJV는 그 구절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현대 역본들의 본문에 들어 있는 단지 몇 개의 변개 사항들입니다. 모든 목록을 남김없이 기재한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혹자는 다른 성경들에 대한 이러한 비평을 두고 “별것 아닌 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현대 역본들에서 어떤 특별한 교리를 200번 발견했다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와 똑같은 교리를 그보다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 교리 면에서도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완전하다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A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개 다수는 언제나 틀렸습니다.

E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성경의 진리 즉 다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구절은 지구 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에 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강 살펴볼지라도 대개 다수는 항상 틀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홍수 때에 죽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의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들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른 것은 오역이 아닙니까?

A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리스어 ‘프뉴마’ (pneuma)를 ‘그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E 성경의 완전성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주장은 실로 미약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서 쉽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어와 성경비평학자들의 위선적 행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논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주님의 증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eth our infirmities: for we know not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itself maketh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이 구절에서 중간에 ‘그것’ (itself)¹⁶⁾ 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 (spirit)이라는 의미의 ‘프뉴마’ (pneuma)입니다.¹⁷⁾

실로 ‘영’은 공기와 같이 때문에(창 1:7; 요 3:8) 우리는 공기의 작용에 의한 어떤 장치 혹은 작업 등을 설명하기 위해 ‘공기에 의해 움직이는’ (pneumatic)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¹⁸⁾

모든 그리스어는 각각 뚜렷한 성(性)이 있어서 남성, 여성 혹은 중성을 갖습니다. 남성은 관사 ‘o’로, 여성은 ‘a’로, 중성은 ‘to’로 표시됩니다. ‘영’ (spirit)이란 단어인 ‘pneuma’는 중성이며 이 사실은 심지어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1학년생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많은 열등한 역본들에서 ‘pneuma’를 ‘그분 자신’ (himself)으로 번역한 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pneuma’를 ‘그것’ (itself)으로 번역한 것은 정확하게 원본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마치 그리스어를 ‘오역한 것’인 양 『킹제임스 성경』을 비웃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어를 알맞게 번역한 이것을 그들이 비평하는 것은 정말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모욕할 뿐 아니라 무지하게도 ‘pneuma’를 ‘그분 자신’ (himself)으로 부적절하게 번역한 NASV, NIV 그리고 NKJV 같은 다른 역본들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을 ‘그것’이란 것에 대해 분개하는 비평학자들은 자기들의 위선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경멸적 태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하나님을 비인격체인 것처럼 ‘What’으로 부른

16)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재귀대명사 ‘itself’를 ‘친히’로 번역했으므로 영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없음

17) 실제로는 ‘p’가 묵음이므로 ‘뉴마’로 발음하는 것이 옳지만 표기상 ‘프뉴마’로 했음

18)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를 바꿀 때 수리공이 사용하는 렌치는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공기 렌치’ (pneumatic wrench)임

NASV와 NIV 같은 역본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흠정역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Whom’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성성경비평 학자들의 위협을 전혀 개의치 않는 예수님께서서는 22절에서 여인에게 주저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Ye worship ye know not what: we know what we worship: for salvation is of the Jews.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what’ 즉 ‘알지 못하는 것’이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다음절에서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But the hour cometh, and is, when the true worshi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for the Father seeketh such to worship him.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켜 중성인 ‘what’ 으로 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학식을 빼기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21세기의 일류 학자들 집단은 NIV, NASV, NKJV 등을 번역하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하나같이 중성인 ‘what’, ‘which’ 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 군데서는 그리스어에 있는 대로 중성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다른 데서는 있는 대로 중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랬듯이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르시렵니까?



감옥에서 서신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

Q 『킹제임스 성경』에도 처음엔 외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A 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으로 실리지 않고 참고 자료로 실렸습니다.

E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향한 공격 중 또 다른 하나는 『흠정역 성경』의 초기판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들을 포함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외경들을 영감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일곱 가지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경이라고 번역된 ‘어포크라이퍼’(Apocrypha)라는 말은 원래 ‘숨겨진’이라는 뜻이 있었으나 주후 450년경부터는 구약 시대의 ‘정경이 아닌 책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외경 문제의 핵심은 로마 카톨릭 성경 안에 포함된 몇 가지 책이 과연 성경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 외경의 성격

외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약 400년간의 기간 즉 침묵기라 하는 기간에 기록된 15개의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비논리적이고 그 저자를 알 수 없으며 또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나 권위를 받았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 내용이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기도 합니다. 이 책들 중 몇 개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외경은 다 그 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2. 외경의 책들

다음은 15개의 외경 책들 명단입니다. 그 이름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한글공동번역』에서 취했습니다.

외경 명단

	외경 이름	연 대	내 용
1	솔로몬의 지혜서	주전 30년	교훈
2	집회서	주전 132년	교훈
3	토비트	주전 200년	종교 소설
4	에스드라상(*)	주전 150년	역사, 전설
5	마카베오상	주전 110년	역사
6	마카베오하	주전 100년	역사, 전설
7	유딧	주전 150년	로망스 소설
8	바룩	주후 100년	예언
9	예레미야의 편지	주전 200년	예언
10	에스드라하(*)	주후 100년	예언
11	에스델	주전 130년	전설
12	아사랴의 기도(혹은 세 아이의 모래)	주전 100년	전설
13	수산나	주전 100년	전설
14	벨과 뱀(원래는 벨과 용)	주전 100년	전설
15	므낫세의 기도(*)	주전 150년	전설

(*) 천주교에서도 이 책은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외경의 수용

- (1) 유대인들은 결코 외경을 자기들의 구약 성경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외경이 삶의 예와 예의 범절 등을 위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여깁니다.
- (3)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의 표에서 ‘에스드라상하서’와 ‘므낫세의 기도’를 뺀 나머지 12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므로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고 51권이라고 주장합니다.¹⁹⁾

4. 외경을 포함하는 사본들

- (1) 『70인역』: ‘에스드라하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 포함
- (2) ‘알렉산드리아 사본’ (A 코덱스): 위의 외경들 외에도 ‘마카베오 3서 및 4서’ 포함
- (3) ‘바티칸 사본’ (B 코덱스): ‘마카베오상하서’ 및 ‘므낫세의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포함
- (4) ‘시내 사본’ (알레프): 여러 권 포함
- (5) ‘체스터 비티의 파피루스’: ‘집회서’ 일부분 포함
- (6) ‘사해 사본’: 그리스어로 쓰인 몇몇 외경 포함

5. 트렌트 공회

외경은 1546년 4월 8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회²⁰⁾에서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트렌트 공회란 주후 1545-1563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세 번 열린 카톨릭 교회의 공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가 열리기 28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뒤엎으려는 ‘반종교개혁’의 중심 기구가 바로 트렌트 공회였으며 주로 예수회(Jesuits, 제수

19) 참고로 『한글공동번역』에는 ‘예레미야의 편지’도 빠져 있음

20) 천주교에서는 이를 트리엔트 공회라 함

이트)가 이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이 공회에서 교황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 (1) 카톨릭 교리의 정의
- (2) 카톨릭 교리의 개혁
- (3) 이단 말살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표어 중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Sola-Scripture)였는데 카톨릭 교회 역시 이와 똑같은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구약성경에다 외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렌트 공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카톨릭 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모두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 카톨릭 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1) 연옥: 마카베오하서 12장 39-45절
- (2) 구제(즉 자선 행위)에 의한 구원: 집회서 3장 30절

이외에도 외경에는 자살을 인정한다든지(마카베오하서 14장 43-46절), 비참한 노예제도를 인정한다든지(집회서 33장 24-28절), 율회(솔로몬의 지혜서 8장 19, 20절)를 인정하는 구절이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거나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있어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성경과 상치됩니다.

트렌트 공회 이후 1582년에 로마카톨릭교회가 펴낸 「두에앵스 역본」은 원래의 구약 성경 39권에다 위 표의 15개 외경 중 12개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트렌트 공회는 매우 교묘하게 외경을 포함시키는 일을 진행하여 외경 15권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특히 에스드라하서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7장 105절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6. 초기 영어 성경에 외경이 포함된 이유

초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개 외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중세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대개 외경을 가치 있는 책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성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외경을 넣었는지 간에 영어 성경에서 외경은 부록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정경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글과 함께 성경책에 포함되었습니다.

(1) 『틴데일 성경』(주후 1525년)은 외경들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것들이 ‘영감 받지 않은 책들’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커버데일 성경』(주후 1535년)도 『틴데일 성경』과 마찬가지로 했으며 아예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외경 : 고대 교부들이 성경의 다른 책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은 책들이며 또한 히브리인들의 정경에도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다.

(3) 『마태 성경』(주후 1537년)과 『태버너 성경』(주후 1539년)은 외경을 구약과 신약성경 사이에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4) 『킹제임스 성경』(주후 1611년)은 『비숍 성경』(주후 1568년)과 마찬가지로 외경을 부록에 넣었으나 1629년부터는 아예 외경을 빼기 시작하여 1827년부터는 부록에서도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안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었다.”라는 것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넣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선 “성경 안에 외경을 부록으로 넣었다.”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경은 단지 성경 안에 들어 있는 지도책과 같이 참조 자료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초기 영어 성경들의 경우가 거의 다 이릅니다.

반면에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성경에 넣었다.’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모두 78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책의 목차에 아예 외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이 모두 구약성경 정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간하는 성경은 모두 후자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Catholic Study Bible』이나 『New American Bible』 등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외경을 부록으로 넣은 경우와 정경으로 인정한 경우의 차이점

외경을 부록으로 넣은 경우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경우
구약 성경 39권	구약 성경 51권
외경(부록)	신약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	부록이 없음
외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음	부록이 없고 대신에 외경이 구약 성경 중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이 총 51권으로 구성됨

7.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1) 이 책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1)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책들을 구약성경에서 제외했다.
- 2) 주전 20년에서 주후 50년까지 살았던 필로 역시 이것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적이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다.

1)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이 마카베오하서 7장과 12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열왕기상서 17장 22절과 열왕기하서 4장 35절을 인용한 것이다.

2) 또 어떤 이들은 유다서 14절이 외경인 에녹 서신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은 에녹의 말을 인용할 따름이며 분명히 우리 성령님께서는 에녹이 한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녹 서신을 인용하지 않고서도 아무 문제없이 그의 말을 기록하실 수 있다.

3) 어떤 이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이 외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 마술사의 이름을 언제든지 기록하실 수 있으므로 이 구절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야브네 공회²¹⁾에 모인 유대인 학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대부분의 교부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외경의 어느 책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6) 외경의 많은 책들이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실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 혹은 얄니아 공회(Council of Jamnia)라고도 하며 주후 90년과 118년에 열려서 구약 성경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7) 외경의 많은 책이 성경 말씀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8) 외경의 형식은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으며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괴기적이며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9)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같은 뚜렷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된 외경들은 — 라틴어로 존재하는 단 한 가지만을 빼놓고 —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견해와 역사 등에 대해 설명을 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인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부록으로 넣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도 같이 말입니다.



성경을 불태우는 중세 천주교 사제들

Q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사용해서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E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단순성을 둘러싼 사실들은 현대 역본들이 가장 많이 왜곡시킨 부분에서조차도 많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크리스천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것은 새로운 크리스천을 적절히 자랄 수 있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려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 4:12)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이런 면에서 새 번역 성경들은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사실 위에

서 언급된 구절들이 많은 새로운 역본들에서는 변개되어 성경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역본들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성경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민음을 지키기 위해 화형도 마다하지 않은 중세의 순교자

Q 사해 사본이 『킹제임스 성경』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오히려 사해 사본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다.

E ‘사해 사본 두루마리’(Dead Sea Scrolls)는 1947년에 여리고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아랍인 양치기 소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본문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 사실은 완전한 성경을 던져 버리고 싶어하는 학자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게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외에는 대개 그것을 무시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미 ‘사해 사본 두루마리’와 일치하는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Q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thee’와 ‘thou’ 같은 고어들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면 어찌합니까?

A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고기를 주시나 그것을 잘라서 먹여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의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영감을 통해 완전한 원본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조합하시고 그것의 신빙성을 문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로마 카톨릭 압제자들과 알렉산드리아 철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존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그분 자신의 가장 충성스런 종들의 생명과 가정과 가족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학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전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로 완전하고도 순전하게 그것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thee’와 ‘thou’ 등이 고어라고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불평을 그치고 고기를 잘라서 먹는 수는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Q 『뉴킹제임스역』은 안디옥 사본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뉴킹제임스역』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E 『뉴킹제임스역』(NKJV)과 영어 성경과의 관계는 알렉산드리아 필사본들과 그리스어 성경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뉴킹제임스역』은 “성경이 완전할 리가 없다.”라는 개탄스러운 교리 — 그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음 — 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무기력한 지성인들이 순수한 본문을 변개하고 개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현대 역본들과는 달리 『뉴킹제임스역』은 개악된 알렉산드리아 필사본들이 아닌 ‘정확한 안디옥 필사본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번역 작업을 실행한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그것에 달려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이 같은 혐의를 맹렬히 부인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성경도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든 『뉴킹제임스역』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성경은 이미 소실된 것이며 — 하늘 나라에 ‘안치된’ 것이며 —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상들’이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학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번역 위원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설교자요 목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성경을 정정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직함이 완전함을 향상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듯이 “좋은 것(즉 KJB)을 더 좋게 만드는(NKJV로)” 대신에 그들은 단지 가짜스로 많은 애를 써서 완전한 것을 더럽혀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성경 번역 위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상당한 명성을 가져다준다(마 23:5-7)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돈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화형도 마다하지 않은 중세의 순교자

Q 최근에 나온 『뉴스코필드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인가요?

A 『뉴스코필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코필드 성경』도 아닙니다.

E 『뉴스코필드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²²⁾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 마디로 스코필드 박사(Dr. C. I. Scofield)는 『뉴스코필드 성경』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21년에 작고했으므로 매우 ‘특별한 섭리에 의해’ 부활하지 않고서는 1921년에 죽은 사람이 1967년에 책을 편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판 업자는 이 새로운 ‘판’을 내면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도 스코필드 박사가 1909년에 처음 판을 출간한 후 1917년에 자료를 보충해서 다른 판을 출간했다는 점을 들어 자기들이 새 판을 낸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고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이에게 그것도 자기가 죽은 지 45년 후에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작품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도록 백지 수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드’의 끝

22) 미국에서는 1920년대 이후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의 주석 내용과 관주 등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부분을 고치고서 셰익스피어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뉴스코필드 성경』 편집자들은 스코필드 박사가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며 편찬 작업에 포함시켰던 스코필드 주석의 특성들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부정직한 작품 즉 『1967년판 뉴스코필드 성경』 서문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코필드성경

이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개선 향상되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본문상의 주요 단어 변화(따로 음성표기를 하지 않고), 철자에 악센트 부호나 발음기호를 직접 표시하는 방식을 새롭게 편집한 것, 저자, 주제 그리고 연대의 명시 외에 소제목 등을 포함한 성경 각 권의 도입 부분들의 개정, 각주들에 대한 해설, 몇몇 각주들의 삭제 그리고 많은 새로운 각주들의 추가, 난외 주들의 보강, 전체적으로 새로운 연대표 제시, 새로운 색인, 이 판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용어 색인, 새 지도들 그리고 더욱 읽기 쉬운 인쇄체.

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스코필드 박사가 사용한 본문 즉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 각 권의 도입 부분 그리고 주석, 난외 주, 연대기 및 그밖에 다른 많은 특성들을 개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과연 스코필드 박사가 이러한 개정들을 승인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던 것처럼 그 위원회의 9명의 위원들이 스코필드를 불러올릴 수 있었다면 혹시 가능했을까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 출판사는 개정 위원들이 제멋대로 그런 변화들을 선택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는 전체 위원회의 신념이나 사고를 반영한다.

이러한 속임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침례(Baptism)에 대한 사도행전 8장 12절의 주석을 『뉴스코필드 성경』에서 살펴봅시다.

침례는 사도 시대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주요 그룹들 사이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주의 만찬과 더불어 두 가지 규례로 알려져 있다.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는 침례의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사용되었는데 성수살포(sprinkling, 뿌리기), 관수례(pouring, 붓기) 그리고 침수(immersion, 담그기)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9명의 개역자들이 — 스코필드 박사가 아님 —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한 그룹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정의한다면 나머지 한 그룹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입니까?

두 번째, 이 9명의 배도한 개역자들은 — 스코필드 박사가 아님 — 성경적인 증거도 없이 크리스천들이 침례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 즉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석이 『1967년도 뉴스코필드 성경』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은 먼저 표지에서 이미 고인(故人)이 된 사람 즉 스코필드 박사가 편집에 참여했다고 거짓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17년에 나온 진짜 『스코필드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대해 그 책의 편집자인 스코필드 박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런 주석도 없습니다. 그런 주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뉴스코필드 성경』은 스코필드 박사 본인이 자기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는 주석들 즉 후에 임의로 추가된 ‘스코필드’ 주석들과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정직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뉴스코필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는 증거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KJ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난외주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코필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며 더더욱 『스코필드 성경』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최근에 『뉴스코필드 성경』의 크기나 형태가 『스코필드 성경』과 더욱 비슷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스코필드 성경』을 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수로 『뉴스코필드 성경』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경’ 판매는 수지맞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Q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신국제역』(NIV)은 믿을 만합니까?

A 아닙니다. 『신국제역』은 신학과 교리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E 『신국제역』(NIV)은 네슬레(Eberhard Nestle)가 1979년에 출간한 『그리스어 성경 제26판』에 기초한 역본으로 1969년에 출간된 『네슬레의 제23판』에 기초를 둔 『신미국표준역』(NASV)과 더불어 이집트 사본 계열에 속합니다. 이것들과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뉴킹제임스역』과 『뉴스코필드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둘은 이 책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었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에 의해 더럽혀진 필사본들의 산물입니다. NIV와 NASV에서 발견되는 몇몇 개악들(corruptions)에 대해서는 근본주의 교리들에 대해 다룬 이전 질문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실수 투성이 역본들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연구한 책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마 7:17-18)

Q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얻을 수 없었던 필사본들이 1611년 이래로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게 도움이 됩니까? 약점이 됩니까?

A 그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강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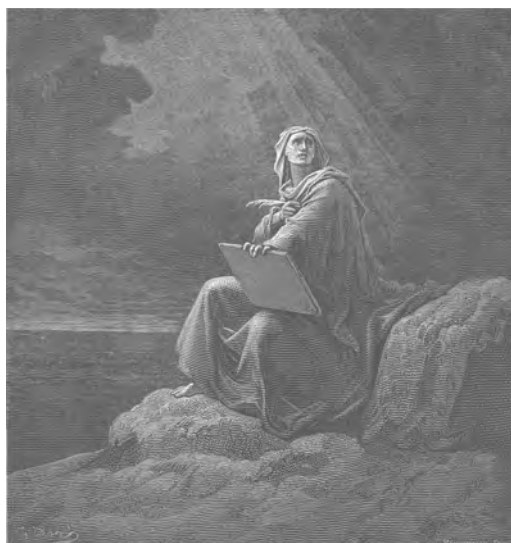
E 1611년 이래로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었으나 그것들이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수많은 비평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들어가며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현대 비평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본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611년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시내 사본’이며 이것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본입니다. 이 증거물은 1841년 티센도르프(Constantine Tischendorf)가 시내산 기슭의 성캐더린 수도원의 — 천주교 사원임을 기억하십시오 —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시내 사본’이 역시 변개된 천주교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의 자매 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내 사본’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

경』이 번역된 지 2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을지라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게는 이미 1481년에 발견된 ‘바티칸 사본’과 1582년에 출간된 영어 성경 즉 ‘예수회 성경’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본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게는 없었으며 단지 현대 역본 역자들에게만 있는 ‘유용한 본문’ (?)이란 단 하나도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батом섬에서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구스타프 도레)

Q 현대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읽기에는 쉬울지 모르나 그 어느 것도 말씀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E 현대 역본들을 판매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광고 전략 중 하나는 장래의 고객들에게 그것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었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단 고객이 된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고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현대 역본 영어 성경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이제부터 성경에 관한 한 나는 무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고해 버린 것입니다. 현대 영어 역본들은 읽기엔 쉬울지 모르나 이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고어’와 ‘thee’ 그리고 ‘thou’가 성령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데 정말로 거침이 된다면, 지금 성경 판매 시장에 나와 있는 현대 역본들도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에 거침이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신미국표준역』(NASV), 『신국제역』(NIV), 『뉴킹제임스역』

(NKJV)과 『현대인의 영어성경』(TEV) 같은 현대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이해하기 쉽다면 그것들을 읽을 때 성령님의 메시지가 크리스천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게 흘러넘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더욱 훌륭한 영적 승리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19세기나 심지어 20세기 초의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양육 받았던 크리스천들보다 더욱더 세속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덜 헌신적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관측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었다면 죄와 세상 그리고 육육과의 전투에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어야 했지만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 만약 현대 역본들이 정말로 이해하기에 더 쉽다면 하나님께서 그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로써 그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스런 고어체’로 적힌 『킹제임스 성경』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거침돌이 되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의 백성들이 이해하기에 더 쉬운 다른 역본을 사용하려 하셨을 것이며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역본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야 한다는 것은 유년주일학교 학생이라도 다 아는 일일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오늘날의 현대 역본들 중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종류의 영적 각성 — 오순절 은사운동 등의 비성경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 도 일어나지 않았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역본들은 심지어 크리스천 학교에서조차도 부흥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 영어 역본들이 등장한 이래로 미국에서는

- ① 하나님과 기도가 공립학교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 ② 낙태가 합법화되었으며
- ③ 전국적으로 동성연애가 ‘사람의 기호에 따른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 ④ TV와 VCR을 통한 도색 문화의 가정 침투와
- ⑤ 아동 유괴, 만연된 호색 문화의 득세와
- ⑥ 마약의 유행과
- ⑦ 사탄숭배의 기세가 드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부흥’으로 간주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새 역본이 성공했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단 하나의 기준은 그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뉴욕 매 디슨가(출판사 거리)의 타락한 판매 방식 즉 이윤 추구만을 위해 과대 광고도 마다하지 않는 방식은 크리스천들에게 마땅히 경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TV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런 광고에 순종이나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건 유익한 것임에 틀림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있잖아?” 그러면 현대 역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있긴 합니다. 확실히 출판사들은 수백만 부의 성경을 찍어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들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한국도)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곤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성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심리학자’(Bible psychologist)에게로 갑니다. 미국은(한국도) 매춘 부처럼 되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겔 16:49).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가져온 영적 도움과 희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희망은커녕 바로 그러한 역본들로 인해 우리는 이처럼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Q 성경 문제로 인한 혼란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닐까요?

A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시므로 마귀야말로 이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E 많은 성경비평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투의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다고 다소 분개하여 외치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그들의 말은 옳지만 성경에 대한 완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 지시를 받고 있다는 그들의 추측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은 추측일까요? 성경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1611년 초판이 인쇄된 이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인기는 상승해 왔습니다. 제임스 왕이 영국의 교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제적인 법령을 선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년 내에 이전에 번역된 모든 역본들을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작금의 역본들처럼 뉴욕 매디슨가의 타락한 방식으로 과대 선전되지도 않았지만 이내 영국 국민들과 영국의 식민지 시민들의 손과 마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역본들을 쓸어내 버렸습니다.

대영제국을 정복한 후 그 성경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

니다. 이곳에 도착한 그 성경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깃발 아래 이미 확고히 심어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점을 뒤엎어버렸으며 그 후 자신의 이상대로 나이 어린 미국의 숨결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 체계 즉 성경에 기초한 교육 체계의 설립을 유도했으며 종교와 출판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사상들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낯선 것이어서 단지 정부의 '실험' 으로밖에 묘사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의로운 설교자들을 임명했고 그들은 도보로 그리고 말을 타고 광야를 개척하며 어느 곳이든 복음과 올바른 삶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이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이 완수되자 그 성경은 이방 세계 정복에 올랐으며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선교 단체가 만들어지고 열정을 가진 젊은 선교사들이 오직 『킹제임스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사탄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그 능력을 성공적으로 모방했던 그가 하나님의 성경이 도전받지 않은 채 세계를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웨스트코트(Brook Foss Westcott)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같은 자기의 하수인을 통해 1884년에 자신의 변개된 역본인 『영어개역성경』(Revised Version, RV)을 출간했습니다(신약 성경은 1881년에 출판되었음). 1611년과 1884년 사이에 산발적으로 사적인 역본들이 나오긴 했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는 『개역성경』(RV)이라 불린 이 새 역본이 첫 번째였습니다. 비록 그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을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은 지난 400년간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과 관련하여 치러진 전쟁 중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향해 쏜 첫 총탄이었습니다.

1901년에는 후에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이라 불리게 된 『미국개역성경』(*American Revised Version, ARV*)이란 총탄이 다시 쏘아 올려졌습니다. 사실 ASV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표준’(standard)이 될 수 없기에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미국 신학자들의 총아였던 이 역본은 23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그 판권이 팔려 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들리십니까?

ASV는 더 개정을 거친 후 1954년에 『개역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수히 반복됐는데 몇몇 이름만 말하자면 1960년에는 『신미국표준역』(*NASV*)이, 1967년에는 『뉴스코필드역』(*New Scofield Version, NSV*)이, 1978년에는 『신국제역』(*NIV*)이 그리고 1979년에는 『뉴킹제임스역』(*NKJV*) 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향해 발사된 이 모든 총탄들 즉 새 역본들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대전제를 부인하는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산물이며 결국 사탄의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들의 상당량은 개악된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순수한 안디옥 필사본들로부터 번역된 것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은 출판 분야에서 나타난 사탄과의 전쟁이며 사실 그것만이 그의 공격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기인 ‘전 후방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알렉산드리아 필사본들이 출판물을 통해서 대중화되는 사이에 그는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교에 입학한 진지하며 젊고 순수한 신학생들은 교실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을 주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 극도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연사들은 영어 성경의 권위를 평가절하시키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면서도 자기 학생들에게는 자기들이 자필 원본의 무오류성을 믿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도 ‘근대주의자’도 아니라는 확신을 언제나 심어 줍니다. 모든 배도자들은 자기들의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 지금 존재하지 않고 구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신비한 존재인 자필 원본을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한때 성경의 완전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순수한 신학생은 이제 자신의 ‘모교’(Alma Mater)에 전적으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교육 때문에 의기 소침하게 되고 무장 해제된 젊은 신학교 졸업생들은 미국 곳곳의 설교단 위에 서서 자기 교수들에게서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약한 비평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인쇄기로부터 갓 찍혀 나온 새 역본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크리스천이 “이 성경 즉 예전에 소실된 고대 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한 권의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면 — 사실 그들도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이를 빼앗겼음 — 그들은 큰 위협을 느끼고 그를 ‘광신자’나 ‘이단 교도’로 몰아서 쫓아내려 합니다.

진지한 눈빛을 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크리스천에게 최종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이 성경 논쟁을 이용해서 크리스천들을 분열시키고 주님의 뜻을 훼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라는 답변을 한 뒤 그는 “그러나 결코 내 동료들이 마귀에게 이

용 당하고 있지 않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언

아직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가 우리 방식을 따른다면 목회자는 설교단에 서서 성경을 읽고 앉아 있는 다른 이들도 그와 동일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성경을 수정하고자 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혼란입니다. 그렇다면 혼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누구겠습니까? (고전 14:33).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a) 히브리어 알파벳(자음만으로 구성되며 오른쪽 위부터 시작)

HEBREW CONSONANT	NAME	TRANSLITERATION
1. Resh (rāsh) 2. -little Daleth (dā'lēth)		r d
1. He (hā) 2. -little Heth (kāth)		h k

(b) 획(tittle)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의 차이 23)



(c) 마소라들이 자음에 포인트를 넣어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게 해 줌

23)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일 점' (one jot) '일 획' (one tittle)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마 5:18). 여기서 '일 점'은 그림 (a)의 히브리 문자 '요드'의 위에 점처럼 붙은 것이고 '일 획'은 그림 (b)에 있는 것처럼 옆으로 살짝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점과 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어가 달라지고 물론 뜻도 달라집니다.

Q 성경 문제를 다룰 때 늘 언급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누구입니까?

A 그들은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요, 구원받지 못한 성경비평 학자들입니다.

E 웨스트코트(Brook Foss Westcott, 1825-1903)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는 거듭나지 않은 성공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알렉산드리아 철학에 완전히 심취되어 『킹제임스 성경』과 안디옥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 대해 악의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성경의 뿌리와 역사』에서 여러 문서들의 증거를 들어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행위로든 믿음으로든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이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코트는 공산주의를 신봉했기에 그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코에노비움’이라고 불렀던 대학 캠퍼스의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자기들 스스로 조직하여 ‘유령 길드’라고 이름 붙인 단체를 통해 그

런 일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웨스트코트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인정하고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사라에서 ‘마리아’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호르트는 다윈과 진화론의 숭배자요, 옹호자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였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안디옥 본문을 버리고 마귀의 알렉산드리아 주술에 빠지게 되었고 또 어떻게 마귀에 의해 1871-1881년의 영어 성경 개정 위원회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선정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리스어 본문을 편집한 다음 — 이 본문은 출판되지도 않았고 사실 ‘공인 본문’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었음 — 성경 개정 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비밀리에 조금씩 조금씩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개정한 『개역성경』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영어 성경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은 사본 역사에 관한 그들의 불안정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Q 그리스 태생의 학자라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영어 성경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고칠 수 없습니다.

E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와 현재 그리스에서 통용되고 있는 현대 그리스어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 사람’ 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정정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그릇된 추측은 좋게 말하면 유머가 넘치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고치라는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고 업자가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어로 무엇을 가르치니까 믿을 만 하다.”라는 주장은 그 그리스 사람의 책을 팔아 주어 그를 부자가 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Q 현대 역본 지지자들이 말하는 ‘럭크맨주의자’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A ‘럭크맨주의자’란 성경비평학자들이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E 1921년에 태어난 럭크맨(Peter Sturges Ruckman)은 수년간 성경 필사본 역사에 대해 공부했고 저 유명한 근본주의 신학대학인 밥 존스(Bob Jones)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직접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 있는 펜사콜라 성경학교²⁴⁾의 교장이자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수백 명의 설교자와 선교사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훈련시켰으며 또한 40권이 넘는 책과 성경 주석서를 지었습니다.

24) 럭크맨 박사의 ‘펜사콜라 성경학교’(Pensacola Bible Institute)는 저녁에만 모임을 갖는 비정규 학교로 한국의 야간 신학교 같은 곳이며 국내에서 과격함과 뻔뻔함으로 유명한 모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좋은 정규 대학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좋은 목사/성도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 박사도 ‘펜사콜라 성경학교’ 출신이며 이곳을 통해 좋은 목사/구령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만 국내의 그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학교가 미국 내에 다 알려진, 아주 명성이 있는 대학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같은 펜사콜라 시에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Pensacola Christian College)이라는 독립침례교회 종합대학이 있는데 이곳은 학생 수가 5,000여 명 되며 미국에서 가장 좋은 크리스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본주의 대학 중 하나이다. 이름이 비슷하므로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또한 펜사콜라 시에는 소위 ‘웃음부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성회 브라운스빌 교회’가 있어서 국내 성도들에게는 펜사콜라 시가 유명한 곳이 되고 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이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 가장 거침없이 말하고 싸우는 투사입니다. 시편 12편 6, 7절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치는 성경비평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는 인물이 바로 렉크맨입니다.

그의 무기고는 비범한 지적 능력과 성경 필사본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 그리고 신랄한 언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의 강렬한 설교 스타일은 오늘날 널리 깔린, 여자들이 같이 소심한 ‘주의 군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와 혹은 그가 제시하는 사실들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모든 성경비평학자들은 자기들도 ‘성경이 실수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렉크맨 박사의 저서들 중에서 한 권을 읽고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 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그들은 자기들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이른바 ‘성경 개선’ 혹은 ‘성경 정정’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목사가 자기들을 가리켜 ‘렉크맨주의자’(Ruckmanite)라고 비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렉크맨 박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렉크맨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히 자포자기에서 나온 공격 전술일 뿐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람을 추종하는’ 죄를 범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

유에서 성경비평학자들은 만일 성경 신자들을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로 고소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념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들의 말을 따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에 저는 자신이 ‘릭크맨주의자’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에 성경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경건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는 후에 제게 자신이 ‘칼빈주의자’ (Calvinist)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비진리가 난무하는 오늘날 성경이야말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진실로 믿으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신념이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릭크맨주의자’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Letter	Name	Letter	Name
Α α	alpha	Ν ν	nu
Β β	beta	Ξ ξ	xi
Γ γ	gamma	Ο ο	omicron
Δ δ	delta	Π π	pi
Ε ε	epsilon	Ρ ρ	rho
Ζ ζ	zeta	Σ σ, ς	sigma
Η η	eta	Τ τ	tau
Θ θ	theta	Υ υ	upsilon
Ι ι	iota	Φ φ	phi
Κ κ	kappa	Χ χ	chi
Λ λ	lambda	Ψ ψ	psi
Μ μ	mu	Ω ω	omega
Greek Word	Transliteration	Translation	
ΑΠΟΣΤΟΛΟΣ	apostolos	Apostle	
ΕΠΙΣΚΟΠΟΣ	episcopos	bishop	
ΘΕΟΣ	theos	God	
ΙΗΣΟΥΣ	iesous	Jesus	
ΜΥΣΤΗΡΙΟΝ	mysterion	mystery	
ΡΑΒΒΙ	rabbi	master	
ΧΡΙΣΤΟΣ	christos	Messiah	

그리스어 알파벳 25)

25) 이 표에서 ‘Transliteration’은 ‘음역’이며 이는 그리스 단어를 영어로 읽은 것이고 반면에 ‘Translation’은 ‘번역’이며 이는 뜻을 옮긴 것임

Q 그리스어 사본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금덩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금광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데도 왜 고작 ‘금덩어리’ 만으로 만족하려 하십니까?

E 목회자들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에서 찾아내려 하는 ‘금덩어리’의 대부분은 사실 그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조차 못합니다. ‘금덩어리’를 찾아내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스어에서 아무도 찾아낸 적이 없는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보여 주시리라고 믿는 매우 오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금덩어리’를 찾아낸 뒤 자기들만이 가진 매우 놀랄 만한 그리스어 ‘실력’으로 동료 목회자나 성도들을 감화시키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설교단에 서서 성경을 들고는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사실 그들은 영어 성경이든 그리스어 성경이든 세상에 있는 성경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읽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분께서

그리스어를 좀 더 낫게 번역할 방법을 자신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은 대개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어 게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그리스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리스어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짓 학자나 우쭐대려는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단순히 「스트롱의 성구용어색인」(*Strong's Concordance*)이나 혹은 「영의 성구용어색인」(*Young's Concordance*) 등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이런 ‘성구용어색인’의 뒤에는 성경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아래에는 그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된 예와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원어에서 ‘금덩어리’를 캐려고 열심을 내는 학자나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란 단지 거기에서 번역된 영어 용례를 서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플로테스’(haplotes)라는 그리스어를 하나 택합시다. 이 단어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어 ‘하플로테스’(haplotes)의 번역 용례

	구 절	번역 예
1	고후 9:11	Bountifulness(풍부함)
2	고후 9:13	Liberal(너그러운)
3	고후 8:2	Liberality(너그러움)
4	롬 12:8; 고후 1:12	Simplicity(단순함)
5	엡 6:5; 골 3:22	Singleness(단일함)

자, 이제 우리의 열심 있는 학자가 자신의 뛰어난 지성을 과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플로테스’가 번역된 다른 구절을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을 택하겠습니다 (위 표의 5번 용례).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 (in singleness of heart)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엡 6:5)

그는 설교 시간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 ‘희생물’ 즉 위의 구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구절을 서투르게 번역했다고 몇 마디 혹평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달리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 중 하나를 취해 — 예를 들어 위 표의 3번이나 혹은 4번 — 그 구절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그는 게저품을 몰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역자들이 원어를 매우 서투르게 번역했다고 여러 차례나 지적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단어에 대한 장점들을 장장 10-15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즉 같은 그리스어가 위 표의 4번처럼 ‘단순함’ (Simplicity)으로 번역된 곳에서는 역으로 5번 용례를 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simplicity)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롬 12:8)

물론 이때에도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의 번역자들이 이 구절을 서투르게 번역했다고 혹독하게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말을 듣는 청중들은 이 일이 이처럼 손쉽게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그의 지성과 그리스어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으로 인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 쳐다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오류를 지적해 줄 재능 있는 목회자나 교수를 만난 것

이 천만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알팍한 ‘그리스어 게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같이 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설교자가 소유한 그리스어에 관련된 도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경받을 만한 스승만큼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칭 성경학자라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너무도 쉽게 청중을 속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절을 읽으며 그는 어떤 특별한 단어에 이르자 거기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어를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의 장점에 대해 10-12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중들은 어리석게도 이 사람의 ‘월어 실력’으로 인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경연 대회’에서 14살짜리 소년이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일은 사실 15달러 짜리 ‘성구용어색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열심 있는 설교자 역시 로마서 8장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같은 절을 읽고는, 그 전날 다른 전문가가 꼬집어냈던 똑같은 단어에 다다르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를 적절하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전날 저녁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그 설명을 재탕하는가 보려고 재빨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는 않더군요. 이 유별난 학자는 문제시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전날 저녁의 판매원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선택한 단어나 혹은 전날 저녁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그 전문가가 선택한 단어보다 자신이 선택한 단어가 갖는 장점들에 대해 장황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유일하게 일치한 점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오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존경 받는 견해를 재빨리 학문 쓰레기 더미 위로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1611년에 선택하신 자신의 책에 기록하신 단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원어에서 ‘금덩어리’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어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줄곧 사용하곤 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그들은 ‘성구용어색인’ 대신 ‘그리스어 사전’에서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과는 항상 동일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오역투성으로 매도당하고 청중들은 설교자의 원어 실력과 지성의 깊이에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성경 교사들의 그리스어 실력과 겨루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그보다 훨씬 못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형태의 ‘금덩어리’는 원어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낸 완전 허위 진술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예로 그리스어 ‘아가페’(agape)와 ‘필레오’(phileo)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21장 15-17절에서 모두 ‘사랑’(love)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5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고

17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웬만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도 거짓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한두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에서 ‘아가페’(agape)라는 단어가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필레오’(phileo)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 우리의 설교자는 영어 단어(혹은 한국어 단어)의 제한된 표현에 대해 거의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한탄을 하며 자기의 주장을 펴니다. 다시 말해 영어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agape, 즉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로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phileo, 즉 일상적인 친구 간의 사랑)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뒤 원어 성경 추종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을 듣지 못

하셨기에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자신을 맡기기 꺼렸기 때문에 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성경 교정자는 큰 슬픔에 잠기신 주님께 서 베드로의 헌신이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아가페’ 대신 ‘필레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질문을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같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 자신이 주님께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교자는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베드로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거짓 교사는 의미가 빈약한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해서 이 구절의 깊은 뜻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저 신뢰할 만한 ‘그리스어’는 영어나 한국어가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나 다를 이 없게 됩니다!

참으로 위의 예는 ‘원어 찬양’을 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란 다름이 아니라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위의 정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의 선입견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견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아가페’와 ‘필레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기자들이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에서 사용한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세밀하고 정직한 연구에 근거하여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인즉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가페’와 ‘필레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기자들은 이 두 단어를 늘 바꾸어가며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책이나 그리스어 교사들 그리고 그리스어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속한 신학 대학의 교수나 혹은 목사가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해 잘못 가르쳐서 이 같은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즉시 여러분의 선입견을 품고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지식이 많은 교수들이 틀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가 대조를 위해 택할 수 있었던 신약성경의 다른 기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결코 그들만이 저를 지지하는 최후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최종적이고도 가장 확실하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독자 여러분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성경 사경회에서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시험지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

약 여러분이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그 시험 문제에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용하신 용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나 「스트롱의 성구용어색인」 혹은 다른 어떤 도움에 의지하지 마시고 단지 영어 성경비평학자들이 제시한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인용문을 읽으십시오. 그 뒤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서 ‘아가페’를 말씀하셨을지 혹은 ‘필레오’를 말씀하셨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런 다음 ‘아가페’라고 생각되면 ‘A’를, ‘필레오’라고 생각되면 ‘P’를 인용 구절 옆에 있는 공란에 적어 넣으십시오.

제2부도 제1부와 동일한데 단지 신약성경의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용례들을 사용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제1부와 마찬가지로 ‘아가페’에 해당되면 ‘A’를, ‘필레오’에 해당되면 ‘P’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원어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에 내린 정의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결코 추측으로나 예감으로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정의를 따라 시험 문제에 정직하게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끝마쳤으면 이 글의 뒤에 있는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 아가페 對 필레오

1. 인용된 성경 구절을 읽으십시오.
2. ‘아가페’ (agape)와 ‘필레오’ (phileo)를 선택하시고 인용문 뒤의 괄호 안에 ‘A’ 혹은 ‘P’를 적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배워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3. 문제의 해답이 뒤에 있으므로 답을 맞춰 보고 잘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 원어 성경 학자들이 내린 단어의 정의

1. 아가페 사랑 : 깊고 친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
2. 필레오 사랑 : 일상적인 친구간의 사랑

제1부 : 예수님께서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구 절	번 역	대 답
1	눅 11:42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슬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2	요 5:42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아노라.	
3	마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4	계 3:9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5	계 3: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6	마 23:6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7	요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8	눅 11:43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9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10	요 16:27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시기 때문이다.	

제2부: 신약 성경의 다른 기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 절	번 역	대 답
1	딤후 3:4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2	요 11:5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3	요 20:2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4	고전 16:22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5	롬 5:8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6	고전 16:24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할지어다.	
7	딤후 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다.	
8	롬 12: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9	살전 3:12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10	딤후 2:4	여자들이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11	엡 5:28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	
12	벧전 2:17	형제들을 사랑하고	
13	히 13: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4	딤후 3:4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사	
15	요일 2:5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여러분이 이 시험을 정직하게 치렀다면 교만하게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경비평학자들이 우리에게 속임수로 팔아먹은 거짓말을 예수님도 신약성경의 기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어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작은 금덩어리’가 사실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놋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기만당한 사람들 마음속 외에는 이런 ‘금덩어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리스어 교수입니까?

역자 주

이제 이 글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말씀드린 요지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번역한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보여 주려 함이었으며 결코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나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로 된 필사본이 있었기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며 따라서 원어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어로 된 필사본이나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고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글을 처음 대하는 독자께서는 이 같은 진술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말하는 바 최종 권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초등학교 말기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사실 영어 사전을 펴 보면 어떤 단어든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대여섯 가지, 많은 경우는 열 가지 이상 되는 때도 있습니다. 원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과연 어느 것이 그 문장에 맞는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원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원어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야말로 바로 저희가 말하려는 바 최종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학이 달라지고 심지어 이단 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전적으로 부패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면서 그리스어 『공인 본

문』(TR)을 최종 권위로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TR 주의자’라고 부릅니다. ‘TR 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본문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가장 좋은 영어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역본이므로 결코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으며 다만 『TR』만이 최종 권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협적인 입장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학자들이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질문 25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어 ‘하데스’ (Hades) 용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필사본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올바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역 작업 속에서 원어 성경 외에도 ‘라틴어 역본’, ‘시리아어 역본’ 그리고 이전의 영어 역본 등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의 첫 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만일 여러 종류의 『공인 본문』들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다 모은다면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인 본문』을 완전한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공인 본문』이 단지 신약성경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번역자가 특정한 원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

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원어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유명한 전도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14, 한글개역성경)

이 구절 외에도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더 나옵니다(전 1:17; 2:11; 2:17; 2:22; 2:26; 4:4, 6, 16; 6:9). 이 구절의 ‘바람’에 해당하는 원어는 ‘루아흐’로서 이 단어는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사람의 ‘호흡’ 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바람’으로도 해석이 되고 ‘영’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위의 전도서 구절을 다 ‘바람을 잡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은 이 구절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전 1:1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원어는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다만 저는 성경 번역자가 동일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저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끝장인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

을 내린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바른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후 5:7)

**요한복음 21장 15-17절 아가페 對 필레오
에 대한 해답**

제1부 : 예수님께서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구 절	번 역	해 답
1	눅 11:42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슬쩍 넘어가기 때문이라.	A
2	요 5:42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아노라.	A
3	마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P
4	계 3:9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A
5	계 3:19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P
6	마 23:6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P
7	요 12: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P
8	눅 11:43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A
9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P
10	요 16:27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시기 때문이라.	P

제2부: 신약 성경의 다른 기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 절	번 역	해 답
1	딤후 3:4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P
2	요 11:5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A
3	요 20:2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P
4	고전 16:22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P
5	롬 5:8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A
6	고전 16:24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할지어다.	A
7	딤후 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다.	A
8	롬 12: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P
9	살전 3:12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A
10	딤훈 2:4	여자들이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P
11	엡 5:28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	A
12	벧전 2:17	형제들을 사랑하고	A
13	히 13: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P
14	딤훈 3:4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사	P
15	요일 2:5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A

Q 『공인 본문』은 1633년에 가서야 등장했는데 어떻게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으로부터 번역될 수 있습니까?

A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E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년간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습니다. 이들 중 유명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과 보나벤퉁(Abraham and Bonaventure) 등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다섯 가지 판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판했습니다. 1516년의 첫 판에 이어 마틴 루터가 그의 역사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독일어 번역에 사용했던 1519년 판이 나왔습니다. 그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나왔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네 개의 판을 내었습니다. 베자도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여러 판 출판했으며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각

각 하나씩 모두 네 개의 판을 출판했습니다. 이것들은 2절판으로 인쇄되었는데 이는 종이 한 장을 접어 4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1565년, 1567년, 1580년, 1590년 그리고 1604년에 다섯 개의 8절판 책을 출판했습니다. ‘8절판’이란 종이 한 장이 여덟 개의 페이지를 갖도록 인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된 책들은 2절판 책보다 지면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두 권 혹은 그 이상의 권수로 작품을 인쇄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1598년의 베자 판과 1550년, 1551년의 스테파누스 판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에 의해 가장 중요한 번역 원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뒤 몇 년 후에 엘지버 형제가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랐으며 1633년 판 서문에다 그때까지 나온 본문들을 다 수용하는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스테파누스 성경(1546년)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수용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공인 본문』(영어로 Received Text 혹은 그리스어로 Textus Receptus)이라는 호칭의 제목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인 본문』이라는 호칭이 비록 『흠정역 성경』이 번역된 지 22년 후에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불린 본문이 안디옥에 기원을 둔 ‘참된 그리스어 본문’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 본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명칭

안디옥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안디옥 본문(Antiochian Text)	알렉산드리아 본문(Alexandrian Text)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이집트 본문(Egyptian Text)
시리아 본문(Syrian Text)	국지적 본문(Local Text)
다수 본문(Majority Text)	헤시키안 본문(Hesychian Text)
보편적 본문(Universal Text)	소수 본문(Minority Text)
종교개혁 본문(Reformation Text)	
황제 본문(Imperial Text)	
전통본문(Traditional Text)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Q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성공회의 유아세례 주는 자들과 한 패거리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A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E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한 모임의 사람들은 성공회와 청교도 교회 출신의 성경 신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인품과 능력은 이미 위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공회의 유아세례를 주는 자들과 한 패거리였다.”라는 말은 애석하게도 사실무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신공격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빼앗아가려는 바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최소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언급하려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다윗처럼 간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다윗처럼 살인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 또 다른 성경 기록자 — 처럼 자기 자녀를 그모스와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격렬히 부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성경 기자들에게 무례히 행하려고 그들의 이갈

은 단점들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은혜로 봐야겠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레이트 바이블(1539)
헨리 왕이 교회에 두고 읽게 한 성경

Q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제 모교의 입장과 상반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여러분은 ‘충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출신 학교보다 당연히 우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E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은 ‘모교’ (Alma Mater)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교’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의 히브리어 ‘Almah’와 ‘어머니’라는 뜻의 그리스어 ‘Meter’의 조합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Alma Mater’라고 하면 그것은 ‘처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 용어는 명백히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녀 어머니’ (Virgin Mother)를 가졌다고 외치며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다녔던 대학’ 혹은 ‘나의 출신 학교’라는 좀 더 긴 표현을 쓰는 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은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겪었을 노고와 노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육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교에 대한 감사를 고려한다 해도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것만큼 그 대학에 은혜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단 졸업한 뒤에도 자신의 확신에 통제를 받을 정도의 굴욕적인 태도로 학교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협하여 자기네 학교 방침대로 끌고 가려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편지 즉 모교의 학장에게서 온 ‘친애하는 청년 목회자에게’ 라는 편지에 대해 3중 우편물 이상의 비중을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하는 학교는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요구나 주장하는 바를 정중히 무시해 버리는 데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학비, 방과 후 식사비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다른 경비들을 자비로 지불하며 학교에 다녔다면, 소위 여러분 학교에 대한 ‘빚’ 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와 지도자들의 ‘희생, 선견지명, 헌신 등등’에 전심으로 감사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의 빚은 여러분이 마지막 학비를 냈을 때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학위는 그들이 자선을 베풀기 위한 선물로서 거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희생, 선견지명 그리고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학구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현금으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일이 ‘멋진’ 행위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기에 여러분에게 학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들이 원했던 요구 조건들을 채워 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현금 지폐를 지불한 것을 포함해서(어떤 경우에는 이자까지 더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교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완전한 성경을 찾았지만 여러분의 학교나 ‘동창생’ — 그리스어로는 ‘Alumni’ 인데 이는 ‘조명을 받은 사람들’ (?)을 뜻함 — 과 불화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빛’은 진짜이지만 모교에 진 ‘빛’은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쪽과 불화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교입니까? 여러분의 모교가 그릇된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모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 26)

26) 'Ployglot'은 한 면에 여러 성경이 들어간 성경으로 위의 예를 보면 왼쪽 난에 라틴어와 함께 그리스어 성경이, 가운데에는 라틴어 성경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음

Q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점진적 계시’가 아닙니까?

A 아닙니다.

E ‘점진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란 용어는 성경 비평 학자들이 성경 신자들을 위협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전략에서 나온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감은 자필 원본에서 끝이 났다. 따라서 단순한 역본이 자필 원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새로운’ 계시 즉 ‘점진적 계시’를 믿는 것이다.

과연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편견, 견해 혹은 신념의 비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최종 권위만이 사람이 믿기에 적당한 것이 무엇이고 적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공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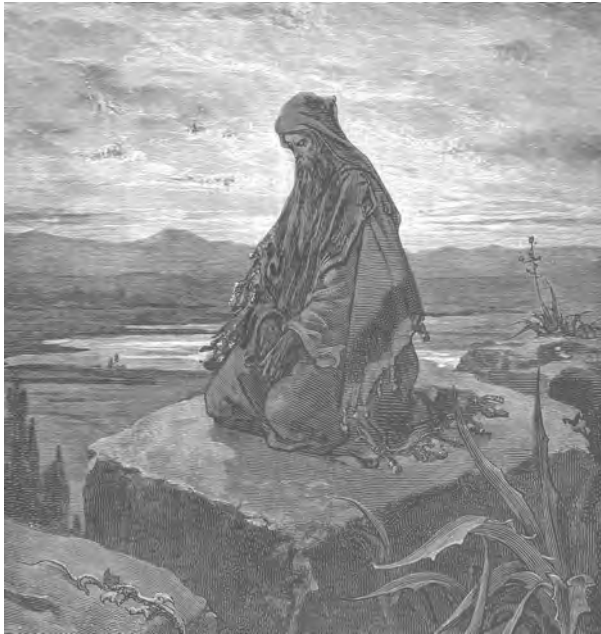
성경에 ‘점진적 계시’에 대한 예가 있습니까? 최소한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파라오 앞으로 갑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경쟁의 초기에는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모세와 ‘기적 대 기적’으로 겨루기 위해 노력합니다(출 7:11, 12, 22; 8:7). 우리는 파라오의 주요한 두 명의 술객들이 안네와 암브레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마흔여덟 장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서른아홉 권 중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름은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에야 ‘계시됩니다’(딤후 3:8).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야 대언자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자기의 말에 따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삼 년 반 동안의 가뭄을 거두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삼 년 반’의 가뭄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 가뭄의 기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삼 년 육 개월’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엘리야의 가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삼 년 육 개월’이란 이 정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한 사건의 일부가 구약에 기록되고 그 나머지가 수 세기가 지난 후 신약에서 계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소 ‘점진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비평학자들의 이번 주장만큼은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난 김에 만일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모세가 내리친 반석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에서 답을 찾지 말고 시편 114편을 읽으십시오.²⁷⁾



대언자

이사야(구스타프 도레)

27) 저자는 성경에 '진보적 점진 계시'가 있음을 보여 주려 하며 결코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더 많은 영감을 받았거나 '향상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논제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반대 진영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런 논제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Q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역사에 근거를 둔 입장’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 ‘역사에 근거를 둔’ 견해는 성경을 절대 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변개하려는 자를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E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논의를 중 하나는 ‘전통’에 대한 권위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1545년에 열린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요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전통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트 공회는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근본주의’ 성경 정정가들은 전통의 권위에 의지하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똑같은 이유 즉 성경으로부터 권위를 빼앗으려는 이유로 그러한 일을 합니다. 물론 근본주의 성경 정정가는 자기가 설교단에서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회중들의 머릿속에 ‘경종’이 울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이라고 말하는 대신 ‘역사에 바탕을 둔 근본주의적 견해란

...’이라고 말하여 청중들을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도대체 ‘역사적 견해’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전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역사에 바탕을 둔 근본주의적 견해가 아닙니다.”라는 연약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 성향을 띤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가 여러분을 저주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림이 포함된 필사본

Q 할 일이 많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역본 문제를 거론해야만 합니까?

A 여러분이 이 문제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거론해야 합니다.

E 설교를 통해 정말로 완전한 성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듣게 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은 “난 역본 문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뒤로 숨고는 경건한 척하며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시종 일관 여러분의 견해를 똑같이 유지한다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한 성경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다음의 어떤 사항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사 7:14)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요일 5:5)
3.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롬 5:8)
4.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고전 15:4)
5.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엡 2:8, 9)

6.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전의 재림(살전 4)
7. 문자 그대로의 천국의 존재(요 3:13)
8. 문자 그대로의 지옥의 존재(마 9:42-44)
9.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 인정(창 1:1)

이것은 결코 자칭 ‘근본주의자’라 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확신들을 정리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려 깊고 이성적인 사람이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이런 것들은 문제 삼으면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성경의 완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성경이 그 안에 오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의 확신의 바탕이 되는 이런 구절들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나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라면 인정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몬교도들도 다 믿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판결을 내릴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근본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거부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담대하십니까?

Q 성경 문제를 논할 때 박사들의 학식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 그들이 그들의 학위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야겠지요.

E 오늘날 교회는 ‘박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편찮으시다.”라는 농담이 들립니다. 박사 학위에는 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 학위와 명예 학위가 그것입니다. 취득 학위는 교육상의 학위입니다. 그것은 단과대학 혹은 종합대학에서 그러한 학위를 따기 위해 학교의 요구 사항을 다 채운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학문 분야의 성취를 뜻하며 그 졸업자가 그 지식의 폭넓은 분야에 정통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취득 학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M.D.	Doctor of Medicine (의학박사)
Ph.D.	Doctor of Philosophy (철학박사)
Th.D.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Ed.D.	Doctor of Education (교육학 박사)

명예 학위는 말 그대로 대학에 대해 봉사 활동이나 혹은 괄목할

기여를 한 남녀에게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한 방도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명예 학위가 즉석에서 그 학위 수여자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 학위를 받은 사람이 받기 전보다 성경 사본들에 관해 더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명예일 뿐이지 학구적인 학위는 아닙니다. ‘명예 학위’를 가진 외과 의사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문제들에 관한 명예 학위 소유자들의 의견은 취득 학위를 가진 사람의 연구 결과를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용한 증거들을 다 모아 철저히 연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명예 학위는 태권도의 ‘명예 검정 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집안에서 띠고 다닐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도둑과 싸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게 될지도 모르지요. 다음은 몇 개의 명예 학위 명단입니다.

D.D.	Doctor of Divinity (신학박사) ²⁸⁾
D.Mus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Sc.	Doctor of Science (이학박사)
L.H.D.	Doctor of Human Letters (인문학박사)
Lit.D.	Doctor of Literature(or D.Lit) (문학박사)
L.L.D.	Doctor of Laws (법학박사)
Litt.D.	Doctor of Letters (문학박사)

이상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학위는 제각기 중요성을 지닙니다. 명예 학위는 공훈의 상징이며 따라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학교를 위해 수행한 가치 있는 행적에 대해 개인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득 학위는 학자를 부르는 학계의 칭호이며 실질적인 교육 업적에 의거한 것입니다.

28) 취득 학위인 ‘Doctor of Theology’와는 다름

Q 성경 역본들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강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지키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E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1. 여러분 생각에 성실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방법을 이용합니다(레 10:1-3을 보십시오.).

2.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권고들을 가능한 한 엄격히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분께 사랑을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게 될 수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 짓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분을 사랑하는 표시는 곧 ‘그분의 말씀들(words)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sayings)을 지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51, 5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사랑은 ‘그분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sayings)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words)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건 단지 그리스어 원문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호 애재라! 이런 말은 단지 여러분을 더 깊고 더 치명적인 함정으로 유인할 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예가 이를 잘 설명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욥 1:17).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전학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이르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을 흠칩니다. 모든 새 역본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고래’를 한결같이 ‘물고기’로 고칩니다. 이 일은 그들이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에 모순을 가진 것 같은 성경 — 그런데 이들의 모순은 그들의

중학교 생물학 교사가 붙여넣어 준 지식과 모순이 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님 — 과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는 것도 모를 만큼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직면하고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여 찢찢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마태복음 12장 40절로 달려가서는 성경 즉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최종 권위가 되는 책과 예수님 곧 자기의 ‘주님’ 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고래’ 라는 단어를 빼 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고래’ 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Ketos’ 이며 ‘물고기’ 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Ichthus’ 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같지 않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10절, 17장 28절 같은 곳에서 ‘Ichthus’ 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도 그것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로서 ‘성경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은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성경적 진리들을 간과합니다. 첫째, 그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에 의해 삼킴을 당했음을 간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단 하나의 생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세기 2장 19, 20절에서 나머지 창조물에게 이름을 주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1절에서 고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²⁹⁾ 물들이 풍성히 난, 움직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9)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창조하셨다(And God created great whales ...)는 것을 보여 주는 단서인 창세기 1장 21절의 ‘큰 고래들’ 을 『한글개역성경』은 다른 알렉산드리아 역본들처럼 ‘큰 물고기’ 로 번역해서 큰 실수를 범함

이 사실은 고래가 창세로부터 이미 ‘예정’ (창 1:21; 욥 1:17)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은 성경 교정가들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돕겠다는 작은 ‘조력자’가 무시하는 두 번째 진실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래’에서 ‘물고기’로 바꾼 것으로서, 이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내 말들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깨뜨리는 것이며 실로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정정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모래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헤치고 나오려고 발길질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 속으로 더 빨리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NASV, NIV, NKJV와 나머지 새 역본들의 편집자들은 ‘Ketos’를 번역하는 일에서도 틀렸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또한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즉 고래를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목사, 부모, 혹은 교수가 다른 것 즉 물고기를 말할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사람의 견해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감싸고 옹호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Q 성경과 그리스어 사전이 모순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과감히 사전을 던져 버리십시오.

E 종종 하나님의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권위 있는 그리스어 문법책이나 사전을 예로 들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어리석은 것으로서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소문난 주장과 직접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전이라든가 오류가 없는 그리스어 문법책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신앙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 하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그리스어 참고서들을 만든 오류투성이 인간 저자들의 견해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 『공인 본문』의 편집자 에라스무스는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였나요?

A 후에 『공인 본문』으로 알려진 그리스어 본문을 편집했던 에라스무스는 교황을 당혹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이기에는 너무도 형편없는 본보기였습니다.

E 성경의 본문이나 사본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언제나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며 그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본주의자였다.” 혹은 “그는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한 마디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의 요점은 ‘인본주의자’³⁰⁾나 ‘카톨릭 교도’가 만든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 『킹제임스 성경』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필라델피아 제십장로교회의 유명한 목사이자 성경 무오성에 관한 국제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보이스(James M. Boice)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나쁘게 말하며,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에라스무스가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0) 영어로는 ‘Humanist’ 이고 우리말로로는 보통 ‘인문주의자’ 라고 함

그러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만든 에라스무스가 실제로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400년간 온 땅에 퍼져 복음의 빛을 발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근본주의 대학인 밥존스 대학의 커스터(Stewart Custer) 교수 역시 「킹제임스 성경 논쟁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에서 에라스무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펼칩니다.

『공인 본문』은 1516년에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함께 시작되었다.

비난을 받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다른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러한 견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런 견해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수많은 증거들은 에라스무스란 인물이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를 능가하는 매우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처럼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해에도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충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50년이라는 긴 역사의 시간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록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사가나 기록자의 편견에 따라 한쪽으로만 해석되곤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에라스무스가 영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완전한 사

람이라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역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 —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왕과 같은 완전한 사람도 지니고 있던 문제들 —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근본주의적 크리스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에라스무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완전치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이 보고 있는 분명한 잘못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것, 이교도들의 학식을 열렬히 동경한 것, 각종 성사, 교황 제도, 사제 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명백한 잘못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 등등.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를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요, 부주의한 성경 본문 편집자’로 낙인 찍는 것은 참으로 잘못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라스무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서적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두 개의 중요한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저명한 역사학자 베인튼(Roland H. Baiton)이 저술한 『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³¹⁾(Erasmus of Christendom)이고 다른 책은 1894년에 출간되어 지금은 절판된 프로드(J. A. Froude)의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Life and Letters of Erasmus*)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부정적인 인물로 내모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라스무스에 대해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관련해서

31) 이 책은 1998년 11월에 현대지성사에서 『에라스무스』(현대지성신서010)로 출간하였으며 교보 문고의 인터넷 서평은 다음과 같다. “카톨릭에 의해서는 파괴적인 인물로 배척당하고,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는 도피적인 인물로 배척당했던 에라스무스. 그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전기. 수도원주의 홀란드, 왕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채찍, 최악의 세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등 11장에 담았다.”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와 서신을 통해 그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나님을 보여 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된 후 약 6,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 즉 천국인가 지옥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에서 에라스무스를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논의할 때도, 과연 에라스무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 자체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발람, 삼손, 솔로몬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발람은 구약 성경 보존의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삼손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며 특히 발람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영감된 성경 기록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4, 45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페르시아(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교도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상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사 44:28)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사 45:1)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면 고레스가 구원받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비록 에라스무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보존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통해 독자들께서도 확신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에라스무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인본주의자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려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정의 내리는 관점에서 볼 때 에라스무스는 결코 ‘인본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라 하면 사람을 하나님 위에 놓으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은 무신론자요,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결코 그런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인본주의자’라는 말은 16세기 이후로 그 뜻이 크게 변했습니다. 16세기 이전의 ‘인본주의자’라는 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영국 ‘트리니타리안 성경 협회’(Trinitarian

Bible Society)의 브라운(Andrew Brown)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크리스천 인본주의자’였다.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본주의자’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중세가 로마카톨릭교회의 ‘우민정책’으로 인해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본주의자들은’ 고대문학, 문화, 교육 등에 큰 관심을 갖고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시민 생활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스테파누스, 베자, 칼빈 등이 모두 인본주의자였으며 이 같은 인본주의자들의 이상이 기독교의 복음과 합쳐져서 암흑시대를 벗어난 16세기 이후의 서구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분명히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 교도였지만 동시에 개혁자였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권리 남용과 심각한 부패에 대해 크게 비판했으나 카톨릭 교회를 내부에서 개혁해야 하며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히 프로테스탄트들과 카톨릭교도들 모두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의 작품들 중 몇몇은 비록 그 안에 가끔씩 옳지 못한 교리가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영적인 것이었다. 특히 그가 지은 『크리스천 군사를 위한 안내서』는 너무나 유익한 책이어서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한 틴데일이 영어로 옮길 정도였다.

사실 1997년도에 출간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펴 보면 틴데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민들의 손에 쥐여 준 프로테스탄트 학자도 ‘휴머니스트’ 즉 ‘인본주의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유명한 백과사전 편집자들 역시 그 당시에 고전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로 분류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에라스무스의 행적을 조사하여 과연 그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자’였으며 동시에 복음을 깨닫지 못

한 ‘로마 카톨릭 교도’ 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1466년(혹은 1469년)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났고 1536년에 일흔 살의 나이로 죽었으며 16세기경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시적 의학술과 함께 전염병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대략 30-40년으로 제한하던 그 당시 그가 것처럼 장수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에라스무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전염병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은 삼촌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삼촌이 그들을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청년시절 에라스무스는 데벤터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전수 받게 되었고 그가 지닌 매력과 예의범절 그리고 재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는 확실히 비범한 지능의 소유자였으며 수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열 시간 걸려서 하는 일을 단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영 박물관내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에라스무스 개인이 저술하거나 편집한 책으로 쌓여 있을 정도로 그는 많은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형제들 — Brethren of the Common Life — 사이에서 자라났으며 ... 그의 평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이온의 『기독교의 역사』(History of Christianity), p.359).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라이온이 지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은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서 양육을 받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 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종교개혁 이전이나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의 믿음과 영은 천주교보다 성경에 더 가까이 있었습다.

자, 그럼 ‘인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온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이 어떠했는가를 그 자신의 말을 통해 살펴봅시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달기를 바라며 …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 소리에 맞추어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 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Famine in the Lord’, Norman Ward, p.38).

이와 같은 진술문은 결코 16세기에 살았던 ‘천주교 인본주의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 주려는 매우 고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가장 훌륭한 점은 보통 사람들을 향한 그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엄격히 ‘계급화 된 사회’에서 그는 일반인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롬의 라틴어 역본』이 로마 제국이라는 철저한 계급 조직의 명령에 의해 번역된 데 반해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라틴어 역본』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그 당시 일반인들의 손에 쥐여 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단지 향기를 내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번역한 성경을 집에서 읽는 자마다 그것으로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농부, 재단사, 여행자 그리고 심지어 회교도들조차’ 손에 성경을 잡고 읽는 것을 보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의 상급 동료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심지어 ‘석공과 매춘부와 포주들’ 까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한 후에 그는 카톨릭 교회의 어거스틴파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서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1492년에는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거스틴파 교도들의 기준에 따르자면 참으로 유별난 데가 많았습니다. 그는 교회 축제일 전야의 철야 기도를 지키기를 거부했고, 금요일에 고기 먹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제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의 몸을 구속하고 있었으나 그의 영과 혼은 그런 틀에서부터 벗어나 언제나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많은 작품을 썼으며 그 안에서 자기가 속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조리와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신랄하

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력과 사제단 그리고 수도승들의 허랑방탕함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돈을 만지지는 않지만 술과 여자에 대해 성실하지 못함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들의 내연 관계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위 ‘이교도’라 부르는 자들을 다루는 잔악성에 대해 공격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공연한 사악함에 대항하여 저술한 『야만인들에 대하여』(*Against the Barbarians*)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의 많은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그는 율리우스 교황을 비롯한 여러 교황의 독재를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종종 교황 율리우스가 이끄는 ‘성전’(聖戰)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율리우스’(교황)가 율리우스(카이사르) 역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란 유명한 말 역시 그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교황의 이 같은 독재는 기독교를 좀먹는 해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교황좌(座)를 제거해 버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지옥에 간 것으로 묘사한 신랄한 풍자의 글이 익명으로 배포되었을 때 그 글을 지은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비난을 잠재울 양으로 천주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추기경직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는 그 같은 노골적인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온 유럽은 수도승들의 무지와 사제들의 미신 등을 적나라하게 밝혀 놓은 에라스무스의 저서들로 인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요동했다 … 이에 교황은 그에게 추기경 자리를 주어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으나, 자신의 양심과 타협할 수 없었기에 그는 이 같은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가 이 같은 교황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여러 가지 기록들은 그가 자유롭게 남

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번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부했음을 보여 줍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나 학자나 인쇄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 p.103).

완숙한 지경에 다다른 학자 에라스무스는 그 시대의 별이었으며 그 명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유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천주교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라틴어 신약성경』은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와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신약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를 드러내 놓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번역이 옳음을 보여 주는 각주들을 만들었으며 이런 각주에는 부패한 카톨릭 사제들을 겨냥한 뽀족한 가시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에라스무스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를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제롬의 역본을 반대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사본이 4세기경에 오리겐 등에 의해 개악(改惡)되었음을 간파했고 제롬의 역본이 4세기 초에 쓰인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에 기초를 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편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 구절들을 제롬과 달리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롬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고해성사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번역했는데 반해 에라스무스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라고 달리 번역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성경비평학자들과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 신빙성을 의심해온 마가복음 16장 9-20절과 요한복음 8장 1-12절 말씀을 충실히 옹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밀러(Andrew Miller)라는 역사학자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잘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밑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참으로 힘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편집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16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라틴어 신약성경』과 함께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만든 『라틴어 신약성경』에는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의 오류들이 수정되어 있었다.

사실 이 같은 작업은 그 당시에 아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출간되자 사방에서 그의 작품을 공격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종파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신성하고 전통적인 라틴어를 간섭하려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말하였다. “도대체 누가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에 수정을 가하여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라틴 별게이트』 역본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매우 큰 범죄로 여기는 것들 중 하나였다(『Miller's Church History』, Andrew Miller, Bible Truth Publishers, 1980, p.696).

한편 에라스무스의 성경 주석 역시 카톨릭 교회의 왜곡된 모습에 대일격을 가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에라스무스가 일하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저서들과 『그리스어 신약성경』 출간은 곧장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이라는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이 같은 그의 업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더더구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나 ‘로마 카톨릭교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400년간 온 세상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같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일켜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다섯 판에 걸쳐 출판했습니다. 그것들은 주후 1516년, 1519년,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판의 번역 및 출간 작업은 1515년 3월 15일에 시작되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516년 3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젤에는 프로벤이라는 인쇄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페인 학자 스투니카가 저술하여 1514년에 시메네스 추기경에 의해 처음으로 인쇄되었으나 1522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출간된 『کم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는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출간되기에 앞서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라스무스를 고용하여 그 일을 하게 했고 결국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کم플루텐시안 폴리글롯』보

다 먼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간된 첫 번째 판은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역본이 동시에 들어간 두 가지 언어로 구성된 성경 즉 ‘디아글롯’이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판은 첫 번째 판을 조금 개정한 것으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판은 소위 ‘사도 요한의 십표’라 불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삽입시킨 것으로 인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는 것으로 이 구절은 모든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삭제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명백한 구절입니다.

비록 자신이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던, 주후 15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량의 비(非) 그리스어 자료들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본문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신약성경 본문에 이 구절을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권위를 입증해 줄 만한 최소한의 그리스어 필사본도 없이 이 일을 했다가는 큰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판에서와 같이 자신의 두 번째 판을 출판할 때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는 그리스어 필사본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다음 판에 이 구절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가 편집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나오자 카톨릭 교회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는 15세기경의 사본을 찾아내게 되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구절을 신약성경에 포함시켰으며 그 뒤 이 구절은 영원히 『그리스어 공인 본

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에 남아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 라틴 별게이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와 고대 『알덴시안들의 성경』, 『테플 성경』 등 10여 개의 증거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의 특징은 이들이 한결같이 비잔틴 계열이 아니라 라틴 계열이라는 점입니다. 영지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분파의 철학에 심취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저술한 알렉산드리아 본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으나 삼위일체를 인정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를 따른 라틴 계열의 기독교계는 처음부터 『구 라틴 별게이트』를 사용하면서 이 구절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과 아리안주의자들이 성경 본문을 맹렬하게 공격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비잔틴 계열이 아니고 라틴 계열의 사본 및 역본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구절을 반대하는 소위 ‘근본주의 학자’라 하는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새로 발견한,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필사본이 에라스무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릇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 당시에도 옹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통사람이 아니며 16세기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같은 비난은 사실 그 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기원이 오래되지 않은 몇

개의 사본들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작품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표는 그가 사용한 사본들을 보여 줍니다.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사본들

사본 번호	사본 시기	신약 성경 부분	비고
1	11세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비교용
2	15세기	사복음서	본문으로 채택
2 ^{ap}	12/14세기	사도행전, 서신서	본문으로 채택
4 ^{ap}	15세기	사도행전, 서신서	비교용
1 ^r	12세기	계시록	계시록만

맞습니다. 그는 주로 두 개의 사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본의 개수나 시기가 아니라 그 사본이 어느 계열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본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더욱이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므로 카톨릭 교회가 수집한 수많은 사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바티칸 도서관에 ‘바티칸 사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은 이미 1481년에 바티칸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성경 사본에 두 종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본을 ‘바티칸 사본’과 일치하는 사본과 비잔틴 계열의 사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월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바티칸 사본’을 참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가 로마에 있는 봄바시우스라는 교수와 계속해서 서신을 교환했기 때문이었다. 그 교수는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부분의 본문을 보내 주었다. 한편 1533년에 에라스무스에

게 ‘바티칸 사본’의 여러 부분을 보내 주면서 ‘바티칸 사본’이 ‘공인 본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이 아니고 카톨릭 교도인 세풀베다였으며 그는 ‘바티칸 사본’ 본문을 그에게 보내 주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바티칸 사본’이 위 표의 1번 사본과 같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바티칸 사본’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신했으며 그 같은 확신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편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프로드가 지은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을 통해 에라스무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원어로 된 신약성경 즉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자신의 새로운 라틴어 역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으며 지성인들을 일깨워 성경 말씀이 실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품급이 내는 소리같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 했다.

마침내 이 작업은 끝이 났고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과 라틴어 역본이 인쇄되었으며 기독교가 전하는 생생한 사실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들의 역사, 생애, 가르침 등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온 세상이 이로 인해 크게 놀라게 되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신도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의 기독교와 교황, 추기경, 종교 재판, 각종 거짓신화로 가득한 천주교를 서로 대조 비교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일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자신을 고자로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대하여 :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그런 서

악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한 사제들은 창녀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단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얽매이게 될 뿐이다. 또한 그들은 첩을 둔 채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게 되면 화형에 처한다.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독신 사제로 만들려는 부모들은 그들이 어릴 때에 거세를 시켜서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기록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23장에 대하여 : 만일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돈을 벌기 위해 전시된 것을 성자 제롬이 본다면 무어라고 말할까? 어떤 이들은 “여기에 성 프란시스의 모자가 있다.”라고 하며, “저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겹옷이 있다.”라고 말하며, 혹은 “성자 앤의 빛이나 캔터베리의 성자 토마스의 신발이 있다.”라고 말한다. 사제들과 수도승들의 침묵과 위선을 통하여 또한 일반 백성들의 무지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 즉 회칠한 무덤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일들이 —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주교들조차도 이런 멋있는 쇼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포고령을 통해 이런 불법들을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마태복음 24장 23 절의 말씀에 대하여 : 나는 직접 내 눈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볼로냐에 있다가 로마로 간 것을 보았다. 그는 행렬의 맨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행진해 갔다. 과연 베드로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아니면 무기나 군대나 혹은 기타 전쟁하는 기계들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하여 : 그들(사제들 및 수도승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 로(즉 라틴어로) 찬트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난 여섯 달 동안 사람들이 그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단 한 차례도 전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마땅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그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헛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의 헛된 논쟁에 대하여 : 신학자들은 죄의 형태에 대해 논하는 일에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이 죄가 영혼을 쪼먹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 흠이 되는 것인가? 등을 논한다. 도대체 한 마디로 죄를 미워하라고 단순히 말하면 되지 않는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겨우 이런 일에 대해 논의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이 신학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관하여 :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나열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살인, 근친 살인, 근친상간, 해적 행위, 동성연애, 도둑질 같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금 수많은 사제들이 있지만 그들 중 동정인자들은 거의 없다. 수많은 사제들이 욕심에 빠져 심지어 근친상간 등을 행한다. 따라서 욕정을 참을 수 없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하여 이처럼 더러운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은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원리 등에 대해 숙고한 뒤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각주에 적은 기록들입니다. 이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신약성경 첫 판부터 기록되었으며 나머지는 판이 갱신되면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결코 만평이나 논쟁거리를 담은 소책자에 실린 글이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은 신약성경 본문과 함께 기록된 것으로 그 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와 이 같은 기독교를 대신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미신을 비교하고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은 것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의식과 예식, 신학, 철학, 사제들의 인격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참상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신부와 수도승들은 심판대로 끌려와 교황이 출간을 허락하지 않은 책 즉 모든 책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책처럼 열광적으로 팔린 책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순식간에 수만 부가 팔렸을 정도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우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번져 나간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일으킨 경각심의 불은 온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후에 『공인 본문』으로 알려지게 된 그리스어 본문의 기초가 된 본문을 편집했던 에라스무스는 교황을 당혹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본보기였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더불어 그 교회의 신조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은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 문제이며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판을 치니 복음을 설명할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말하고자 했던 복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어떤 의식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는 회개한 강도가 간 길이 바로 ‘낙원에 이르는 길’이며 단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현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이 에라스무스의 글과 같은 것을 쓸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라스무스는 결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본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도 아니며 또한 무지에 갇힌 로마 카톨릭 교도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베드로나 바울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에 열 번 순례 여행을 다녀오는 것 보다 더 나은 것이다. 당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것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당신들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나 수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흥분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지는 않은가? 나무 십자가를 집에만 갖다 놓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입술을 예수님의 입에 댄 가롯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품 등은 결코 당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당신들의 소유와 관심과 염려를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두어야 한다. 그분은 자기를 위

해 태어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았으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죽음과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대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의 사면과 이생에서의 백 배의 결실 그리고 그 이후의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의 선한 공로와 행위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인함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다. 그분께서는 우선 아담의 타락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으니 이 모든 것은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증거에 의해 확증된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주셨다. 별레만도 못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가 되시며, 승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안전이 되신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으니 …’ 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것이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같은 역사적 고증들을 통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닌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에라스무스의 마음과 영혼을 보고 듣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배격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서 우리는 에라스무스가 비록 로마 카톨릭주의의 범주 안에 남아 있기는 했지만 성경을 믿은 신자요, 개혁자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성경적인 무리로 여겨진 ‘재침례교도들’(Anabaptists)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1523년경에 그들을 ‘재침례교도’라 불렀고 심지어 그 자신도 종종 ‘16

세기의 유일한 재침례교도' 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에라스무스가 '근본주의' (Fundamental)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에라스무스가 프로테스탄트였음을 증명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1535년 바젤로 다시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트 친구들과 함께 거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않고 지내다가 그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특히 카톨릭 신자라면 죽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종부성사' 도 거절한 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Dear My God!)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으며 바젤의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이 선구자 에라스무스의 시신을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안치하였고 그 역사는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라스무스는 1536년 7월 11일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결코 '충실한 카톨릭 교도'의 삶과는 동떨어진 프로테스탄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프로테스탄트 성향 및 기질로 인해 그가 받게 된 가장 큰 찬사는 그가 죽은 지 23년 후인 1559년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황 바오로 4세가 에라스무스의 저작물을 모두 금서 목록에 올려놓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 읽혀지기를 원했던 그의 순수한 소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을 염두에 두고 번역된 영어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로서 에라스무스가 저술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은 에라스무스의 성경, 그의 저서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협박에 저항하는 그의 태도로 무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운명이 그의 운명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루터의 편입니다.” 그는 루터를 위해 여러 편의 글을 썼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의견에 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루터를 이교도로 선포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만약 당대 최고의 석학인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펜의 힘을 사용했더라면 교황과 그의 하수인들이 할 수 있었던 힘없는 압력보다도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믿음의 확신에 따라 그들을 옹호했고 단지 루터의 예정설을 믿지 않았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펜과 잉크로 종교 개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개정한 편집자들 역시 프로테스탄트 성경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만들어 내는 일에서 에라스무스의 뒤를 따른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완전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한 철저한 성경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박해를 받으며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에야 비로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완전히 개정되어 ‘공인 본문’이 나오게 되었고 이 『공인 본문』을 기초로 해서 —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이 아니고 —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를 ‘인본주의자’ 나 혹은 ‘로마 카톨릭 교도’ 나 하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결국 에라스무스를 통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등의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요한 웨슬러, D.L.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등 프로테스탄트 부흥을 가져온 이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는 동안 에라스무스는 그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확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고대 및 중세를 통해 신약성경 본문을 안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인쇄해서 중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주려 하실 때에도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확신인 것이다. 우리는 결코 에라스무스나 베자나 틴데일이나 혹은 제임스 왕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처음에 완전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완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을 뿐이다.



에라스무스와 그의 그리스어 신약성경(1516년)

Q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A 단 하나도 없습니다.

E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친구약 통합 영어성경인 커버데일 성경

Q 저는 저의 동료집단 내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면 미래 승진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입장에 서서 그분께서 당신의 앞날을 도우시리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정직함을 내다 팔고는 개가 뼈다귀를 바라며 유순히 행동하듯이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E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선택도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Q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믿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E 여러 해 전 부엌에서 전화벨이 울려 받아 보니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던 학급의 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모순이 있음을 보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굉장한 '믿음의 사람' 이겠군요.). 그는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 논쟁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나는 이야기 도중에 말을 끊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군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대에 차서 재촉해 물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나를 많이 신뢰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던 나의 답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 저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다른 신자가 성경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친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유한한 창조물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성경 문제에 관한 질문의 답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인해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히 11:6; 고후 5:7). 저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항상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무오성에 관한 최종 판결은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방어자들’의 지적 능력이나 학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편 12편 6, 7절과 마태복음 24장 35절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론이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결론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입은 갑옷의 구멍 난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재빨리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 방어 수단으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처럼 그렇게 모순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운 구절들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신구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보여 주었던 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기를 원하실 것이기에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고집스러운 적

들의 처분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히 불안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 이미 소실된 원본들의 완전성을 믿는 것처럼 나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이 원본의 절대 무오성에 대해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 이유는 그 누구도 절대로 원본을 출판할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자기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거나 나쁘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우쭐대는 우리의 형제들’로부터 모욕을 당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원본보다는 우리 만질 수 있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답변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541년에 출간된 루터의 독일어 성경

Q 『킹제임스 성경』에 정말로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당신이 할 일은 성경을 펴서 시편 12편 6-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E 저는 지난 1960년대에 커다란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폭력적인 히피족들이 아메리카 은행 사무실을 불사르는 것이 보도되었고 다른 폭도들은 그 지역 전체를 “불태워라, 아가야, 불태워라!” 하는 외침과 함께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히피족들의 주장은 그 마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새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히피족들이 건물을 불태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들이 어떤 건물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냉엄한 진리는 당신이 권위에 반항하게 될 때 당신도 히피족들과 마찬가지로 파괴 예술의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벧후 2:9-15). 파괴하는 일에 폭 빠져 있는 삶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히피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 놓은 건물은 파괴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파괴했던 것보다 더 향상된 건물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러한 반항적인 증오는 또한 자칭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 맹렬하게 공격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을 파괴시키기 위해 맹렬히 비평하는 데는 능숙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학생들과 교회 회원들의 심령 속에서 그것을 파괴시켜 재가 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그토록 혹독하게 비평했던 거룩한 작품과 견줄 만한 — 더 낫지는 못할지언정 —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히피족들 — 비평학자들 — 의 속임수에 넘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완전한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들은 NIV 혹은 NASV 혹은 NKJV 같은 소위 ‘더 나은 역본들’이라 하는 잡동사니를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역본들 중 그 어느 것도 시편 12편 6-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된 성경 즉 완전히 보존된 성경이라고는 아무도 감히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추궁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어 본문’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주장 즉 가시땡굴처럼 뾰족한 주장으로 당신을 찌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를 읽고 연구하며 가르칠 실력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이나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 국지 본문의 일부분을 글자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은 거기에도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과 닮은꼴인 1960년대 말의 히피족들처럼 자기들이 헛간조차 다시 지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채 연기 나는 폐허더미 위에 자기들이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
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그 성경 대적자에게 여러분이 충성
과 사랑을 보이교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평학자가 여러분의 아
버지, 형제, 목사, 교장, 대학교수 혹은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어떤 분이기에 여러분은 완전한 성경 문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
항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흠정역 성경』에도 오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킹제임스 성경』을 NIV, NASV, NKJV와 그
리스어 본문들을 담고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만 할 것입니
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손가락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말하십시오. “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
까?”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역
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랍비의 지도로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 소년

Q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E 참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무오하고 완전한 말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것을 읽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될 만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역본들과 모든 주석서, 여러분의 ‘연구를 돕는’ 모든 책을 일단 뒷전으로 치우고 단순히 하나님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 책의 저자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고전 6:19-20) 여러분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신약의 끝까지 읽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0페이지는 읽으십시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주시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약간의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까지 읽기를 마친 뒤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또 읽으십시오. 자, 한 번을 읽으셨습니까? 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 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의 처음 아홉 장과 같이 그 본문이 ‘무미 건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독히 바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성경 읽기를 중단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상황 속에서도 매일 10페이지씩 읽기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사람에게 알려진 인격 테스트 중 가장 큰 것 하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미건조한 날들 외에도 그 책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는 날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과 구원자를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교사들 혹은 설교자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그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비난들에 대해 은혜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 책 말고 또 신뢰할 만한 다른 책을 찾아내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그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는 그들이 혹은 여러분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책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결정임에 틀림이 없으며 사실상 누구를 위해 충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친구와 모교인가?

여러분이 만약 설교자라면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소위 ‘금덩어리’라고 불리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떼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성경을 읽도록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과 그들 모두에게 풍성한 만족을 주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안에’ 거하고 성경을 읽는 무리들은 ‘성경 안에’ 거하며 그것을 읽는 목회자에게 절대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고 너무도 존경하는 친구가 다른 역본을 사용하는 교수나 목회자라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책을 공격하거나 ‘고치려’ 한다면 그들의 메시지에서부터 단지 그 부분만을 가려내십시오. 혹자는 여러분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잘못을 범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국 여러분까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도록 허락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그분 곧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빛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완전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Q ‘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에서 발행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도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A 두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예수안에’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공개질의서³²⁾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www.KeepBible.com>에 들어가 우측 상단의 전체 게시글 검색에서 ‘공개질의’라고 넣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서의 역자는 미국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1986년경에 처음으로 미국의 Chick 출판사(www.chick.com)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뒤 1992년 2월에 귀국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말씀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단체의 설립자인 이송오 대표가 매우 과격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번은 저와 영어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원서 몇 권을 구입하러 말씀보존학회에 갔다가 판매하는 직원에게 저와 함께 영어성경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송오 대표가

32) 이 공개질의서는 포천성경침례교회의 홍성률 목사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오더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책상 위로 내던지면서 너희가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면 이 구절을 한 번 해석해 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렉크맨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킹제임스 성경』 문제를 의논하였고 또 그분은 자기의 모든 책을 번역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송오 대표가 렉크맨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기에 렉크맨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에 학회 참석차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펜사콜라를 방문해서 렉크맨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송오 대표가 만든 『새 성경』을 보여 주고 거기 있는 한국 여자 분에게 『새 성경』 표지 안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공인 본문』 — 말씀 보존학회는 이를 『그리스어 표준 원문』이라 부름 — 에서 번역되었음’을 보여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사실만을 지적했으며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도 거의 없었고 그 날 저녁에 그의 교회로 가서 펜사콜라 성경 학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강의를 두 시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렉크맨의 성경학교 즉 PBI는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갔다온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밤에 운영하는 비인가 신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인가 받은 신학교를 다녀야 훌륭한 목사나 전도자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에 저는 PBI의 많은 학생들이 — 제가 갔을 때는 150명 정도였음 — 어려운 가운데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FBI가 엄청난 학교인 것처럼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 이후에 하루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 너 혼 좀 나 볼래, 니네 학교 이사장이 조○○이지. 한 번 가서 너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할까?” 등등 이송오 대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다.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출간하는 월간지에 제 이름을 올려 마치 제가 엄청난 이단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송오 대표는 너무나 많은 형제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을 구사하여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대안이 없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굳게 참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잡지 등을 통해 저나 다른 사람들 — 대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말씀보존학회에 남아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난 용기 있고 훌륭한 형제들 — 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판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자기 잡지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대안이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글이나 상소리를 접하지 않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말씀보존학회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보존학회의 행동을 종합하자면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보존학회는 오래 참지 아니하며 친절하지 아니하며 말씀보존학회는 시기하며 말씀보존학회는 자랑하며 우쭐대며 무례히 행동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며 쉽게 성내며 ….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아마 여섯 차례가 넘는 것으로 기억됨). 그들의 주장대로 그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이미 지난 10년 사이에 최종 권위가 여섯 차례나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출간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최종 권위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극 아닙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편 뒤 그 최종 권위를 막 뜯어고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최종 권위는 언제나 최종이 될는지 참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대본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성경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독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추후에 바른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진실을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종류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몇 구절에 나오는 사랑과 마귀는 진한 명조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love’와 ‘charity’ 그리고 ‘the devil’과 ‘devils’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모두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랑은 ‘charity’를 번역한 것으로 보통 다른 곳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love’와는 다릅니다. 심지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조차도 ‘charity’를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구분 가능하나 우리말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표기할 때 진한 명조로 하여 차이가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 역시 진한 명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유일한 사탄 마귀를 ‘the devil’로 표현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한편 사탄 마귀 수하의 ‘devils’가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말은 ‘다이모니온’입니다.

그리스말은 다르지만 영어에서 같은 단어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듯이 ‘많은 신들’(gods)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속성이 ‘God’과 비슷하지만 ‘God’보다는 못합니다. 마귀들도 ‘유일한 마귀’(the devil)와 비슷하지만 ‘the devil’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또 그

리스말의 ‘다이모니온’은 우리말의 귀신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사후 영이 ‘다이모니온’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이단 교리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 성경으로 삼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이 들어 있는 단어가 쓰일 수 없었고 그래서 ‘다이모니온’을 ‘devil’로 표현해서 이교도들의 미신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demon’의 용례를 찾아보면 실제로 1706년 전에는 현대 역본에서 ‘demons’로 나오는 존재들이 성경 용어로 쓰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간혹 ‘demon’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은 항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것이 ‘demon’의 1차적 용례입니다. 그러므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에 분명히 ‘demon’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성경 역자들은 ‘다이모니온’을 ‘demon’이라 하지 않고 ‘devil’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devils’를 그리스 시대의 불신자의 사후 영 — 국내의 베뢰아 이단과 같이 — 이나 신화적 존재로 생각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마귀 즉 그리스말로 ‘디아볼로스’로 표현된 곳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진한 명조체로 표시한 것입니다. 아마도 대안으로는 ‘마귀’ (the devil)와 ‘악귀들’ (devils)로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왜 같은 단어를 통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므로 현재는 진한 명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Q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판권이 없는데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판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판권이 있습니다. 1999년 3월 5일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성경 출판부 담당자인 라이트(Christopher Wright)가 발표한 글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리는 영국 왕(혹은 왕실)의 특권이며 지금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의미의 판권이 없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온 세상에 퍼졌으므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판권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맞으며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슈를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판권이 없는데 왜 그것을 번역한 한글 성경에는 판권이 있느냐고 따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권을 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금전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것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의 판권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하여 금전적 이유 때문에 판권을 둔 것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본문을 가감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본 성경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글에 인용하는 경우 진한 고딕체와 이탤릭체는 살려서 본 성경의 취지를 반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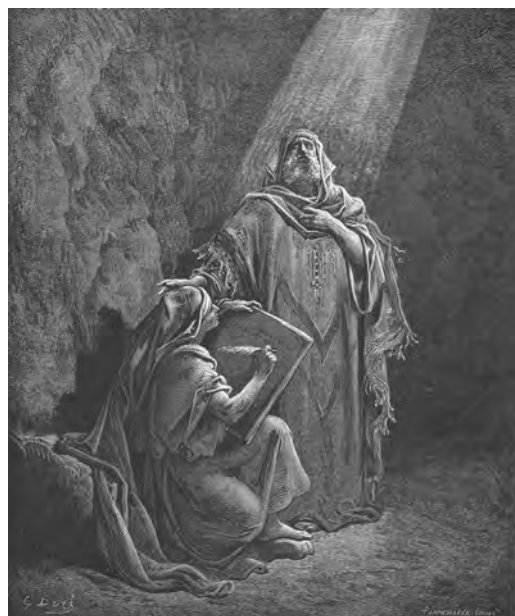
본문의 일부나 전부를 책이나 전자물 형태의 성경으로 출간/게재하는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 함.

이런 글을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판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판권을 둔 것은 사실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작업이 완료될 즈음 평소 안면이 있던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성경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성경의 구약 부분을 공유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과 저희의 구약성경을 합쳐서 성경전서를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일하기 위해 구약의 몇몇 용어들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특정 용어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런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경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기존의 질서를 허무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판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파일을 받아다가 단지 몇 가지 용어만을 고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성경을 출간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크리스천들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해서 자기 교리에 맞도

록 몇 단어들만을 엉뚱하게 바꾸어서 그 성경 전체를 자기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이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 역본을 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판권을 둔 목적은 바로 이런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 적고 있는 바룩(구스타프 도레)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세대주의자들의 성경이 아닙니까?

A 아닙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특정 신학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문을 바꾼 곳이 없으며 본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역자는 개인적으로 세대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는 결코 인류 역사를 몇 세대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의미에서 세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흠을 내기 위해 마치 『흠정역 성경』은 세대주의라는 신학에 맞춘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번역자가 자신의 신학과 사상에 맞추기 위해 본문을 과감하게 뜯어고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번역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신학적 배경 위에서 번역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최종 작품에 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본문의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희의 신학적 입장에 그 본문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본문 중에서 영어 본문은 그렇지 않은데 한글 번역을 세대주의 신학(혹은 기타 특정 사상)에 맞추어서 번역했다고 느끼시는 구절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지 함께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신학은 본문 다음의 문제이며 본 성경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결코 신학에 맞추어서 본문을 번역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신학을 세우려고 본문을 바꾸었다면 그는 곧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 라킨과 러크맨의 설명대로 처음에는 창세기의 재창조 신학 이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 그런 용례를 지지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곧장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저의 신학을 뒤로하고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이런 원칙 아래에서 번역되었음을 밝힙니다.

특정 신학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다음의 예가 잘 보여 줍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모든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분의 왕국 밖으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권위역 마 13:41-42)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킹제임스 흠정역)

The Son of man shall send forth his angels, and they shall gather out of his kingdom all things that offend, and them which do iniquity; And shall cast them into a furnace of fire: there shall be wailing and gnashing of teeth. (KJB)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졌으되 행위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

은 천년 왕국 동안 왕국 밖으로 쫓겨나서 통곡하고 이를 간 뒤에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밖으
로’ (without)를 첨가한 『권위역 성경』의 경우 그런 교회의 교리적
입장이 번역에 의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
다. 영어는 ‘out of his kingdom’으로 되어 있으며 『흠정역 성경』
은 이를 그대로 ‘왕국에서’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곧
특정 신학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변개시킨 좋은 예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은 결코 왕국 밖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자들을 왕국에서 거두어 ‘내어’ (out of) 불에 즉 지옥
에서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화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부분을 단 한 군
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으
며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따라 단지 보상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결코 특정 신학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 사실로 발견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다음에 수정해
서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창조인가요? 재창조인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주장하는 ‘간극 이론’은 무엇입니까?

A 그리스도인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생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는 일은 참으로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경 사건들의 연대를 담고 있는 주석 성경들조차도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는 대개 연대를 빼고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부터 연대를 넣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 유대/기독교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에 근거하여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생성 연대가 6,000년쯤 된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까지는 불신자들조차도 흠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나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18세기 후반 들어 인본주의/이성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진화론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특별 창조 등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조롱하는 자들은 만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계속된다는 균일론을 주장하며(벧후 3:3) 우주의 생성 연대를 약 6,000년에서 수십 억 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가공할 만한 진화론의 위력 앞에 기독교는 무기력하게

대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존재, 사람의 타락, 사람의 구속(救贖), 마귀의 진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등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의 시작이 언제 인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보통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뜨겁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주 생성에 대하여 진화론자들의 몇십억 년 주장과 성경의 몇천 년 주장을 조화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은 소위 ‘간극 이론’(Gap theory) 혹은 ‘창조-파멸-재창조 이론’으로 불리는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말부터 거의 한 세기 동안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이 창조론을 지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 이론은 그 당시까지 우주의 생성 연대가 매우 짧음을 보여 주는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나온 것이며 1960년대 이후에 헨리 모리스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한 창조 과학자들이 우주의 생성 연대가 수천 년뿐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면서부터 크리스천 서클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지금은 소수의 구세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이 더 이상 ‘간극 이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피터 럭크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간극 이론’을 마치 확고한 성경 교리로 가르치면서 이 이론을 믿지 않으면 성경 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극단적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운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의 ‘replenish’라는 단어를 ‘다시 채우다’로 번역하여 많은 혼동을 일으켰으며 또한 보수 장로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식한 언행을 일삼고 극단적으로 ‘간극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간극 이론’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

로 여기고 있으며 온 힘을 다해 이 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극 이론’은 영어, 교리, 과학적 데이터 등에서 수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 가정에 지나지 않으며 21세기에는 도저히 그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설입니다.

역자 역시 1985년경에 미국에서 클라렌스 라킨(Clarence Larkin)의 『세대적 진리』(*Dispensational Truths*)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s*, (『다시 보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역자가 번역하여 도서출판 ‘두루마리’에서 출간했음.)라는 책을 접하고 어찌나 즐겁게 그 책들을 읽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라킨이 ‘간극 이론’으로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창조-파멸-재창조’ 과정을 묘사하고 성경의 마귀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루시퍼 홍수 때에 지구가 파멸되면서 그들이 몸을 잃은 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을 때 참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라킨을 사랑하며 ‘간극 이론’을 빼고는 그의 책만큼 성경을 잘 다룬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렉크맨 역시 라킨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간극 이론’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렉크맨은 천재이며 다재다능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요소들 —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 과 및 자유주의자들과 자기 맘에 안 맞는 근본주의자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것은 — 그의 책의 삼분의 일 정도는 남을 욕하는 것임 — 저도 매우 싫어하지만 그분의 성경 공부 주석이나 다른 책에는 남이 전해 주지 않는 훌륭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저는 ‘간극 이론’을 확산시킨 매개체 역할을 한 『스코필드 성경』도 주석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필드와 라킨과 렉크맨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 문헌을 보았고 영어 사전의 변천 과정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간극 이론’의 폐해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결심하고 그전까지 믿고 있던 ‘간극 이론’을 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러크맨 세대 — 약 70세 이상된 세대 — 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간극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므로 바른 지식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틀린 것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말씀보존학회의 지대한 공헌으로 말미암아 이미 미국에서 다 사라져 버린 ‘간극 이론’의 끝물을 맛보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판매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왜 거기 나오는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하지 않고 ‘채우다’(충만하라)로 번역했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영대역 성경을 내느라 여유가 없어서 답변을 못 했으며 이제는 여러 질문에 대해 합당하게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간극 이론’과 ‘replenish’ 등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간극 이론’의 역사와 변천 과정, 신학적 폐해 등에 대해서는 저의 절친한 친구 제이 볼란(Jay Bolan)이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변증학 과목의 ‘term paper’로 제출한 논문이 아주 좋은 자료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참고문헌과 함께 이 이론의 폐해 등을 잘 묘사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www.KeepBible.com에서 볼 수 있음). 이 논문을 번역하면 좋겠지만 아주 쉬운 영어로 쓰여 있으므로 ‘간극 이론’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영어 본문 자체를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서 ‘간극 이론’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만

을 설명하겠습니다.

1. 영어 ‘replenish’ 에 대하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하니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민중서관, 동아 출판사 등에서 나온 영한사전을 뒤적여 그 뜻을 찾고 그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도 대개 큰 문제는 없지만 성경의 중요 단어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중서관의 「에센스 사전」이나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있는 영한사전에 가서 ‘replenish’의 뜻을 찾으면 첫 번째 뜻이 ‘채우다’ 이고 두 번째 뜻이 ‘다시 채우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re’는 ‘다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뜻을 무시하고 두 번째 뜻이 맞겠거니 하며 별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replenish’는 ‘다시 채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말씀보존학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대하면 거기에 ‘다시’라는 말이 없으므로 역자들이 큰 실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를 넣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참으로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20세기 영어 사전을 가지고 17세기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oaf’ 하면 우리는 ‘덩어리’하고 생각하지만 17세기의 용례는 ‘loaf’가 그냥 빵입니다. 또한 ‘wheat’은 ‘밀가루’ 혹은 ‘밀’이라고 생각하지만 17세기에는 이 단어의 일차적 용례가 ‘알곡’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의 경우 “자신의 알곡(his wheat)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로 해야 맞으며 “자신의 밀

은 모아 …”로 하면 오역이 됩니다. 역자 역시 예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의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7세기 영어 단어의 용례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영어 사전 중 가장 방대하고 단어의 어근과 기원을 자세히 보여주며 시대별로 영어 단어의 변천을 잘 보여 주는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전은 어떤 특정한 신학/사상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뜻을 적어 놓았으므로 가장 객관적으로 영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근원과 변천 과정, 시대별 용례를 파악하지 않고 20세기 영어 사전으로 17세기 초에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볼 경우 특별한 구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니다.

그러면 「옥스퍼드 사전」은 ‘replenish’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옥스퍼드 사전의 ‘replenish’ 용례

I.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용례 : In pa. pple., denoting a condition or state.

1. 물건이나 짐승이 충만히 차 있다 : Fully or abundantly stocked with things or animals(용례가 1340년부터 나옴)
2. 가득 차 있다 : Filled, fully imbued, pervaded or possessed, with some quality or condition. Obs.(용례가 1374년부터 나옴)
3. 물질적으로 사물, 사람 등이 가득 차 있다 : Physically or materially filled with some thing or things, people, etc.(용례가 1490년부터 나옴)

4. 충만한 : Full, made full, of something. Obs.(용례가 1400년부터 나옴)

II. 보통 타동사로 쓰이는 용례 : In ordinary transitive uses.

5. 가득 채우다 : To make full of, to fill, to stock or store abundantly with, persons or animals. = fill v.
5.(용례가 1386년부터 나옴)
6. 차지하다 : To occupy(a place) as inhabitants or settlers, to inhabit; to people. Obs.(용례가 1400년부터 나옴)
7. 음식 등으로 채우다 : To fill with food; to satisfy, satiate. Also transf. and fig. Obs.(용례가 1450년부터 나옴)
8. 무엇인가로 채우다 : To fill(a place or space) with something. = fill v. 1. Obs.(용례가 1477년부터 나옴)
9. 다시 채우다 : To fill up again; to restore to the former amount or condition.(용례가 1612년부터 나옴)

■ 요약

「옥스퍼드 사전」은 두 가지 용례로 ‘replenish’를 설명하면서 각 용례에 대해 처음으로 문헌에 이 단어가 나타난 연도를 보여줍니다. 어느 사전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그 단어의 근본 어의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분명하게 ‘replenish’의 근본 어의가 ‘채우다’임을 보여 주며 그 뜻을 가진 많은 용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용례는 많아서 생략했고 처음 나오는 연도만 발췌했음). 맨 마지막 뜻으로 ‘다시 채우다’가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1611년 이후이고 그 용례

도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옥스퍼드 사전」만 그런가 아니면 18-19세기의 다른 사전도 그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적 참고자료인 「옥스퍼드 사전」 다음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사전은 미국 영어 사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입니다. 웹스터는 매우 독실한 신자였으며 그가 1828년에 출간한 영어사전 초판은 미국 영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200년 동안 영어가 정착되면서 과연 웹스터 시대의 사람들은 ‘replenish’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웹스터 사전」 초판(1828년 출간)은 특히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 뜻에 해당하는 『킹제임스 성경』 구절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 1828년 웹스터 사전 초판의 ‘replenish’ 용례

I. 타동사 : REPLEN’ISH, v.t. [L. re and plenus, full.]

1. 채우다 : To fill; to stock with numbers or abundance.
The magazines are replenished with corn. The springs are replenished with water.

용례: 창세기 1장 28절 :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Gen.

2. 끝내다(더 이상 사용 안 함): To finish; to complete.
[Not in use.]

II. 자동사 REPLEN’ISH, v.i(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다). To recover former fullness.

■ 요약

「웹스터 사전」(초판)은 ‘replenish’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타동사로 쓰일 때 그 뜻이 ‘채우다’임을 분명히 보여 주며 더욱이 ‘채우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의 용례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사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있지만 창세기 1장 28절은 타동사이므로 그 뜻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전이란 항상 그 뜻이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것과 다른 의미로 한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사전은 당연히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단어로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려고 새로운 뜻을 사전에 담기 시작합니다. ‘replenish’ 역시 이런 변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replenish’의 뜻을 보여 주자 ‘간극 이론’을 추종하는 한 분이 ‘1913년도에 나온 웹스터 사전’을 제게 보여 주면서 거기의 첫 번째 뜻이 ‘다시 채우다’(1. To fill again after having been diminished or emptied; to stock anew; hence, to fill completely; to cause to abound.)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828년에 나온 「웹스터 사전」 초판과 「옥스퍼드 사전」의 용례를 보여 주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13년도 경에는 ‘replenish’라는 단어가 ‘다시 채우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진화론과 맞서기 위해 창세기 1장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사회가 그와 같은 의미를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우다’와 ‘다시 채우다’가 둘 다 쓰이고 있으며 우리의 영한사전들 역시 ‘채우다’를 먼저 놓고 그 뒤에 ‘다시 채우다’의 의미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을 통해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1611년경에는 ‘replenish’가 ‘다시 채우다’로 쓰이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채우다’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의 용례만 이것을 뒷받침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내장 사전’ (a built-in dictionary)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문맥에서 쓰인 단어들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면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일 리플링거가 지은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KJB)라는 책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 1:22)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fowl multiply in the earth.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창 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이 두 구절은 같은 문맥에서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or replenish) …”라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은 ‘fill’ 이니까 창조이고 28절은 ‘replenish’ 이니까 재창조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문맥이며 심지어 히브리어도 두 구절이 동일합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장 사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28절의 ‘replenish’가 22절의 ‘fill’과 같음을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만이 주는 ‘내장 사전’ (Built-in dictionary)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replenish’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의 용례로 보나 성

경 ‘내장 사전 기능’에 의한 용례로 보나 그 뜻이 ‘채우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히 채우라’는 뜻이며 뒷부분을 우리말답게 표현하면 ‘땅에 충만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역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 영어 ‘become’ 의 용례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첫 부분 즉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에 나오는 ‘was’가 상태를 나타내는 ‘was’가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ame’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가 아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게 되었다.”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창세기 1장 2절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파멸을 나타내며 이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 형태가 없고 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이 ‘was’라 말하지 ‘became’이라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어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was’에 상응하는 원어가 ‘became’으로 번역된 창세기 19장 26절을 들고 나와 창세기 1장 2절이 사실은 상태를 나타내는 ‘was’가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ame’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이고 싶은 대로 늘일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간극 이론’이 성립되려면 창세기 1장 2절이 주어와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술어로 구성된 ‘동사구’(verbal clause)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구절은 주어와 명사 술어로 구성된 ‘명사구’(noun clause)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런 ‘명사구’는 상태를 나타내지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사구’는 어떤 용례로 쓰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명사구’의 용례가 매우 많이 나오므로 그런 용례들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명사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형태의 ‘명사구’는 어떤 행동이 잠시 멈추어진 것을 의미하며 보통 ‘이접적 구절’(disjunctive clause)이라 불립니다.

먼저 ‘이접적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창세기 1장의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뒤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 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 3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창세기 1장 1-3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하늘과 땅(지구)을 창조하셨으며 3절에 들어가면서 다른 일을 하시기 전에 2절에서 땅(지구)의 상태가 어떤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접적 구절’은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 예 1

-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월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12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창 2:11-14)

- 11 The name of the first is Pison: that is it which compasseth the whol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12 And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there is bdellium and the onyx stone.
13 And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Gihon:

여기서는 두 번째 강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월라 땅의 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런 ‘이접적 구절’ 다음에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 여섯째 날의 일을 설명하기에 앞서 단순히 1장 2절에서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예 2

-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동하는 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그 사람이 속히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라.
15 이제 엘리는 구십팔 세더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이르되, 나는 군대에서 나온 자니이다. 내가 오늘 군대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삼상 4:14-16)

- 14 And when Eli heard the noise of the crying, he said, What meaneth the noise of this tumult? And the man came in hastily, and told Eli.
15 Now Eli was ninety and eight years old; and his eyes were dim, that he could not see.
16 And the man said unto Eli,

여기서도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에 앞서 엘리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예 3

3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4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욥 3:3-4)

So Jonah arose, and went un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 great city of three days' journey.

And Jonah began to enter into the city a day's journey.

여기서도 요나가 다음 행동을 하기에 앞서 니느웨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접적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의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과 요나서 3장 3절의 “Nineveh was an exceeding great city”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것들 —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는 땅, 요나서에는 니느웨 — 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요나서 3장 3절의 ‘was’를 취하여 ‘became’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니느웨는 … 큰 도시가 되었더라.”로 되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을 상태로 받아들여야지 — ‘was’를 그대로 ‘was’로 — 존재하지도 않은 시간의 간극을 도입하기 위해 시간의 변화로 — ‘was’를 ‘became’으로 —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3. 영어 'without form and void' 의 용례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without form and void)가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지구가 파멸되어 형태가 없고 공허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접적 구절’을 이해하면 이런 주장을 쉽게 일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without form and void)는 아직 땅(지구)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땅(지구)에 식물, 동물, 물고기, 새, 사람 등을 채워 넣지 않았으므로 땅(지구)이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구가 아직 육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곧장 이사야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 등으로 달려가서 반론을 펴려고 하지만 이 두 구절은 문맥상으로 보아 분명하게 주의 날의 심판을 가리키며 그들이 원하는 바 즉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창세기 1장의 가상적 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멸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4. 간극 이론은 성경의 교리와 배치된다.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수십 억 년이 넘는 시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도입하여 성경이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헛된 것에 맞도록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많은 화석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루시퍼 홍수 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곧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이미 식물과 동물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기동 목사를 추종하는 베뢰아파는 이때의 사람들은 영이 없는 존재들로 바로 이들이 네안다르탈인 등의 원시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뢰아파 중 많은 이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중 아담론의 근거를 멋있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창조의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은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 생성된 화석 더미 위를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식물과 동물이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창조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화석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생물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은 무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롬 5:12)

이 세상에 사망이 임한 것은 첫 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전에는 결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화석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다른 종족(Pre-Adamic race)이 살았다고 말하며 이들이 루시퍼 홍수 때 다 죽어 마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로마서 5장 12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첫 사람 아담이며 그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행 17:26). 그런데 ‘간극 이론’은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단 교리를 조장하므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대인도 재창조 같은 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 등을 보아도 인류의 기원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대로 지금부터 6,000년 전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9장 6절에서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같은 것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려 합니다. 한국의 ‘간극 이론’ 지지자들은 창세기 1장 12절에 있는 ‘was’ 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재창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12)

And the earth brought forth grass, and herb yielding seed after his kind, and the tree yielding fruit, whose seed was in itself,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들의 주장은 씨가 이미 ‘그것 속에’ (in itself) 있었으니 재창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문맥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입니다. 여기의 ‘in itself’ 는 ‘열매 속에’ 를 뜻하지 ‘땅 속에’ 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was’ 가 쓰인 것은 시제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맨 앞에 ‘brought forth’ 가 과거로 되어 있으므로 시제를 맞춘 것이며 특히 여기의 ‘was’ 는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앞 구절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the herb yielding

seed, and the fruit tree yielding fruit after his kind, whose seed is in itself, upon the earth: and it was so.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는 시제를 맞추기 위해 'i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is' 역시 이탤릭체입니다. 이것은 곧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말이 통하도록 'was'나 'is'를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간극 이론'을 지지하려고 하면 물이 새나갑니다. 결코 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1)

'간극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구절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를 가리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같은 저자인 모세가 기록한 것이며 이 두 책의 하루는 모세가 살던 시대의 하루 즉 지금의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결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심연의 기간이 있었고 죽음이 이미 존재해서 화석이 형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세기 말 진화론의 거센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근본주의 신자들이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써 생긴 큰 오류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결코 스코필드나 라킨이나 렉크맨 혹은 반하우스 같은 구시대 '간극 이론' 지지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말씀보존학회를 구성한 극단주의자들의 획일적 해석으로 시퍼렇게 멍든 『킹제임스 성경』의 입지를 다시 세우고 성경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김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

니다.

독자 여러분, 스코필드나 라킨 같은 분들을 말씀보존학회 사람들 같이 거친 말이나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은 삶에서 선한 간증이 있었으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훌륭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렉크맨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만일 렉크맨이 말씀보존 학회의 무식하고 비열한 언행을 알았더라면 그 역시 그들을 지독히 멸시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 주어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학 즉 렉크맨주의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학에 앞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쳐서 자기의 주장을 펴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곧장 잘못을 고치고 성경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렉크맨이 그렇게 믿는데 나는 10번도 못 읽었으니 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직접 모신 사람입니다. ‘말씀’(The WORD)이신 분, 바로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른다면 말이 됩니까?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보고 자기 의견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구의 생성 연대가 매우 짧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스도예수안에’ 홈페이지(www.KeepBible.com)에 들어와서 ‘창조와 진화’란에서 ‘지구의 생성 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형제/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Q 창세기 5장과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노아에 대한 기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A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기사를 보면 노아는 아담의 십 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 (대상 1:1-4)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벧후 2:4-5)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 질문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덟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 그리고 이들의 아내들.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올랐다면 그는 여덟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의 문맥은 결코 노아

가 아담의 십 대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은 아예 사본을 뜯어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곱 식구를’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개역성경 뱀후 2:5)

이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들의 말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word)을 보존하십니다.



노아의 방주(구스타프 도레)

Q 작은 숲인가요, 아세라인가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세라를 작은 숲으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까?

A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작은 숲이 나오는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 낼지니라. (출 34:13)

현대 역본 역자들은 이런 구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작은 숲’(Groves)이 오역이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아세라’ 혹은 ‘형상’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작은 숲’ 혹은 ‘나무’를 의미하는 히브리말 ‘아셀’(Ashel)과 ‘복 받은’ 혹은 ‘안내자’를 의미하는 ‘아샤르’(Ashar)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가정과 ‘아샤르’가 아스타르테 여신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현대 역본 역자들은 여기서도 또 틀렸습니다.

첫째, 히브리말에는 형상과 작은 숲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7장 9절을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깨끗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되나니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쳐서 산산조각 난 석회암 같게 하실 때에 작은 숲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 (사 27:9)

만일 현대 역본들이 옳다면 이사야 27장 9절은 “형상들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로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과 2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번역은 낱센스인 것입니다.

둘째, 아스타르테의 이름은 아스다룻이라고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왕상 11:5, 33; 왕하 23:13). 이 여신의 이름은 히브리 알파벳 ‘아인’ (Ayin)으로 시작되며 작은 숲을 의미하는 말은 알파벳 ‘알레프’ (Aleph)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아샤르’가 아스다룻의 어원이란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신명기 16장 21절은 이스라엘이 결코 작은 숲을 심어서는 안 됨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네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신 16:21)

창세기 21장 33절처럼 작은 숲의 나무들을 ‘심는 것’ (plant)은 말이 되지만 형상이나 나무로 된 우상들을 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날에도 신상 주변에 작은 정원이거나 나무로 된 작은 숲을 만드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숲과 형상,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Q 작은 숲(grove)을 심는 것은 가증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작은 숲을 심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A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명기 16장 21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작은 숲을 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 21:33)

네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신 16:21)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숲을 심었습니다. 성경은 작은 숲을 심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숲에게 경배를 드리거나 작은 숲 안에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숲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숲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작은 숲’ (Grove)을 번역하지 않고 ‘에셀’ (Eshel, 창 21:33) 혹은 ‘아세라’ (Asherah)로 음역 처리했습니다.

분명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간단한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를 왜 굳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하지 않고 음역한 것일까요? 물론 뛰어난 원어 실력을 자랑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이유 중 하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가 ‘Groves’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세라’를 대할 때마다 이 단어를 이방 여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1884년에 나온 영국의 『개역성경』(RV)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고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알려져 왔지만 ‘아세라’라는 이름의 여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히슬롭은 『두 개의 바빌론』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과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했지만 ‘아세라’라는 여신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1800년대 이전에는 ‘아세라’가 여신의 이름이라고 알려진 적이 없었으며 공식적인 문서 상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grove’의 정의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small wood; a group of trees affording shade or forming avenues or walks, occurring naturally or planted for a special purpose.

작은 나무;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특별 목적으로 심어져서 그늘을 제공하거나 가로수 길이나 산책로로 형성된 숲.

Groves were commonly planted by heathen peoples in honour of deities to serve as places of worship or for the reception of images.

‘groves’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혹은 우상들을 접대하고자 경배의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분 이교도들에 의해 심겨졌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들이 많은 관목을 심어놓고 또 거기에다 우

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숲은 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Groves’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아니라 관목 등과 같은 작은 나무들을 아름답게 배치함으로 만들어지는 정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Grove’ 혹은 ‘Groves’는 항상 ‘(나무를)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Plant’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창 21:33; 신 16:21).

또한 이 단어는 항상 ‘우상들’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왕상 14:23; 왕하 17:10, 16; 18:4; 23:14; 대하 14:3; 24:18; 31:1; 사 17:8; 27:9).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Groves’ 안에 ‘우상’이 세워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왕상 15:13; 대하 15:16). 그러므로 ‘Groves’는 우상 숭배를 위해 심겨진 ‘작은 숲’을 뜻하며 결코 존재하지도 않은 여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자칭 최종 권위를 자랑하는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또다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십계명(구스타프 도레)

Q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창세기 22장 8절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으로 예비하시리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둘 다 가능하지만 성경의 용례에 따라 전자를 택한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비롯한 여러 사전에서 ‘provide’를 살펴보면 우리의 본문 용례 즉 “provide oneself something”의 용례가 없습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외치는 사람들도 이 구절에 가서는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렉 크맨, 리플링거, 깁 등은 후자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신 것은 어린양이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숫양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이 되실 것을 보여 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절친한 친구 A. 레이시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자 역시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내장 사전’(a built-in dictionary) 기능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성경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를 해

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provide’를 포함하는 구절 중에 ‘provide oneself something’의 용례를 찾아서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성경으로 비교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 다행히도 창세기를 포함해서 성경에 두 번 그 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낚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Sell that ye have, and give alms; provide yourselves bags which wax not old,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faileth not.

이 구절은 정확하게 ‘provide oneself something’ (provide yourselves bags)의 용례를 담고 있으므로 후자처럼 번역하면 ‘너희 자신을 가방들로 예비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성경의 용례를 따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지금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8절을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적어야 하므로 신학이나 학자나 유명한 목사를 따르지 않고 그냥 성경의 용례를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창세기 22장 8절을 논하실 때는 오역(誤譯)이라 하지 말고 이역(異譯)이라 하기 바랍니다.

Q 베냐민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밧단아람입니까, 베들레헴 근방입니까?

A 창세기 35장 16절을 보면 라헬은 분명히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6절은 베냐민이 밧단아람에서 태어났다고 말할까요?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이 베엘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창 35:16-19)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born to him) 자들이니라. (창 35:23-26)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야말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난’으로 번역된 ‘born’이라는 단어는 18세기 중반까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bear’로 가서 43번째 용례를 보

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이후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즉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7절을 보시면 ‘born’이 넓은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있으며 여기서는 분명히 임신한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 21:7)

And she said, Who would have said unto Abraham, that Sarah should have given children suck? for I have born him a son in his old age.

우리말로는 현재완료와 과거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현재완료로 즉 ‘have born’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임신한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오묘합니다.

또한 원래의 1611년 판에는 ‘born’이 아니고 ‘borne’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아기를 배어 지니고 다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경우 베냐민은 밧단아람에서 수태되었으며(born) ‘born’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밧단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거기서 수태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밧단아람을 떠나서 얼마 후 베들레헴 근처에 이르러 그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태된 때부터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성경의 용례가 이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bear’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앞으로 나갑시다.

Q 창세기 49장에서는 벽을 파 내려갔습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까?

A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49장 6절을 예로 들며 『킹제임스 성경』의 ‘벽을 파 내려갔다’ (digged down a wall)가 틀리고 『개역 성경』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가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창 49:6)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개역성경 창 49:6)

포인트(점)가 없는 자음 형태의 히브리말은 위의 두 가지를 다 의미하며 포인트가 있는 자음 형태의 히브리말은 후자를 지지합니다(포인트는 193쪽 그림 (c)를 보기 바람). 그런데 성경기록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그들 곧 시므온과 레위가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34장 28-29절을 보면 그들이 히위 족속의 소들을 취하여 보관하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

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매

또한 창세기 34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성벽을 두른 도시를 노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려면 벽을 파서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모음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포인트를 넣는 작업은 주후 6-7세기에 마소라들에 의해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193쪽 그림 (c) 참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소라들이 넣은 포인트가 영감 받은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의 역본들 역시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들이 성벽을 파 내려간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라이나 성경』(de Reina, 1569), 『발레라 성경』(de Valera, 1602), 『디오다티 성경』(Diodati, 1576-1649) 같은 종교개혁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혹은 같은 시대에 완성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 중 하나인 마일스 스미쓰 같은 사람은 다섯 살에 포인트가 없는 히브리말을 읽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혹은 수천 대까지) 긍휼을 베푸느니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지금의 번역이 원문, 영문, 문맥에 맞는 번역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천 대’ 혹은 ‘수천 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5절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5절 후반부)

…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즉 5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삼사 대까지 간다고 했으니 6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도 수천 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

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원문에도, 영어에도 6절에 ‘세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수천 세대는 맞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영원토록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삼사 대까지만 벌하여 공흠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6절에서처럼 아버지의 은덕으로 수천 세대까지 공흠을 받는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조상 덕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이며 처음에는 사람이 근 1,000년까지 살았음을 고려할 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세대 수는 약 200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수천 세대라면 앞으로도 몇만 년이 더 지나야 할 터인데 과연 조상의 은덕이 몇 만 년까지 간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결코 성경에 있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상상해서 ‘세대’를 집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수천의 사람들’(thousands of them)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흠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렉크맨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렉크맨이 주석서에서 이 구절에 ‘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렉크맨이든 누구든 성경에 없는 것을 넣으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의로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두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다 이해가 안 되면 천국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실수나 오·탈자 등을 발견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 사항도 좋습니다. 성경에 맞으면 나중에 채를 바꿀 때에 교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고의로 성경을 변개시켜 특정 교리를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Q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오소리라는 단어는 오역이 아닙니까?

A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출애굽기 25장 5절과 에스겔 16장 10절 등에서 오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붉게 물들인 솟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출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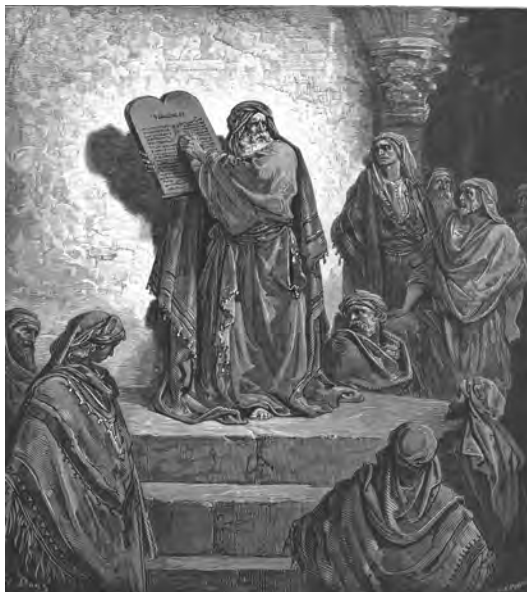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 주고 (겔 16:10)

예를 들어 『개역성경』은 이것을 해달 혹은 물돼지로 바꾸었으며 NIV는 바다소, 가죽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역한 근거는 오늘날 시내 반도에 오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진화론의 균일론적 철학이 신학에까지도 깊이 침투했음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내 반도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벧후 3:3-4)

그들은 진화론에 물들어서 그곳에 한때 오소리가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지역에는 지금도 오소리가 있으며 19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오소리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에스라(구스타프 도레)

Q 민수기 33장 52절의 그림은 오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A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그룹 중 하나는 성서침례교회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의 모임인 ‘Bible Baptist Fellowship’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여전히 세례 성경인 『개역성경』을 고집하며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약 4:17)

국내에 성경 이슈가 크게 번지자 당황한 개신교 학자들과 목사들은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출신으로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두만 박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글을 쓰게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신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분으로부터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바른 교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글을 보면 그의 사상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치 봉급(one year's wage)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1998년 6월과 7월호 「목회와 신학」).³³⁾

장 박사의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부분만 ‘1년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축자 영감’(Verbal or word inspiration)에 대해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근본주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의 단어, 단어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단어, 단어를 보존하시지 단지 뜻만을 보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300데나리온이라 두고 그것이 대략 1년치 봉급이라고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디 근본주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는 일에 도움을 주어 자유주의자들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 박사같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존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학자들이 원본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철학이 다르므로 여러 구절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일 자체가 의미

33) 앞으로 인용될 장두만 박사의 글은 모두 「목회와 신학」에 실린 것임을 밝힙니다.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처럼 ‘믿음의 문제’이므로 아무리 증거를 대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믿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상 문제를 논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 : ... וְאַבְרָהָם אֵת כָּל־מַשְׁכֵּיתָם (민 33:52)

영어 KJV : and destroy all their pictures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그들의 그림을 다 멸하고

한글 개역판 :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마스키트’(מַשְׁכִּית)이다. 브라운-드라이버-브릭스의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show-piece, specifically carved figure of idolatrous symbols”(전시물, 특히 우상적 상징의 새긴 상), “figure”(상) “imagination, conceit”(상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구약 원어 신학 사전」도 ‘마스키트’의 의미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3장 52절은 영어 KJV나 한글 KJV같이 ‘그림’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새긴 상(像)’ 또는 ‘석상(石像)’으로 번역해야 될 것이다. 히브리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어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KJV의 번역을 맹신하는 렉크만은 사람들이 KJV의 ‘그림’이라는 번역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각종 그림이나 TV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스트롱 번호는 4906이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6번 나오며 ‘형상’(image)으로 2번, ‘그림’으로 2번 번역되었으며 나머지 다른 용례로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든지 두세 가지 이상의 뜻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중 어떤 것을 따르느냐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도대체 누가 브라운-드라이버-브릭스의 히브리어 사전과 「구약 원어 신학 사

전」에 최종 권위를 부여했던 말입니까? 이런 사전을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인데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흠정역 민 33:52).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교도들의 숭배 대상을 다 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형상의 그림들을 신전에 걸거나 그려 두고 거기에 경배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에서도 형상과 함께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림과 형상과 산당을 즉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번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영어에서 ‘picture’는 “조각칼 등으로 만든 것을 묘사한 것”이라는 용례도 있습니다(『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두 번째 용례 f항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최종 결과는 그림이며 이는 우리말 큰사전에 있는 그림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완전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사 2:22)

Q 사사기 5장 14절은 글 쓰는 자의 펜이 맞습니까, 대장의 지팡이가 맞습니까?

A 이 문제는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번역자들이 고의로 저지른 실수를 보여 줍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 글 쓰는 자의 펜이 맞습니다. 먼저 대상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스볼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삿 5:14)

1884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영국개역성경』을 내면서 ‘글쓰는 자의 펜’을 삭제하고 ‘대장군의 지팡이’로 대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발견된 고고학 자료인 ‘텔아르마나 서판’이 사사기 시대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경의 일부를 기록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 사람들이 펜으로 글을 썼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왔지만 현대 역본들은 여전히 이 구절을 제대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개역성경』은 ‘대장군의 지팡이’로 번역한 뒤 각주에 히브리말로는 ‘기록하는 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말이 ‘글 쓰는

자' 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번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당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지은 피라미드를 보기 바랍니다. 현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으려면 계산을 하고 도면을 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글을 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고고학적 발견 때문에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Q 골리앗의 동생입니까? 골리앗의 아들입니까? 사무엘기하 21장 19-22절과 역대기상 20장 5-8절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A 현대 역본 역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이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여섯 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여섯 개로 개수가 스물네 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 태어났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삼하 21:19-22)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여전히 가드에서 다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스물네 개로 손과 발마다 여섯 개씩 있더라. 그도 그 거인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대상 20:5-8)

역대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이상하게 그는 또한 ‘골리앗에게서 태어난 자’로 기록되어 있음

니다. ‘어떻게 동생이 아들이 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함 족속이 늘 근친상간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해 쉽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중한 명령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
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레 20:11)

다시 말해 골리앗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 아들들을 낳았으므로 그들은 그의 동생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골똘히 생각해야지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끝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역자들이 사무엘기하 21장 19절에서 ‘의 동생’ (the brother of)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첨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NIV와 NASV는 이 구절에서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NIV)

이렇게 되면 성경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역대기상 20장 5절은 분명하게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구절에서는 ‘the brother of’가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이 있는 성경을 허락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역대기상 20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the brother of’를 첨가하고 정직하게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탤릭체로 표시된 구절들이 현대 역본들의 정자체로 쓰인 기록보다 훨씬 더 정확하며 신뢰할 만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개역성경』은 이런 구절들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Q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오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A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장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문제라고 지적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 ומוצא הסוסים אשר לשלמה ממצרים ומקורו

영어 KJV : And Solomon had horses brought out of Egypt,
and linen yarn.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베
실이 있었으니

한글 개역판 :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 왔으니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קוֹר (‘크베’)라는 단어이다. 영어 KJV와 한글 KJV는 이 단어를 ‘베실’이라고 번역했고 한글 개역판은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사실 1611년경에는 고대의 지리나 종교에 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베’를 ‘베실’로 번역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러나 오늘날 ‘크베’(또는 쿠에)는 지리적 이름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NASB나 NIV는 ‘쿠에’(Kue)라는 지명으로, NKJV는 ‘케베’(Kevah)로 번역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 역본들이 만들어 내는 혼동을 보고 있습니다.

반격 재료가 모자라자 이제 현대 학자들은 음역과 번역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구약성경에서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거의 대부분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이름이나 장소가 나오면 번역을 해야 할지(KJV처럼 아마 실로) 혹은 음역을 해야 할지(NKJV처럼 케베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결정은 문맥에 좌우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Pensacola)라는 도시는 스페인 말로 ‘다섯 개 별’(Five stars)을 뜻합니다. 자 거기 사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을 만나서 “나는 펜사콜라에서 왔습니다.”(I am from Pensacola)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펜사콜라에서 왔습니다.”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다섯 개 별에서 왔습니다.”로 생각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히브리말에서도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크베’ 역시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 역본들은 이 단어를 장소로 음역 처리해서 솔로몬이 구매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가 구입한 것이 말과 병거 등임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아마 실’은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하므로 새 역본 역자들은 이 단어를 장소로 음역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흠정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 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에 아마 실을 받았으며 (흠정역)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를 ‘아마 실’로 번역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크베’(Keveh)는 ‘모은다’(to gather)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실’ 즉 ‘린넨 실’은 아마 섬유를 ‘모은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아마포를 만듭니다. 사

실 이집트는 아마포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네(두로)가 이집트에서 들어온 수놓은 제품과 고운 아마포를 넓게 펴서 네 옷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들에서 들어온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너를 덮게 하였도다. (겔 27:7)

하나님께서서는 신명기 17장 16-17절에서 왕이 되는 자는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말과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왕상 11:1)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들어온 말과 병거는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마 실은 그의 아내들 특히 파라오의 딸을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이 이를 지지하므로 현대 역본들처럼 음역을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1611년경에는 고대의 지리나 종교에 관해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주장 또한 거짓입니다. 이 단어를 ‘크베’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라틴 별게이트』와 『70인역』에 근거한 것으로(아담 클락의 주석서 참조) 1611년 번역 당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산물인 이런

자료들의 허구를 잘 알고 있는 역자들은 신빙성 없는 이런 자료를 단호히 배격하고 문맥에 맞게 이를 ‘아마 실’로 번역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현대 학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음역과 번역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마를 베로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아마 즉 ‘린넨’은 아맛과에 딸린 한해살이풀이며 베는 삼(Hemp)에서 만든 것입니다.

Q 느브갓네살인가요, 느브갓레살인가요? 왜 『킹제임스 성경』은 동일 인물의 이름을 달리 표기합니까?

A 성경에서 느브갓네살이라는 이름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며 느브갓레살은 예레미야서 21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의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왕하 24:1)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니 원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니라. (렘 21:2)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동일 인물에 대해 느브갓네살은 60회, 느브갓레살은 31회 나옵니다. 흥미 있는 것은 느브갓레살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편 느브갓네살은 열왕기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다니엘서에 나오며 예레미야서에도 10회나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바빌론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부주의하게 느브갓네살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지만 영어 KJV 번역자들은 두 종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신실하게 히브리말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에 대해 두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헨슨 교수(James N. Hanson)가 가장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난 몇백 년간의 주석서들을 비교하고 각각의 이름이 나올 때의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 그는 느브갓네살은 ‘고귀한 보호자’를, 느브갓레살은 ‘고귀한 종’을 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느브갓레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도구로 쓰일 때 사용되었고 느브갓네살은 단순히 그의 역사적 행보를 기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느브(Nebu) : 느보를 가리키며 바빌론의 태양신처럼 고귀한 존재를 나타냄.
- 갓(chad) : 갈대아를 줄인 말로 바빌론의 제사장 계급을 뜻함.
- 네(nez) : 보호자
- 레(rez) : 종
- 살(zar) : 왕(러시아의 짜르, 카이사르 등이 같은 어원임)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시편 1편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다 ‘악인’으로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사본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왜 이처럼 다른니까?

A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Blessed is the man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 The ungodly are not so … the ungodly shall not stand in the
judgment …

다시 말해 여기서 성경은 악인 즉 ‘The wicked’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경건이란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odly’란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혹은 ‘하나님을 닮은’이란 뜻입니다. 한글 우리말 큰 사전은 ‘경건(敬虔)하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는 태도가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Godly’란 단어를 우리말로 그 뜻을 살려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경건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다음 구절에서처럼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닮는 일’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Godly’의 반대는 ‘Ungodly’가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딤후 4:8)

그러면 시편 1편이 가리키는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까? 악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도 견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자의로 해석하여 악인으로 해 놓으면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확고한 지지자인 렉크맨 박사가 이렇게 제멋대로 번역된 구절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결코 고의로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저희의 한계로 인해 잘못 보거나 번역한 경우에는 지적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추후에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 2:17)

혹시 잘못된 것 같은 구절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고치겠습니다.

Q 이사야서 65장 1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갓’을 ‘군대’로 ‘므니’를 ‘수’로 오역하지 않았습니까?

A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장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문제라고 지적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 לַגֹּד שְׁלֹחַן ... לִמְנֵי מִמְשַׁד

영어 KJV : But ye are they that forsake the LORD, that forget my holy mountain, that prepare a table for that troop and that furnish the drink offering unto that number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한글 개역판 :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므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두 단어는 가드(גֹּד)와 므니(מְנֵי)라는 단어이다. KJV에서는 ‘가드’를 ‘군대’로 ‘므니’를 ‘수’(數)라고 번역하여 문맥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고대의 종교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오역이 가능했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오늘날 밝혀진 바로는 바빌론이나 수리아에서 ‘가드’는 ‘행운의 신’(god of fortune)을 ‘므니’는 ‘운명의 신’

(god of destiny)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백성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번역은 KJV와 사뭇 다르다. NKJV는 ‘가드’ (Gad)와 ‘므니’ (Meni)를 번역하지 않은 채 남겨 놓았고, NIV나 NASB는 ‘행운의 신’ (Fortune), ‘운명의 신’ (Destiny)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한글 개역판은 NKJV와 같이 ‘갓’, ‘므니’라고 함으로써 오역의 실수는 범하지 않고 있다.

히브리어를 음역하느냐, 번역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갓’과 ‘므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단어 중 하나인 ‘갓’ (스트롱번호 1409)은 이 구절 말고도 창세기 30장 11절에 나옵니다.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흠정역)

And Leah said, A troop cometh: and she called his name Gad (KJV)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개역성경)

Then Leah said, "A troop comes!" So she called his name Gad (NKJV)

Then Leah said, "How fortunate!" So she named him Gad (NASV)

여기서 『뉴킹제임스역』(NKJV)은 ‘갓’을 분명히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역자들은 도저히 양심상 여기를 NASV나 『개역성경』처럼 ‘운이 좋도다!’라고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이 묘사된 창세기 49장에서 갓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흠정역 창 49:19)

Gad, a troop shall overcome him: but he shall overcome at the last. (KJV)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개역성경)

Gad, a troop shall tramp upon him, But he shall triumph at last. (NKJV)

심지어 『개역성경』도 여기서는 갓과 관련해서 ‘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이사야서 65장 11절의 ‘갓’이 『킹제임스 성경』대로 ‘군대’로 번역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므니’(스트롱 번호 4507)의 경우 성경에서 여기 한 군대만 나오므로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이 단어는 스트롱 번호 4487인 단어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대개 ‘수’ 혹은 ‘수를 세다’는 의미의 ‘number’로 번역되었습니다(창 13:16; 삼하 24:1; 대하 5:6; 사 65:12 등).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이사야서 65장 11절에서 ‘갓’처럼 ‘므니’도 ‘수’로 잘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대 역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 대상이 ‘갓’과 ‘므니’ 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이 섬긴 이방 신들이 군대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번역을 하느냐, 『개역성경』처럼 음역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처럼 번역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역을 해도 해석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고치지 않고도 매튜 헨리처럼 있는 그대로 다음과 같이 주석을 쓸 수 있습니다.

They prepared a table for that troop of deities which the heathen worship and poured out drink-offerings to that numberless

number of them.

“그들은 이교도들이 경배하던 수많은 신들을 위해 상을 마련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위해 음료 헌물을 부었다.”(매튜 헨리 주석)

성경에 어려운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주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흠정역 사 65:11-12)

But ye are they that forsake the LORD, that forget my holy mountain, that prepare a table for that troop, and that furnish the drink offering unto that number. Therefore will I number you to the sword (KJV)

물론 NKJV도 이사야서 65장 12절에서 ‘nu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1절의 ‘number’와 이사야서 65장 12절의 ‘number’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많은 이방 신에게 경배를 드렸듯이 나도 그렇게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1절의 ‘므니’를 ‘수’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사야서 65장 1절과 함께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히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또 한 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다니엘서 9장 24절은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또 지극히 거룩한 곳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둘 다 가능하지만 성경 전체의 용례에 따라 전자를 택한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to anoint the most Holy”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저 유명한 다니엘의 칠십 이레를 담고 있으며 9장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 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구절은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칠십 이레가 끝나면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지며 ‘the most Holy’에게 기름 붓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the most Holy’를 ‘거룩한 곳’ 즉 장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유명한 성경 교사 라킨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곧 에스겔이 예언한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어떤 것을 대문자로 표현할 때는 대개 신성을 지닌 존재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세 번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이’ (Ancient of days)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즈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석을 봐도 각각 해석이 다르며 이 구절의 ‘the most Holy’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성전 2.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3. 메시아.

메시아로 보는 견해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성전과 예루살렘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어려운 구절이며 단 하나의 번역을 주장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단지 성경의 대문자 용례를 따라 ‘the most High’를 인격체로 번역했으며 다른 분이 이것을 장소로 생각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적어야 하므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성경 전체의 대문자 용례를 보고 이 구절을 인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논하실 때도 부디 오역이라 하지 말고 이역이라 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영대역이 나왔으므로 영어로 읽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 다른 번역도 가능함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번역이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못 됩니다.

Q 십일조를 3일 만에 드릴까요, 3년 만에 드릴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오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A 이 문제 역시 고 장두만 박사가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그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의 경우를 보자.

KJV는 “Come to Bethel, and transgress; at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s; and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and your tithes after three years.”(“벰엘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삼년 후에 십일조를 가져오고” ; NIV도 이탤릭체 부분은 동일함).

NASB는 “Enter Bethel and transgress; in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your tithes every three days”(“벰엘에 들어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삼일 후에 십일조를 가져오고” ; NKJV도 이탤릭 부분은 동일함).

재미있는 것은 KJV는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3일’을 ‘3년’으로 해석했다(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3년’이 아니라 ‘3일’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3일’이라 번역하지 않고 ‘3년’으로 의역했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성도들이 3일

마다 십일조를 가져오면 현대 교회는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 봅시다.

먼저 「스트롱의 성구용어색인」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이 ‘3년’으로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면 색인 번호가 ‘구약 3117’로 되어 있고 이것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도 나와 있습니다.

yowm(yome); from an unused root meaning to be hot; a day(as the warm hours), whether literal(from sunrise to sunset, or from one sunset to the next), or figurative(a space of time defined by an associated term), [often used adverb]:

KJV - age, + always, + chronicals, continually(-ance), daily, ([birth-], each, to) day, (now a, two) days(agone), + elder, X end, + evening, + (for) ever(-lasting, -more), X full, life, as(so) long as(... live), (even) now, + old, + outlived, + perpetually, presently, + remaineth, X required, season, X since, space, then, (process of) time, + as at other times, + in trouble, weather, (as) when, (a, the, within a) while(that), X whole(+age), (full) year(-ly), + younger.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 ‘욥’이 주로 ‘날’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에서나 마찬가지로겠지만 대부분의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며 이 히브리 단어 역시 ‘날’ 말고도 분명히 ‘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용례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밀줄 친 것과 같이 ‘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가 ‘년’으로 번역된 곳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Englishman’s Concordance」를 가지고 있으면 그 책에서 스트롱 번호 ‘구약 3117’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가 쓰인 곳과 번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더더욱 편할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히브리 단어는 거의 대부분 ‘날’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가보니 이 단어가 드디어 ‘년’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f a man sell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e may redeem it within a whole year after it is sold; within a full year may he redeem it.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하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 지 한 해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려니와

여기에도 분명히 동일한 히브리어 ‘욥’이 쓰였지만 그 단어를 ‘날’로 하면 안 되기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은 어떠할까요?

If a man sells a house in a walled city, he retains the right of redemption a full year after its sale. During that time he may redeem it (NIV)

Likewise, if a man sells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is redemption right remains valid until a full year from its sale; his right of redemption lasts a full year (NASV)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한글개역성경)

모든 현대 역본들도 여기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욥’을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의역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그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 ‘년’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

서 정확하게 ‘년’ 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자, 더 확신을 갖기 위해 민수기 9장 22절을 보십시오.

Or whether it were two days, or a month, or a year, that the cloud tarried upon the tabernacle ... (KJV).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 (흠정역).

물론 NIV, NASV, 『한글개역성경』도 동일한 히브리어를 여기서 다 ‘일 년’ 으로 번역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 (한글개역성경)

이제 우리는 문제가 되었던 아모스 4장 4절의 히브리어 ‘욘’ 이 ‘하루’ 로도 번역되고 또 ‘일 년’ 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의 ‘3년’ 과 『한글개역성경』 등을 비롯한 현대역본들의 ‘3일’ 과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에서 십일조가 언급된 구절을 살펴보면 ‘3년’ 마다 한 번씩 드리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3일’ 마다 드리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신 14:28)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네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 26:12).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아모스 4

장 4절에서 ‘3년’ 이라고 바르게 번역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절들로 인해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구절들을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후 5:7)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 동분 서주하는 학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응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Q 아모스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윤’과 ‘렘판’은 동일한 것 같은데 왜 다른 이름으로 나오니까?

A 다음의 두 구절은 몰록의 장막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데 별에 대해서는 기윤과 렘판이라는 상이한 이름이 나오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암 5:26)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 7:43)

사실 조금만 더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렘판은 신의 이름이고 기윤은 그 신의 별의 이름입니다. 기윤의 어근은 ‘확고하다’, ‘단단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구조 중 가장 견고한 구조는 삼각형이며 따라서 기윤은 삼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엇갈리게 겹쳐 놓은 구조 즉 ‘다윗의 별’로 잘 알려진 구조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상징은 유대인들 고유의 상징이 아니고 이교도들의 신의 별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온 세상에 이 별을 가지고 다닙니다.

Q 고래는 포유동물인데 어떻게 ‘물고기’(fish) 즉 어류가 될 수 있습니까? 고래를 물고기라고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A 먼저 대언자 요나와 관련해서 고래와 물고기가 나오는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더라. (욥 1:17)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 12:40)

성경에 따르면 전적으로 물에 사는 창조물은 다 물고기 즉 ‘fish’로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Fish’를 찾아보면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바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물고기 즉 ‘Fish’는 비늘 달린 어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Fish’를 ‘어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채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례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30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래를 ‘Fish’로 즉 ‘물고기’로 부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

은 사람들이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맞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그분께서는 40절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문맥으로 보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부활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요나가 죽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요나서 2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욥 2:2-6)



고래 뱃속에서 부활해서 나온 요나(구스타프 도레)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순서를 바꾸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둘 다 가능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전자를 지지하므로 전자를 택했습니다. 영어 원문은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술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왕인 다윗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머릿속에 이미 신학이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동격입니다. 물론 영어와 원어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오지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동격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중간에 들어 있는 다윗의 자손을 맨 앞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영어나 그리스어에서 한 인물을 동격으로 나열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우리말에서는 앞에서부터 번역하든지 혹은 뒤에서부터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번역할 수 없

으므로 뒤부터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 역시 이런 번역을 지지합니다.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다음에 중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에서 본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에 성도 마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기록하고 있으므로 1절도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번역되어야 합니다.

한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적어야 하므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앞 뒤 문맥을 살펴보고 전체 책의 요점을 머리에 둔 채 적당하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논하실 때도 오역이라 하지 말고 이역이라 하기 바랍니다.

왜 거기 나오는 ‘son’을 아들로 번역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영어 단어 ‘son’은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됩니다. 이 중 문맥에 맞게 자손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son’을 아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daugh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딸이고 어떤 때는 손녀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아들, 딸로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다줍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도 이런 경우는 자손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절의 ‘son’을 자손으로 한 것은 영어나 원어나 우리말 모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주 적합한 번역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들로 번역하면 우리말에서 오역이 될 소지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큼니다. 굳이 아들로 하기 원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라며 영어에는 ‘son’으로 되어 있어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기 바랍니다.

Q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가요, 세계 혹은 계보인가요?

A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맞음을 보여 줍니다. 먼저 대상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 1:1)

이 세상 성경 중에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신약성경 서두에 “세대에 대한 책이라”(The book of the generation)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본들은 『개역성경』처럼 ‘책’을 삭제한 경우가 많고 또한 ‘세대’를 ‘계보’(genealogies) 혹은 『개역성경』처럼 ‘세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그리스 말로 ‘비블로스’이며 영어로는 이 단어가 곧 ‘바이블’ 즉 ‘성경’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선언한 뒤 2절부터 16절까지 단 15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혹은 계보에 대한 책이라면 당연히 책 전체가 족보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은 첫 장에서 단지 15절만 족보를 다룹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족보(계보)를 기록한 책이 아

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대로 마태복음이 세대에 대한 책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세대’(generation)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시편 22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0, 3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시 22:30-31)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씨는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그 씨를 단 한 세대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며, 거듭난 성도들이 이 책을 들고 주 예수님의 의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들(Children)은 있어도 손자들(Grandchildren)은 없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형제입니다. 손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한 세대입니다.

계시록은 어린양의 혼인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들은 다 한 세대로서 모두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마 24:34)

예수님께서서는 33절에서 분명히 제자들(너희)에게 말씀하셨으며 35-42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여기의 세대 역시 그분을 섬기는 씨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사악한 세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대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면 이 사악한 세대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단지 한 세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편 22편만 이 점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5절, 24편 6절, 73편 15절, 78편 6절, 8절, 102편 18절, 112편 2절; 이사야 53장 8절; 예레미야 7장 29절; 마태복음 23장 36절, 24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0절; 누가복음 21장 32절; 사도행전 8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등.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 14:5)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사 53:8)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이 구절들은 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야말로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어색인 즉 ‘Concordance’가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신약성경은 맨 처음에 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도 책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 22:18-19)

신약성경에서 저주가 기록된 곳은 단지 여기뿐입니다. 이 저주는 ‘이 책의 말씀들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자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이 1차적으로는 계시록이라고 믿으며 또 신약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저주는 온갖 종류의 성경 비평가들 곧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경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었다고 주장하면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마귀들렸다.” 혹은 “무식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첫 아담의 세대를 도입하면서 역시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창 5:1)

5장 1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옵니다. 즉 첫 아담의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세대에 속하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오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세대를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14절은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의향만 있으면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아예 뜻을 모르니까 ‘그것을’을 뺐습니다. 여기의 그것은 무엇이며 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왜 이처럼 다른니까?

A 여기의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그 왕국을 ‘그 사실’로 번역하여 오역하였습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13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14 And if ye will receive it, this is Elias, which was for to come.

문제는 14절의 ‘it’이 무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라기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왕국이 임할 때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it’은 무엇입니까? ‘it’은 대명사니까 그 위의 구절들을 보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

습니다. 13절에는 ‘it’ 이 될 것이 없고 12절에 가니 ‘it’ 이 나오는데 그 ‘it’ 은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있는 그대로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라기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곧 침례자 요한이 오기로 한 엘리야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십니다. 이런 중요한 구절을 의역하여 ‘그 사실’ 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번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역하거나 대명사를 풀어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조심해서 잘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말씀보존학회의 친구 렉크맨 박사도 이런 번역을 보면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역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Kingdom of heaven’ 을 ‘천국’ 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오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할 때의 천국은 ‘Heaven’ 이며 ‘Kingdom of heaven’ 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즉 하늘 왕국(Heavenly kingdom)입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Heavenly kingdom’ 을 ‘하늘 나라’ 로 번역하여 마태복음의 천국과 같은 곳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천국과 바울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렇게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천년왕국의 도래를 강조하는 말씀보존학회는 성경에서 왕국을 다 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Kingdom of heaven’ 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왕국입니다. 결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즉 하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라 적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합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위선자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가 위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주 예수님의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임을 아이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마 6:9-13)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4절은 “너희 눈 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사본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왜 이처럼릅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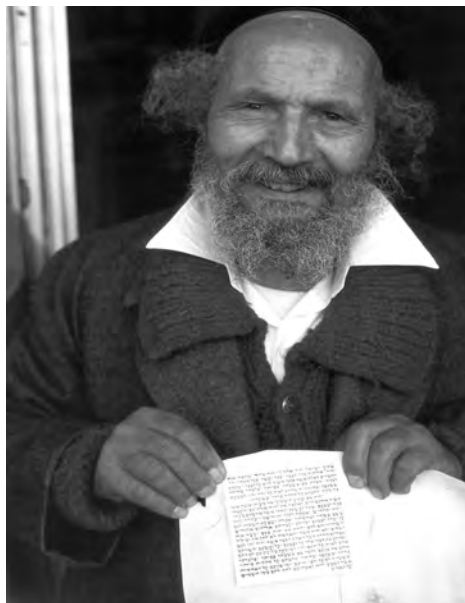
A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하지 않고 원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Ye blind guides, which strain at a gnat, and swallow a camel.

여기서 우리는 영어 본문이 ‘strain at’으로 되어 있지 ‘strain out’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strain’만 있고 ‘at’이나 ‘out’은 없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하여 ‘at’을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로 “저것을 봐라.”하면 “Look at it.”입니다. ‘at’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모기(울법의 작은 것)를 보고는 긴장하고 낙타(울법의 중대한 것)는 꿀떡 삼키고 모르는 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

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비평 등에 영향을 받은 반즈 등이 지은 주석에 ‘strain out’이 맞는다고 하면서 모든 현대 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strain out’ 즉 “모기는 걸러내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말씀보존학회의 친구 럭크맨 박사는 매우 신랄하게 현대 학자들을 비난하며 ‘모기에는 긴장하고’ 즉 ‘strain at’이 맞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럭크맨 박사를 최고 스승으로 모시는 말씀보존학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른 번역이 아니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필사 서기관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의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본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의 침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가 정확한 번역이며 단지 목사나 교사가 이 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이 구절의 영어 원문은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총 두 번 나오며 침례자 요한과 관련되어 단순히 ‘회개의 침례’ (Baptism of repentance)라고 기록된 곳 또한 두 군데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for’ 라는 단어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for’ 도 ‘of’ 만큼이나 간단하면서도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for’ 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eis’ 로 이 단어는 주로 장소를 가리키는 ‘to’ 혹은 ‘into’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마태복음 10장 10절 등에서 “너희의 여행을 위하여”(For your journey) 등에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하여(혹은 위한)”으로 번역하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의 ‘for’ 를 ‘때문에 혹은 인하여’ 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

금처럼 번역하면 “침례를 통해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침례 중생 교리가 생긴다.”라는 것이 지금의 번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영어의 ‘for’는 ‘repentance’를 수식하지 ‘baptism’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은 회개이지 침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길게 풀어서 쓰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로 말미암은(혹은 회개에 기초한) 침례”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르게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렉크맨의 기발한 교리를 들고 나와 구약 시대의 짐승 희생물로 인해 죄들이 사면되었으므로 여기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앞뒤 문맥이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 성경의 용례 또한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의 용례가 나오며 여기서의 ‘for’도 같은 그리스말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피니라.

여기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들의 사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렉크맨의 비상한 생각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희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바른 번역이며 이 구절이 ‘침례중생’ 교리를 가르치지 않음은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끝으로 『개역성경』과 대부분의 현대역본들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등에서 ‘새’(New)라는 중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구약 즉 ‘Old testament’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으므로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신약 시대의 도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새’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신약(새 상속 언약)시대를 부인합니다.

Q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침례’란 단어를 ‘뱃타이즈’(baptize)로 음역을 해서 세례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A 침례교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뱃타이즈’(baptize)란 단어가 쓰인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행하는 자들이므로 ‘물에 담근다’는 의미의 ‘임머스’(immers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묘히 원어를 음역하여 ‘뱃타이즈’로 만들었고 그 결과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얼른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요 3:23)

‘뱃타이즈’라는 단어는 그리스말에서 나왔으면 주후 1066년에 처음으로 영어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영국에서의 침례(Baptism)는 항상 ‘물에 잠기는 침수례’(immersion)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 패트릭(389-465)이나 베너러 블 비드(673-735) 등은 항상 침수례만을 베풀었습니다. 위클리프와 틴데일 역시 자기들의 성경에 ‘뱃타이즈’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단어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의미를 밝혔습

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뱍타이즈’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고안하여 세례를 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유아세례를 주는 영국 국교회(성공회) 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대부분은 국교회 교인이었지만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유아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영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 2세기부터 그들은 오직 물에 잠기는 침례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교회를 세운 헨리 8세나 엘리자베스 1세 등도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조차도 물에 잠기는 침례 이외의 다른 방식 즉 세례 같은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한 1611년경에도 침례는 오직 물에 잠기는 침례 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뱍타이즈’라는 말은 ‘물에 담근다’는 뜻 외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 교도로서 세례를 주장하던 찰스 1세(1625-1649)의 집요한 ‘세례 주장’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644년에 장로교인들이 영국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들은 영국 내에서 침례를 불법으로 만들어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영국 국교회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유아세례를 주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유아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잠긴다’라는 의미의 ‘Immersion’을 쓰지 않고 ‘뱍타이즈’라는 음역된 단어를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뱍타이즈’가 ‘물 속에 잠기는 것’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그 당시에 이미 그 단어가 ‘물 속에 잠기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청교도들이 ‘침례’의 ‘뱍타이즈’라는 단어 대신 ‘씻는다’는 의미의 ‘Washing’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야말로 칼빈주의자들로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으며 『킹제임스 성경』역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침례가 틀리고 세례가 맞았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뱍타이즈’라는 단어 대신 곧장 ‘씻는다’는 의미의 ‘washing’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들이 또다시 침례 문제에서도 바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서쪽 성벽(Western Wall)에서 성경을 읽는 유대인

Q 사도행전 8장 37절은 원래 없는 구절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A 이 문제 역시 고 장두만 박사가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그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 없음

영어 킹제임스 성경 :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 제외시키고 있는 사본 : P45(5세기), P74(7세기), ~~ℵ~~(4세기), A(5세기), B(4세기), C(5세기), P(9세기), ~~ψ~~(8/9세기), Byz 등
- 포함시키고 있는 사본 : 630(9세기), 945(11세기), 1739(10세기), 1877(14세기) 등

이 구절은 초기 사본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잔틴 계열의 다수사본(Byz)도 이 구절의 삭제를 지지하고 있고 Hodges-Farstad의 다수 사본설에 의한 헬라어 성경도 이 구절의 삭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에 원래 있던 말씀이라면 필사자들이 삭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은 원독이 아니라는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

여기서 장 박사가 사본들의 증거를 대면서 연대를 기록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삭제한 사본들 — 거의 대부분

이 천주교 사본임 — 의 연대가 이 구절을 포함한 사본들의 연대보다 앞섬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 사본’을 A로, ‘바티칸 사본’을 B로 표기한다고 해서 독자들이 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그는 다른 현대 학자들과 함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을 따라 “오래된 것이 좋다.”라는 주장을 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도행전 8장 21절에 나오는 마법사 시몬의 마음보다도 바르지 못합니다. 성경 사본을 연구하면 몇 가지 증거물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교부들의 글입니다.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나오기 100년 전에 이미 키프리아(주후 200-258)은 이 구절이 본문에 있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The Treatises of Cyprian I: 1:17). 또한 주후 190년의 이레네우스와 주후 370년의 파시안도 이 구절이 원래 본문에 있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단지 가이사라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주후 250-350년 사이에 변개시킨 사본들만 이 구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본들 명단 역시 의심스러운 알렉산드리아/천주교 사본들 아닙니까? 과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경의 파급을 저지하던 천주교에서 교회를 위해 사본들을 보존해 주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합니까?

도대체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목사인 장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 없이도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논리적일까요? 한 번 사본의 증거를 따지기에 앞서 앞뒤 문맥을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천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

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에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한글개역성경』은 이상하게 37절을 ‘없음’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 다음 구절들이 한 절씩 앞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흠정역 행 8:37)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37절을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천주교가 생겨났습니다. 중세암흑기를 주도한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들의 체제 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

절의 말씀이 이런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거침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개역 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에는 이 중요한 구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천주교의 유아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Q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신전’으로 번역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A 이 문제 역시 고 장두만 박사가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그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 οὐτε ιεροσυλος

영어 KJV : which are neither robbers of churches,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들을 훔치지도 않았고

한글 개역판 :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헬라어 단어 ‘히에로쉴루스’(ιεροσυλος)의 의미이다. 이 단어는 KJV나 한글 KJV같이 ‘교회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이 아니고 ‘헬라인의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을 의미한다. 바우어(Walter Bauer)의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는 분명히 ‘신전 물건을 훔치는 도둑’(temple robber)을 의미한다. 문맥적으로도 ‘교회 물건을 훔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므로 에베소 지역에 기존 교회가 있을 리도 없다. 그러나 KJV나 한글 KJV 성경은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KJV나 한글 KJV 성경의 분명한 오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교회’입니다. 보통 신약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로서 이는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히에로실루스’로서 ‘에클레시아’와는 다르며 이것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주로 성전(temple)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에서 ‘전’(temple)이란 신에게 경배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 경배 대상인 그 신은 그 전에 거해도 되고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전’은 그 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 신에게 경배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면 ‘교회’(church)라는 단어는 ‘주의 집, 특히 어떤 특정한 주의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house of a lord, a specific lord; each house having its own lord.

이 구절에서 마을 서기는 이들 중 누구도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여기의 문맥이 특정한 신을 위한 전 즉 다이아나의 신전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으며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특정한 신이 거하는 특정한 집’ — 이 경우에는 여신 다이아나에게 경배하는 집 — 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Church)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1600년대에는 심지어 이슬람교도들의 모스크도 ‘교회’라 불렸으며 ‘교회’ 즉 ‘church’의 뜻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같은 신조나 사상을 가진 자들의 모임’(14번째 용례)도 분명히 ‘교회’ 즉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루었던 모임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

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 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행 7:38)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 중에 여기 나오는 교회가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넓은 의미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아 특정한 신 즉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 는 모임’을 형성했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옥스 퍼드 영어 사전」도 13번째 용례로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즉 ‘church’는 영어에서나 한국어에서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교회가 ‘건물’의 의미로 쓰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나 지금이나 이단들도 다 자기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교도들도 다 자기들이 ‘교회’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몰몬 템플(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도 자기들의 모임과 건물을 교회라고 하며 목양자를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자기들 건물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도둑맞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 시의 마을 서기가 “이들이 교회에서 물건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용례 면에서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서기는 진정으로 신전이 아니라 지역 교회 건물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거의 2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결과 아시아(몰론 소아시아를 가리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행 19:10)

이렇게 복음이 2년 동안 왕성하게 전파되었으므로 그 지역에 이미 여러 개의 지역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가 있을 리 없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마을 서기가 교회라고 말한 것은 영어 단어 ‘교회’(church)의 넓은 뜻으로 보아도 맞고 이단이나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모임/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도 맞으며 실제 지역 교회라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문맥에 맞게 이 구절을 잘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20, 23절 등에 나오는 ‘첫 열매’는 복수를 살려 ‘첫 열매들’이라고 번역해야 하지 않습니까?

A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첫 열매’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But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Christ's at his coming

언뜻 보면 영어 ‘firstfruits’가 복수로 되어 있어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며 특히 렉크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이것을 고집합니다(말씀보존학회). 그런데 성경의 용례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firstfruits’가 총 32번 나오며 이것들의 용례를 보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

ye know the house of Stephanas, that it is the firstfruits of Achaia
...

여기서 보다시피 ‘firstfruits’ 는 보기에는 복수 같지만 실제로는 단수입니다. ‘it is’ 라는 단수 대명사와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Salute my wellbeloved Epaenetus, who is the firstfruits of Achaia unto Christ.

여기에도 단수 동사 ‘is’ 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에 따라 ‘firstfruits’ 를 단수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첫 열매들 그리스도’ 하면 벌써 말 자체가 꼬이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지 못한 다른 사실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Q 빌립보서 1장 13절의 ‘palace’는 시위대를 오역한 것이 아닙니까? 현대 역본 역자들과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A 이 문제 역시 고 장두만 박사가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그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 ἐν ὁλῶ τῷ πραιτωρίῳ

영어 KJV : So that my bonds in Christ are manifest in all the palace,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한글 개역판 :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프라이토리온’(πραιτωριον)인데 이 단어는 여기서 ‘황제의 시위대’를 의미한다. 물론 때로는 ‘프라이토리온’이 총독이나 왕의 관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벌써 로마 황제의 궁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황제의 궁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살면서 차꼬에 매여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행 28:30). 그러므로 여기서 ‘프라이토리온’을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다.

먼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흠정역)

고 장두만 박사의 주장은 현대 역본 역자들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향을 받은 성경 주석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이 나오기 이전에 쓰인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mperor, the courtiers, the magistrates, are convinced that I do not suffer as an evil-doer, but as an honest man, with a good conscience. They know that I suffer for Christ, and not for any wickedness.

황제와 대신들과 행정관들이 내가(바울이)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장 박사가 여기서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언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자기가 억울하게 결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알려지면서 자연히 궁궐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여기의 카이사르는 분명히 로마의 황제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궁궐 안에 바울의 소식이 알려지고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빌립보서 1장 13절의 ‘궁궐’ 즉 ‘palace’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는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Q 빌립보서 3장 20절의 ‘conversation’은 시민권(市民權)입니까? 아니면 생활 방식입니까?

A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고 장두만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문제라고 지적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 *ημῶν ναρ το πολιτευμα εν ουρανοις
υπαρχει*

영어 KJV : For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한글 개역판 :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폴리티마’(πολιτευμα)이다. 이 단어는 ‘시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장소’란 의미인데 영어 KJV에서는 ‘회화’(會話)라고 번역했다. 고어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화’는 현대 영어의 ‘시민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영어 KJV를 번역했다는 한글 KJV에서는 ‘회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시민권’이라고 번역했다. 아마 영어 KJV의 번역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역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글 KJV는 영어 KJV의 번역이 아니라 새로운 번역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장 박사가 지적한 대로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역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제 ‘conversation’ 이 시민권인가 생활 방식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용례를 찾아봅시다. 이를 위해 성경 소프트웨어로 가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conversation’ 을 찾아보면 스트롱 번호가 4175로 되어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는 여기 한 군데서만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4176 번호가 매겨진 단어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Englishman’s Concordance」로 가서 4176을 넣으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4176이 쓰인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흠정역 행 23:1)

And Paul, earnestly beholding the council, said, Men and brethren, I have lived in all good conscience before God until this day(KJV)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법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개역성경)

Paul,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said, “Brethren, I have lived my life with a perfectly good conscience before God up to this day(NASV).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흠정역 빌 1:27)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th the gospel of Christ(KJV)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개역성경).

Only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NASV).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생활하다’, ‘살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생활 양식’, ‘행실’ 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현대 역본들도 다 그렇게 번역했으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을 굳이 시민권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 박사는 ‘conversation’의 현대 용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conversation’의 용례를 보면 1차적 의미가 ‘생활’, ‘행실’ (Action of living)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을 했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그 당시 뜻을 알려면 당연히 그 당시 뜻을 담은 사전을 보아야지 현대 사전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의 용례와 원어의 용례대로 ‘생활 방식’이라고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오래된 단어를 쓸 이유가 뭐냐고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영국/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과 동시대에 나온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자주 무대에서 공연됩니다. 그런데 배우들은 1600년도의 영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를 현대어로 바꾼 것은 더 이상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닙니다. 일개 연극 대사도 1600년도 대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담은 성경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지난 4세기 동안 뜻이 변한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몇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단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뜻이 부패한 것도 하나님이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한편 『개역성경』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생활했다’ 혹은 ‘살아왔다’ (lived)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거짓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Q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A 이 문제 역시 고 장두만 박사가 제기한 것이므로 먼저 그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 *πολλα ναρ πταιομεν απαντες*

영어 KJV :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한글 개역판 :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영어 KJV는 헬라어의 의미를 잘못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 KJV를 직역하면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한글 개역판이나 한글 KJV같이 번역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글 KJV는 또 문제가 된다. 왜 영어 KJV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는가? 이승오 대표는 「교회와 신앙」(1995년 2월)과의 인터뷰에서 13년이나 걸려서 한글 KJV를 영어 KJV에서 100% 번역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영어 KJV의 번역은 아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영어 KJV가 오역인 줄 알았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가 영어 KJV도 영감된 말씀이 아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장 박사는 영어 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함정을 밟았습니다. 먼저 영어 구문을 살펴봅시다.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장 박사는 ‘offend’ 라는 단어를 타동사로 보고 ‘all’ 을 목적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offend’ 는 자동사이며 ‘all’ 은 목적어가 아니라 ‘we’ 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나 한글 KJV나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은 다 100% 맞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흠정역)

그러면 다른 현대 역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For we all stumble in many things. If anyone does not stumble in word, he is a perfect man, able also to bridle the whole body. (NKJV)

For we all stumble in many ways. If anyone does not stumble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able to bridle the whole body as well. (NASV)

We all stumble in many ways. If anyone is never at fault in what he says, he is a perfect man, able to keep his whole body in check. (NIV)

다른 현대 역본들도 모두 동일한 그리스어 문장을 ‘우리는 다’ 혹은 ‘우리 모두는’ 으로 번역했습니다. ‘offend’ 가 자동사라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한편 『개역성경』은 ‘많은 것에서’ (in many things)를 삭제해서 또다시 번역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If any man offend not in word, the same is a perfect man. (KJV)

Q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둘 다 가능하지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므로 전자를 택했습니다. 영어 원문은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어에서 ‘of’ 만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므로 추후에 ‘of’ 의 용례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혹은 대한) 계시’ 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책의 제목이 ‘요한의 계시록’ 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예수님은 계시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로 하면 예수님이 계시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예수님이 계시록 전체를 주시는 분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번역을 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 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도 일곱 교회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4장 이후부터 일어나는 7년 환난 기간의 모든 계시를 주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에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 22:16)

이 구절과 1장 1절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계시를 적은 사람은 요한이므로 요한의 계시록이라 해도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렉크맨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가르치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말고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성경의 문맥입니다.

한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을 다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적어야 하므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전체 책의 요점을 머리에 둔 채 적합하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논하실 때도 오역이라 하지 말고 이역이라 하기 바랍니다.

Q 요한계시록 4장 6절은 짐승이 맞습니까? 아니면 생물이 맞습니까? 그리스어로는 생물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A 먼저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고 장두만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문제라고 지적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 : τεσσαερα ζωα

영어 KJV : four beasts

(말씀보존학회)한글 KJV : 네 생물

한글개역판: 네 생물

이 부분도 영어 KJV는 완전한 오역이다. ‘조아’(ζωα)는 헬라어에서 ‘생물’을 의미하지 영어 KJV같이 ‘짐승’이나 ‘야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헬라어에는 ‘짐승’이나 ‘야수’를 의미하는 ‘데리온’(θηριον)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cf. 계 13:1, 2, 11).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왜 영어 KJV를 번역하지 않았는지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글 KJV가 영어 KJV의 번역이라면 영어 KJV가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한다. 만약 고치려면 sic이란 문장 부호를 사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았음을 표시해야지 번역자의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KJV는 영어 KJV의 번역도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서의 새로운 번역도 아니다.

장 박사가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KJV를 번역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 번 더 성경 소프트웨어로 가서 계시록 4장 6절의 짐승을 찾아보면 스트롱 번호가 22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 「Englishman's Concordance」로 가서 2226을 넣으면 신약성경에서 2226으로 분류된 단어가 들어 있는 구절이 다 나옵니다. 검색 결과 이 단어는 모두 23회 쓰였음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 6, 7(4회), 8, 9절, 5장 6, 8, 11, 14절, 6장 1, 3, 5, 6, 7절, 7장 11절, 14장 3절, 15장 7절, 19장 4절.

『킹제임스 성경』은 위의 모든 구절에서 일관성 있게 이 단어를 모두 짐승으로 번역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현대 학자들이 추앙하는 『NIV』, 『NASV』, 『개역성경』 등도 다음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생물로 번역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처럼 ‘짐승’ (혹은 동물)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0장. 따라서 동일한 단어를 일관성 없이 번역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현대 역본 역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학자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으며 이 구절 역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구절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말씀보존학회가 대답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하고 또 다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 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 12:6-7)

부록1 용어 정리

성경 이슈를 논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외에 필요한 것들은 독자께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의 뿌리와 역사』를 보시면 더욱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성경도 이를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 2:15)

1. 파피루스(Papyrus)

값싼 종이. 원래 파피루스는 고대의 문방구 또는 사초과(莎草科 Cyperaceae)에 속하는 파피루스(Cyperus papyrus)에서 유래한 식물이며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파피루스 식물은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했으며 자루 또는 줄기를 쓰기 위해 모았는데, 가운데 수(髓)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 압착하여 말려서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든다. 파피루스는 풀처럼 생긴 수생식물로, 목본성의 무딘 3각형 줄기를 가지며 깊이가 90cm 정도인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 키 4.6m까지 자란다. 지금은 종종 따뜻한 지역에서 연못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온실에 심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줄기를 돛·천·방석·땃줄·종이를 만드는 데 썼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고대 이집트인의 주요한 문방구로서 그리스인이 이를 도입했고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책(두루마리 형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문과 법률 공문서로 쓰였다. 플리니우스는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기술했는데 줄기 속의 섬유층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한 조각으로 잘라 이들을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다른 조각들을 직각으로 교차시킨다. 이렇게 2층으로 쌓은 시트를 풀이 죽게 압축시킨다. 말리는 동안 아교 같은 수액(樹液)이 시트를 서로 접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망치로 두드린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순백색을 띠는데 잘 만들어진 것은 반점·얼룩 및 다른 결함 등이 없다. 시트를 풀로 붙여 두루마리로 만드는데 대개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트가 2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피루스는 8, 9세기에 다른 식물섬유로 종이를 제조하게 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아랍인들이 재배했고 문방구를 만드는 데 썼다. 3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미 저렴한 벨럼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12세기경까지는 책이나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 간간히 쓰였다.

이처럼 양피지에 비해 값이 싼 종잇조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신약성경은 원래 이런 종이 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종잇조각들은 1, 2, 3, 4, 5, 6, 7 등의 번호가 매겨졌으며 그 안에는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중 많은 수가 교회 역사의 첫 3세기(주후 100-300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2. 벨럼(Vellum)

글이 기록된 고급 가죽(양피지). 벨럼은 주로 양·염소·송아지

등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서사(書寫)의 재료이며 다 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BC 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페르가문(지금의 터키 베르가마)에서 양피지가 발명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양피지의 명칭이 이 도시에서 유래한 듯하다. 짐승의 가죽이 필기 재료로 쓰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가죽을 보다 철저하게 세척하고 늘이고 문지르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필사지의 양면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두루마리 사본이 철을 한 책자(코덱스)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송아지나 새끼염소의 가죽 또는 사산되었거나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벨럼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최고급 양피지를 일컫는 데 쓰이게 되었다. AD 6세기에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에 사용되었던 벨럼은 질이 좋았다.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시장에 나왔으나 서유럽에서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던 12세기까지는 부드럽고 유연한 벨럼이 유행했다.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진한 자줏빛 염색을 하고 금·은으로 글씨를 새긴 호화스러운 형태의 양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성 제롬은 그의 잘 알려진 시구에서 이러한 관행을 쓸모 없는 사치라 비난했다. 자줏빛 염색은 그 후에 사라졌지만 금·은, 기타 색조로 양피지 사본에 ‘윤을 내는’ 관행은 중세에도 크게 유행했다. 오늘날 양피지와 벨럼이라는 용어는 주로 목재 펄프 및 제지용 닥마로 제조하여 특수한 마감처리를 한 일종의 고급종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벨럼 중 몇몇은 족자처럼 말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두루마리’(scroll)라고 불리며 또 어떤 것은 마치 책처럼 장(p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덱스’(codex)라고 불린다. 두 개의 가장 오래된 ‘코덱스’는 ‘바티칸 코덱스’(Vaticanus)와 ‘시내 코덱스’(Sinaiticus)이다. 이들은 보통 ‘바티칸 사본’(B 사본) 그리고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 사본’(Aleph)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다.

3. 자필 원본

이것은 글자나 음표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원고를 가리킨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어의 'autograph'는 사람이 손으로 쓴 서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동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나 부수적인 가치 이외에도 자필 원고는 원고의 초기 초안이거나 또는 수정본일 수 있고 작성 단계상 귀중한 증거나 작품의 마지막 수정판의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 원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다 소실되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4.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구절이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성경 사본이든 구약성경 사본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5. 사본들의 계열(Families of manuscripts)

현재 4종류의 사본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킹제임스 성경』(KJV)과 마틴 루터의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 (Syr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으며,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V), 『미국표준역』(ASV), 『개역표준역』(RSV), 『한글개역성경』, 『표준새

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흔히 ‘알렉산드리아 계열’ 혹은 ‘이집트 계열’ (Egypt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계열’ (Western family)과 ‘카이사르 계열’ (Caesarian family)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계열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흠정역 성경』의 사본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열이다.

6. 본문(Texts)

이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 즉 사본, 복사본 등을 모아 재구성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의미한다. ‘Text’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성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엘지버, 베자, 밀, 펠, 왈톤,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크, 알포드, 메즈거, 알란드, 네슬레, 웨스트코트, 호르트 등.

신약성경 본문 중에서 시리아/비잔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보통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린다. 『공인 본문』은 어떤 공적인 단체가 그 성경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 本文)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 本文)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인 본문』을 『표준 원문』(標準 原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거나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알란드, 네슬레 등이 천주교의 이집트 ‘소수 사본’에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본문으로부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과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 간의 대립이며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카톨릭 본문 간의 대립이다.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NIV』, 『NASV』, 『RSV』,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 『한글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문체와 표현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부패된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같다 할 수 있다.

7. 역본(Versions)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 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틱(이디오피아) 언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역본’ 은 사실 ‘성경 기록’ (Scripture)을 ‘옮겨놓은 것’ (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Version’ 이란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 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과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흠정역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 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 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8.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

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말의 영향으로 ‘왕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흠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가 승인한 학자 54명 가운데 47명이 7년 동안 3곳에서 6개 집단으로 나뉘어 과거의 영역 성서들과 원래의 언어로 된 본문들을 사용해 작업했다. 그 결과 등장한 영역 성서는 영어 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300년 이상 표준 영어 성서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 상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수성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부흥과 영혼 구원 :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2) 물질적 번영 :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종교개혁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난이 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3) 『흠정역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의 열매 : 만일 여러분이 이성적이라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필리핀 등을 보라. 이들 모두가 지배 아래에 가장 큰 부채를 짊어진 국가들이 아닌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고 땅도 비옥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이교사상)과 신학(바르지 못한 성경)이 그 나라를 지배하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었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

들은 영혼 구원을 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 네슬레, 알란드, 메쯔거, 웨스트코트, 호르트, 라이트푸트, 엘리콧 등 — 참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또한 이미 1611년부터 『흠정역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레’ 등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로마 천주 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9. 개정(revision)

성경 본문을 바꾸는 것.

10. 교정, 정정(correction)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로서 ‘개정’과는 전혀 다른 것임.

부 록 2

역자 추천 참고 도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킵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킵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보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 레이지 저,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사리6)」, 낯은울타리.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사리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져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델 R.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오순절 은사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체」,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V.P).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 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디.
12.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1.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재림과 휴가: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1.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2. 「칼빈주의 바로 알기」,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